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6 호 6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7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제6호 (139)

1957년 6월 25일

내 용

당 사상 교양 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우리 당의 사상 사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혁명의 매개 단계와 시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위대한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 인민들의 거대한 력사적 실천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에서 확증되였으며 풍부화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를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 속에 깊이 해석 침투시키기 위한 사상 선전 사업을 가강히 전개하여 왔다. 조선 혁명 수행의 매개 단계에서 모든 승리와 성과들과 함께 당 사상 사업은 한층 개선 강화되였으며 거일보의 전진을 이룩하였다.

오늘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지배적 사상으로 되였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00 여 년전에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 발전에 대한 기본 명제들이 우리 나라에서도 승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대한 승리는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중요한 구성 부문인 당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의 개선 강화와 당원들의 사상 리론 수준이 종전에 비하여 현저히 제고된 것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우리 당원들은 지난 10 여 년 동안에 당의 부단한 사상 교양 사업에 의하여 정치 리론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소유 정도는 불충분하며 객관적 현실의 발전에 뒤떨어지고 있다. 더우기 우리 혁명의 현 단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롭고 거대한 과업, 제1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하며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풍부한 사회주의 건설 경험들을 창조적으로 섭취하려면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리론 수준을 더 한층 제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 시기 더욱 첨예한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와의 투쟁, 국제 로동 운동 대렬 내에서의 수정주의, 기회주의적 편향과의 투쟁은 우리 당원들의 높은 의식성과 사상적 단련을 더욱 긴절하게 요구한다.

이와 같은 현 국제 국내 정세들은 우리 앞에 당 사상 교양 사업을 한층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며 더욱 개선 강화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당 중앙 위원회 조직 위원회는 《당 정치 교양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는 바 거기에서는 새 학습 년도를 앞두고 당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사상 교양 사업의 개선 강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였다. 특히 이 결정서에서는 주되는 주의가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사상 사업 분야 앞에 제기한 과업, 사상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과업의 수행 대책의 강구에로 돌려졌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제3차 당 대회가 제시한 과업의 기본 정신에 근거하여 현 실정에 부합되게 더욱 구체적으로 당 사상 교양 사업의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과업이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시키며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계급 의식을 제고하며, 그들을 당 내 통일과 단결의 견결한 수호자로 교양하며, 조국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당 정책의 열성적 집행자로,

근로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열렬한 선전자로, 부르죠아 사상과 온갖 기회주의 사상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사로, 충실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자로 교양»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당 사상 교양 사업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에 대한 계급 교양——맑스—레닌주의 교양을 우리 나라의 혁명 문제와 사회주의 건설 문제의 해결에 복종시켜 당원들에게 당 정책과 당 내 투쟁의 합법칙성을 깊이 인식시키며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확립을 일층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당 교양망을 당원들의 리론 수준과 당 단체들이 처한 구체적 실정에 알맞게 개편 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당 사상 교양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당원들에게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소유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 혁명 앞에 제기된 현실적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도록 하는데 있다. 당 사상 교양 사업을 조선 혁명 문제의 해결에 복종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 학습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 정치 교양 사업이 매개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 생활과의 긴밀한 련계 속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만이 당 사상 교양 사업이 추구하는 일반적이며 공동적인 목적과 개별적이며 특수적 목적과를 합리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며 혁명과 당 사상 교양 사업이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보다 강력한 무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날 일부 당 단체들은 종종 당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생생한 현실과의 련계 속에서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에 복종시키지 못하였었다. 당 정치 교양 사업에서의 주의의 초점이 매개 당 단체들과 당원들 앞에 제기된 과업들의 해결과 수행에로 충분히 돌려지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일상 생활과의 유리를 초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 결과에 일부 당원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나라 혁명 수행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며 자기의 로동 생산물의 종국적 용도가 무엇인지 조차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당원들 속에서는 때때로 자기의 로동 생산물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규격과 품종을 어떻게 개선 확장할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현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당 사상 교양 사업이 현실과 유리되는 현상은 학습 강사들의 학습 참고 자료 리용과 강사들을 위한 쎄미나르에서 배운 것을 리용하는 데서도 발로되고 있다. 학습 참고 자료는 개별적 당 단체들이 처한 구체적인 실정과 부단히 발전 변천하는 현실 생활을 완전히는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각급 당 단체들에서 조직되는 학습 강사들을 위한 쎄미나르에서도 개별적 당 단체들의 실정과 생활이 충분히 타산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일부 학습 강사들은 학습 참고 자료들과 쎄미나르에서 배운 것에 자기 당 단체의 실정과 교훈적인 사실들을 결합하지 않고 그대로 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당 사상 교양 사업이 해당한 당 단체 앞에 나선 절박한 문제의 해결에 충분히 복종하지 못하게 되며 당원들에게 단지 일반적 지식을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학습 강사들 속에서는 당 교양망에서 당원들을 가르치는 데만 그치고 자기가 가르친 내용이 실지 행동에 옮겨지며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당원들을 적극 방조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당 학습의 실천과의 통일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결함들을 퇴치하고 당 정치 교양 사업을 조선 혁명 문제의 해결에 복종시키면서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닥쳐 오는 학습 년도부터 사용하게 될 학습 제강을 새로이 작성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기의 정치 리론 수준과 요구에 따라 많은 당원들이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서 체득하며 조선의 혁명 운동과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가

지게 하며 당 내 투쟁의 합법칙성을 명확히 인식하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최후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하는 조선 로동당 투쟁 력사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학습 제강은 비교적 리론적으로 준비된 일부 당원들에게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리론들을 더욱 철저히 연구시키며 그 연구를 현실에 보다 접근시키며 그들의 실지 사업에 방조를 줄 목적으로 쏘련 공산당 력사, 철학, 일반 정치 경제학, 부문 경제학, 문학 예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연구 또는 자습할 수 있도록 작성되여 있다.

당 단체들은 당 사상 교양 사업을 조선 혁명 문제의 해결에 복종시킬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기본 정신을 깊이 파악하고 당원들의 학습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 사상 교양 사업이 실천과 결부되도록 하부에 더욱 접근하여 구체적 지도를 주어야 할 것이며 학습 강사들이 당원들의 학습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게끔 적극적인 방조를 주는 조직자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 학습을 현실과 결부시킨다 하여 리론 문제들의 연구를 소홀히 하면서 현실 일면에만 치중하려는 경향들을 제때에 포착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원들에게 매개 리론 문제가 실생활에서 갖는 의의를 더욱 철저히 인식시킬 것이며 학습한 문제의 리론 정치적 내용을 보다 깊이 파악시킴으로써 학습과 현실과의 련계를 한층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매개 혁명 단계와 시기에 취해진 당의 로선과 정책은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며 조선 인민들의 지향과 지망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여기에는 조선 혁명의 구체적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여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적용에 대한 혁명적 정신이 일관되여 있다.

그러므로 당 정책의 심오한 연구는 우리들로 하여금 당의 전략 전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방침과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체득케 하며 그를 끝까지 옹호 집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곤난과 희생이라도 극복하려는 정치적 각오 정도와 의식성을 더욱 높여 준다. 당 정책의 심각한 연구는 당 정책이 지도 간부들로부터 보통 당원에 이르기까지, 당 중앙으로부터 초급 당 단체에 이르기까지 일치한 리해와 해석으로 관통되게 하며 그리하여 전 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일관되게 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한다. 당 정책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우리 당과 같이 종파 잔재가 아직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우리의 현 조건 하에서는 더욱 더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된다. 당 정책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유일한 해석과 견해는 반당 종파 분자들이 발붙일 곳을 없게 할 것이며 종파 잔재 요소와의 일상적 투쟁을 강화하여 그의 극복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우리 당 정책은 대중 속에서부터 나와 다시 대중 속으로 들어 가서 그들 자신에 의하여 진행되니 만큼 당의 정책을 군중 속에 해석 침투시키며 그 집행의 조직자로, 고무자로 되여야 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 정책의 기본 내용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당 정책의 철저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를 형식적으로 혹은 피상적으로 학습하며 당 정책의 집행에서 이러 저러한 편향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당 정책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주관적 판단, 그리고 자유주의적이며 불성실한 태도가 발로되고 있다. 일부 당원들 속에서는 자기들 앞에 제기된 정책적 과업의 근저에 일관하여 흐르고 있는 심각한 정치 리론적 내용과 현실적 기초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 사업과 행동에서, 당 정책이 가르키는 길에서 리탈하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은 당이 자기들 앞에 제기하고 있는 정책적 과업은 무엇이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하여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당 정책 집행에서 때로는 오유를 범하거나 높은 당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당 정책과 결정에 형식적으로 대하는 태도의 결과이다.

우리들은 당 정책에 불성실하게 대하며 그를 외곡 비방하는 것과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로부터의 사소한 리탈일지라도 융화함이 없이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당원들에 대한 당 정책 교양을 꾸준히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 중앙 위원회 결정에 지적된 바와 같이 당 정책 교양을 정상화하며 개선하기 위해서 각급 교양망에서 진행하는 학습회에서와 그 이외에 매월 1회 정도로 년 중 계속하여 초급 당 단체(분조) 별로 전체 당원들의 참가하에 진행하는 학습회에서 당 정책 문제를 계통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학습회에서는 매개 시기의 당과 정부의 중요 결정과 현행 정치 문제들을 취급하되 그를 매개 당 단체들의 과업과 실정, 그리고 개별적 당원들의 군중 관점과 군중 공작 방법의 개선 확립 문제 등에 결부하여 연구함으로써 현실 문제의 해결에 복종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 학습회를 통하여 당원들에게 당 정책의 본질을 심오히 리해시키는 동시에 매개 당원들의 당 정책 집행과 그 집행 행정에서의 군중 관점과 군중 공작 방법에 대한 자체 검토와 호상 비판을 전개함으로써 그가 당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은 당 단체들의 제1차적 과업으로서 그에 대한 지도에 당 단체들의 많은 력량이 돌려져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와 같이 사상 교양 사업의 성과 여부는 당 단체의 지도 여부에 달려 있다.

일부 당 위원회들은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를 선전 선동부 일'군들에게만 거의 일임하면서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를 정치, 경제, 문화 건설에 대한 지도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하는 결함을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당 단체들은 당 회의에서 때때로 사상 교양 사업을 형식적으로 토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지도를 대행하고 있으며 사상 교양 사업 진행 정형을 료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당 위원장을 포함한 당 위원들과 선전 선동부 이외의 다른 부서 일'군들은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상 교양 사업 뿐만 아니라 당 사업 전반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 그것은 사상 교양 사업과 같은 강력한 수단이 한 개 부서 일'군들에게만 일임됨으로써 사상 사업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지도적 역할이 약화될 것이며 그가 하부 당 단체에 접근할 많은 가능성을 잃게 될 것이며 따라서 당 단체들의 당원들에 대한 영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상 사업이 당 단체의 전반적 사업과의 련관 속에서 전개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형식주의적 경향들이 적지 않게 발로된다. 일부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현 문화 정도와 리론상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당원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있는바 그들은 자기 관하에 기초적인 보통 지식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당원들의 수효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당원들을 형식적으로 그의 수준에 지나친 어려운 정치 학습에 참가시키고 있었다. 결과에 기초적인 보통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당원들은 정치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 적지 않은 곤난을 겪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과 당원들의 현 문화 상태와 요구를 고려에 넣으면서 이러한 무리를 제거하도록 새로 학습 제강을 작성하였으며 당 교양망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새로 작성된 학습 제강에는 일반 기초 지식의 빈곤을 느끼는 당원들에게 그를 소유시키기 위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여 있으며 새 학습년도부터 실시될 당 교양망 체계는 당원들의 리론 수준을 종전보다 더 여러 층으로 구분할 것을 타산하고 있다.

새 학습년도부터 전체 당원들은 개편된 교양망에 망라되여 새로운 학습 제강에 의하여 학습하게 될 것이다. 당원들이 교양망에서 학습하는 시간은 년 70여 시간에 불과하다. 때문에 당원들은 자기 학습을 이에만 의탁하여서는 안되며 의탁할 수 없다. 매개 당원들은 자기의 정치 리론 수준을 보다 급속히 제고하기 위해서 당 학습 교재와 출판물을 통한 일상적인 자체 학습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당 단체들과 학습 강사들은 당원들의 학습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여야 하는 출판물을 통한 자체 학습 지도에 한층 높은 관심을 돌릴 것이며 당원들의 수중에 각종 출판물이 들어가도록 출판물 배포 사업에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당 사상 교양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습 강사들의 리론 수준 제고와 함께 학습 지도 방법의 가일층의 개선이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학습 강사들의 강의 내용과 함께 학습 지도 방법의 개선에 관심을 돌려야 하는바 지난 날 일부 지방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학습 강사가 학교 교원과 같은 방법으로 당원들 앞에서 강의하며 그들을 지도하지 않는다고 시비하여서는 안된다. 우리 당의 절대 다수 학습 강사들은 아직은 정규 학교 교원과 같은 준비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풍부한 정치 사회 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의하는 것만큼 어떠한 형식을 갖추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기 강의가 정치적 정확성과 목적 의식성을 뚜렷이 가지도록 하는 데 선차적 주의를 돌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년간에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선동과 때를 같이하여 사상 리론 전선에서 수정주의, 기회주의적 편향들이 발로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수단을 다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사상적 단결에 불화의 씨를 뿌리여 그를 약화시켜 보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일부 나라 기회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기본 명제들을 수정, 외곡하는 길에 들어서고 있다.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원들을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의 정신으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순결성을 끝까지 고수하는 고상한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에게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세련된 사상적 무기인 맑스—레닌주의와 그의 고전적 명제들에 의거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이며 우리 승리의 확고 부동한 담보라는 것을 더욱 확신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급 당 단체들은 사상 교양 사업을 통하여 당원들을 당 중앙 위원회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정책을 끝까지 수행 관철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정치 활동가로 교양 훈련하며 당원들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더욱 충실하며 맑스—레닌주의 학설의 우리 나라에서의 최종적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적으로 싸울 수 있는 혁명 투사로 육성하자.

당 규률의 강화는 당의 공고화의 담보

김 일 삼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기초한 당 규률은 당 대렬의 사상 의지 및 행동 통일과 혁명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담보이다. 따라서 당 규률의 강화는 당의 일상적 중요 과업의 하나로 되는바 현 시기에 있어서 이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 제국주의 반동 세력들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을 반대하는 파괴 활동에 있어서 그 나라들의 맑스—레닌주의적 당의 통일과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훼손시키려는 데 가장 예리한 활'살을 집중하고 있다.

웽그리야에서의 작년 10월 사변은 당 및 국가 기관 내에 있어서 혁명적 규률의 손상이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잘 말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혁명적 당 내 규률의 사소한 손상이라도 얼마나 악랄하게 리용하는가를 잘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기'발 아래 숨은 국제 기회주의, 수정주의자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당 및 국가 활동에 있어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 원칙을 부인하며 혁명에 있어서 당의 지도적 역할까지 부인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중앙 집권제 원칙을 《민주주의》에 대립시키며 소위 《개성의 자유》란 구호하에 혁명적 규률을 부인하며 《민주의 확장》의 간판하에 당의 지도적 역할을 말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제 기회주의,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론의와 시도들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국제 로동 운동의 력사에서 바꾸닌주의자들, 마르또브주의자들을 비롯한 일련의 기회주의, 수정주의자들이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과 당 규률을 부인하여 진출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이 오늘 다시 들고 나온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 원칙과 당 규률을 부인하는 소위 《론거》의 본질은 이미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의하여 여지 없이 분쇄된지 오랜 것이다. 엥겔스는 일찌기 무정부주의자들과 투쟁할 때에 어떠한 사회 조직에서든지 간에 오직 련합된 활동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일정한 권위와 일정한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론증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견해》의 부당성과 반동성을 정확히 폭로 비판하였었다.

로씨야의 멘쉐비크 및 기타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레닌은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 당 규률, 혁명에서의 당의 조직적, 지도적 역할의 결정적 의의를 명백히 지적하였다.

당의 지도적 역할, 지도자의 역할, 당 규률을 부인하는 《좌익》공화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레닌은, 이것은 곧 당성 계급성의 부인이며 그 본질에 있어서 산만하고 동요하며 참아내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며 일치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소부르죠아의 근성이며, 만일 이러한 근성을 그대로 방임하게 된다면 그 결과 필연적으로 어떠한 프로레타리아 혁명 운동도 완전히 실패하고야 말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레닌은 정복된 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며 수백만의 소경영자들을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재교양하고 그의 경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시기에 있어서 당 규률의 의의와 그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누구든지 비록 조그만치라도 프로레타리아트 당의 규률을 약하게 한다면(특히 프로레타리아 독재 시기에) 그는 사실상 프로레타리아트를 반대하며 부르죠아지를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당 내에서 혁명적 규률의 손상이 당의 통일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혁명의 운명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당 규률의 강화는 당의 통일, 혁명의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진리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 경험과 우리 당의 실제 투쟁 력사가 확증하여 주고 있다. 해방 직후 우리 당 창건 초기에 일부 종파 분자, 지방 할거주의자, 자유주의, 개인 영웅주의 분자들은 당 규률을 잘 준수하지 않으며 따라서 아직 당의 혁명적 규률이 확립되지 못하였을 때, 또한 간고한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에 일부 자유주의 분자들에 의하여 당의 혁명적 규률이 손상되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태가 당과 혁명에 얼마나 위험한 것이였었는가 하는 것은 주지되여 있다.

우리 나라 혁명 투쟁에서 우리 당이 수행하는 지도적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 당 규률을 강화하는 문제는 그것이 다만 당 내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혁명적 규률의 유지 강화의 여부는 당의 통일, 당의 존망의 운명에, 혁명 투쟁의 승패의 운명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당 창건 초기부터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 당 중앙 위원회 제3차 전원 회의를 비롯하여 항상 당 규률의 유지 및 강화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우리 당은 《그의 직위와 공로에 관계 없이 전체 당원들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유일한 당의 규률》을 확고히 실시함으로써 당의 통일 단결과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철저히 보장 관철하였으며 하고 있다. 자기 대렬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당은 전체 근로 대중을 당의 주위에 조직 단결시키며 혁명 투쟁에서 조직성과 규률성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교양하였으며 하고 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미제 침략자들과 국내의 반혁명 세력을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서 우리 당의 지도하에 조직되고 단결되여 규률있고 조직성 있게 투쟁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빛나는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이것은 당 규률의 강화가 당 자체 발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혁명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또는 근로 대중이 맑스—레닌주의적 원칙하에서 조직 단결되고 규률있게 활동하는 때 그의 력량은 무궁 무진하며 어떠한 강적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혁명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 당 규률의 강화의 필요성과 그의 의의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제 기회주의, 수정주의자들은 이 리론이 이미 시기에 맞지 않게 《낡아》버렸다는 듯이 떠들고 있다. 진리는 이들——수정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 측면에 있다.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와 이를 반대하는 국제 제국주의와의 계급 투쟁이 일층 첨예한 현 순간에 있어서 당의 지도적 역할에 관한, 당 규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교시가 더욱 더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미제를 괴수로 한 국제 제국주의 세력과 간고한 투쟁에서,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며 당 및 국가 생활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옳게 관철시키며 혁명 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정당히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각국 인민들 간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을 강화하여 적을 타승하며 제기되는 곤난을 극복하고 발전과 승리를 이룩하는 기본 담보로 된다. 이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인 것은 당 및 국가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특히 당 내에 있어서 혁명적 규률을 가일층 강화하는 것이다.

※ ※

당 내에서 혁명적 규률을 유지 강화하는 것은 규률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깝게는 당원들을 혁명적 프로레타리아적 조직성으로 교양, 단련하며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과 일치한 조직적 활동을 보장하는 데 복종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전체 근로 대중 속에서 당의 조직자적, 지도자적 역할을 보장하며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는 목적에 복종되는 것이다.

우리 혁명 투쟁은 자연 발생적으로가 아니라 당의 지도적 역할하에 전체 근로 대중의 목적, 의식적이며 조직적 활동에 의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전체 근로 대중을 조직성과 규률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면서 그들을 당의 주위에 단결시키며 그들 속에서의 당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는 것은 당의 일상적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이러한 사업은 훌륭한 강령과 당의 구호로써만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당이 자기의 실제 활동의 모범으로써 근로 대중을 애국적 헌신성, 조직성, 규률성의 정신으로 설복 교양하여야 하며 대중이 실제 생활을 통하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 조선의 전체 근로 대중을 조직성과 규률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여 튼튼히 결속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담보의 하나이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당의 조직자적, 지도적 역할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당원들의 모범적, 선도적 역할을 제고하며 당의 통일 단결과 지도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당 내에 강철같은 규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우리 당 규률은 이 목적에 복무하는 것이다.

우리 당 규률에 포함되는 내용과 범위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규정된다. 즉 우리 당 규률은 자기의 사상과 견해를 당의 사상과 견해에 일치시키며 자기의 모든 리익을 당과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일체 활동에서 당 규약상 규범들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전체 당원들 및 당 단체들에 대한 당의 요구성이다. 우선 그것은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 원칙을 고수할데 대한 요구성이며 전 당과 당원간의 관계, 당원들 호상간의 관계, 당과 대중간의 관계에서의 당적 도덕과 질서와 규범을 엄격히 준수할데 대한 당의 요구성이다. 가령 당의 사상, 당 정책을 접수하지 않고 그에서 리탈된 견해를 주장하거나, 당 정책 실천에 적극 참가하지 않거나, 당 생활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당 규약상 요구를 실행하지 않는 것, 또는 당의 통일 단결에 반대되게,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 원칙에 저촉되게 행동하는 것, 당의 군중 로선을 위반하는 것 등 그 모든 것은 당 규률 위반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당 규률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중앙 집권적 요구에 복종되는 것이다.

우리 당 규률은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보장하는 수단의 하나이며 혁명의 리익에 개체의 리익을, 원대한 리익에 일시적 리익을, 전반적 리익에 부분적 리익을 복종시키는 정신으로 전 당을 교양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과 엄격한 요구성을 가진 우리 당 규률은 그 본질에 있어서 당원들의 자각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 당은 근로 대중의 가장 우수한 선진 분자들로 조직된 자각적, 선봉적 부대이며 사상 의지의 통일체이다. 자각된 분자들인 우리 당원들은 그 자신의 립신 양영의 영예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전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종국적으로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희생적 헌신성의 대'가로써 실현되는 혁명의 승리 속에서 무한한 행복을 발견하며 개체의 발전을 이룩하는 고상한 사상과 리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우리 당 규률은 전체의 일치한 협동적 활동을 위한,

당의 중앙 집권적 요구에 충실하기 위한 행동 규범상의 자체 요구로 된다.

당원들의 이러한 자각성과 자기 희생성에 의하여 당 규률이 공고히 유지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강력성의 원천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규률은 당 내 민주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당 내 민주주의——이것은 우리 당 생활의 최고 법칙이다.

당의 모든 결정과 활동, 당 내의 일체 생활은 민주주의적 집체적 원칙에서 진행된다.

당 규약에 명백히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당원들은 당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무적 토의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가 있다. 당 규약상 보장에 의하여 당원들은 당 사업의 모든 기본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으며 자기 재능과 능력에 따라 창발성을 적극 발휘할 수 있다. 당적 원칙에 선 정당한 토론과 의견, 창발성은 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장려를 받는다.

우리 당 내에서 어떠한 새로운 규범을 설정함에 있어서나 이러 저러한 문제를 결정하며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은 례외 없이 전체 당원들의 직접 참가하에 혹은 그들에 의하여 선거된 대표들, 또는 지도 기관들에 의하여 집체적 토의의 기초 우에서 설정되며 해결된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에게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당 규률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당원들 자신이 설정한 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그들을 대표하여 선거된 당 지도 기관들은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러 저러한 규범들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미 설정된 규범들을 폐지 혹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 규률은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원들의 의사에서 출발되는 것이며 그들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국제 수정주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러한 혁명적 규률은 대중의 민주주의, 창발성에 모순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이 량자를 대립시킬 수 없다. 엄격한 중앙 집권제와 규률이 마치 민주주의와 창발성을 구속하는 듯이 생각하는 견해는 아직 선진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립장에 들어 서지 못한 자유주의적, 무정부주의적, 소부르죠아의 견해인 것이다.

※ ※

우리 당 규률이 당 내 민주주의, 당원들의 자각성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당의 일상적 지도와 통제가 없이 자동적으로 유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로 (반당 분자들의 의식적 파괴 행동을 제외하고) 객관적 생활 환경 및 조건의 발전, 당 발전과 당원들의 사상 의식의 발전이 언제나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설명된다. 당 규률은 당의 구체적 활동, 실제 혁명 과업의 실천 요구에 복무하는 것 만큼 당 발전, 혁명 발전의 각개 단계에서 당 내외의 환경 조건, 당 앞에 제기된 과업에 따라 규률이 요구하는 내용의 이러 저러한 측면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민첩히 감촉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활동에 있어서 당의 이 새로운 요구에 순응하지 못함으로써 당적 의무를, 당 규률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의 새로운 환경에 들어 서면서 그에 따르는 경제 정책을 제기한 초기에 당의 이 경제 정책의 중대성과 새로운 요구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일부 일'군들이 당의 요구에 부합되게 사업하지 못한 사실은 그러한 례의 하나이다. 당의 요구에 부합되게 사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당 규률에 대한 손상으로 되며 위반으로 된다.

극히 중대한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오늘 우리 당이 처한 환경 및 당 발전의 현 수준 등으로부터 우리는 당 규률 강화에 대한 문제에 더욱 신중한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극악한 적인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도당과 한 나라 령토 내에 직접 장기간 상치하여 있으며 또다시 전쟁 도발

을 획책하는 적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악랄한 파괴 활동을 감행하고 있으며 자기의 모든 선전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근로자들 속에서 장성되는 사회주의적 사상, 프로레타리아적 자각성을 마비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물론 개조 과정에 있고 극히 미약하고 부분적이나) 아직 자본주의적, 소생산자적 경제 요소가 있으며 특히 관습 및 이데올로기상에 있어서의 소부르죠아 요소가 적지 않다.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의 전진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장애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일찌기 레닌은 당 밖에 남아 있는 소부르죠아적 요소가 당 내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위협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항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자적 역할(이것이 주요한 역할이다)을 옳게 성과 있게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 당 내부에 엄격한 중앙 집권제와 규률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시였다.

우리 당 발전의 현 수준과 력량은 의심할바 없이 당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을 능히 완수하기에 충분하다.

우리 당은 백전 백승하는 맑스—레닌주의로 무장되였으며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전 당이 철석같이 통일 단결되였으며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 련계가 보장되여 있다.

그러나 우리 당 내에는 프로레타리아적 자각성과 조직성이 미약한 당원들이 아직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특히 우리 당 발전의 특수성 및 현 당이 처한 객관적 환경 등과 관련된다.

우리 당이 광범한 계급적 토대를 가진 대중적 당으로 발전하고 있음으로 우리 당원의 과반수는 근로 농민, 근로 인테리 및 기타 비프로레타리아 출신 근로자들이다. 입당에 대한 엄격한 개별적 취급 절차와 입당 후 그들에 대한 당의 꾸준한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의 결과에 그들 중 절대 다수는 프로레타리아적 사상과 립장이 확고하다. 그러나 우리 당의 력사가 아직 청소하고 특히 당 내에 전쟁 시기 혹은 그후 시기에 입당한, 당 생활 년한이 짧은 당원들이 많은 사정과 관련하여 아직 프로레타리아적 세계관, 당적 립장이 미약한 당원들과 소부르죠아적 요소가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상 정치적 단련, 당성 련마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 당원은 주위로부터 소부르죠아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 당 발전 력사에는 의식적으로 당의 통일 단결과 당 규률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일련의 종파 도당들이 있었는 바 물론 그들은 이미 분쇄되였으나 종파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다.

당 내의 이러한 조건들이 무규률성, 개인 영웅주의, 종파적 경향을 발생시키는 근원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고 당의 통일 단결과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일상적 중요 과업으로 된다. 이것은 당 앞에 극히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오늘 우리 당 및 국가 사업의 규모와 내용은 일층 방대하고 복잡하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산업은 놀라웁게 확대되고 복잡 정밀한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고 있으며 농업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경제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보다 높은 협동적 활동, 조직성, 규률성을 요구한다. 복잡한 세포를 가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우리의 사회주의적 경제 체계에 있어서 소부르죠아적 개인 리기주의, 자유주의, 분산성, 무규률성은 그것이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의 전진 운동에 거대한 저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방면에서 특히 방금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 들어 선 농업 협동 조합 및 생산 협동 조합들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조직성, 규률성의 정신을 제고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당은 제1차 5 개년 계획의 중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 및 국가 생활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대중의 창발성, 적극성을 최대한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을 초

소한 우리 당 제3차 대회와 특히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궐기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로력적, 정치적 열성과 창발성은 미증유로 앙양되고 있다. 당 앞에 제기된 과업의 중대성, 복잡성과 대중의 로력적, 정치적 열성의 앙양은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지도의 정확성과 기동성이 더욱 더 요구되며 모든 사업에서 엄격한 질서와 규률과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 지도 원칙의 더욱 정확한 관철이 요구된다.

* *

당 규률 강화를 위한 투쟁의 기본적 과업은 모든 당원들이 당의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를 대중 속에서 정확히 관철하도록 하는 그것이다.

우리 당의 정책은 자기 대렬의 사상 의지 및 행동 통일을 지향하며 전체 혁명 력량의 단결을 지향하며 인민 대중의 물질 문화적 복리 향상과 우리 혁명의 완수를 지향하며 평화 및 사회주의 진영 제 인민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지향한다. 조선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표현하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과업을 천명하는 이러한 당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 옹호하며 그를 정확히 실천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의 무조건적 의무로 된다.

어느 때 어디에 있어서나 당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그를 옹호 관철하는 것은 당적 의무 수행의 최고 규준으로 된다. 이와 반대로 당 정책에 대한 자유주의적 혹은 종파적 태도, 그의 실행에 있어서 불성실성 혹은 외곡과 비속화는 가장 엄중한 당 규률 위반 행위로 된다.

우리 당은 자기의 정책을 작성함에 있어서 항상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전 당의 지혜를 동원하여 심중한 토의를 거친다. 이에 있어서 당은 모든 당원들이 당 정책 작성에 유익한 창발적 의견을 제한 없이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 여기에서 광범한 당 내 민주주의와 지도의 집체성이 표현된다. 이와 같이 하여 작성되는 우리 당 정책에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현명한 당 중앙 위원회와 전 당의 지혜가 반영되며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의한 당면 성숙된 요구가 반영된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당원도 일단 작성된 당 정책에 대하여 시비질하며 반대할 권리는 없다. 다만 그를 무조건 지지하며 당 정책에 제시된 원칙과 정신에 기초하여 그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이한 공간적, 시간적 및 대상의 특성에 부합되게 창발적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바 여기에 강력한 중앙 집권적 요구성이 있다. 이 요구에 충실한 것이 곧 당 규률의 성실한 준수로 되며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의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당에 충실하며 당 규률을 자각적으로 엄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날의 경험과 그리고 오늘 아직 일부 당원들 속에서는 당과 당 정책에 대하여 성실치 못한 몇 가지 경향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반당 종파 분자들이 자기들의 종파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의식적으로 당과 당 정책을 반대하며 그를 파탄시키려는 것이다. 당은 이러한 분자들의 시도에 대해서 제때에 강력한 타격을 주어 분쇄하였다. 앞으로도 당은 그럴 것이다. 따라서 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파적 경향에 대하여 경각성을 제고하여 그것이 어느 때 어데서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든지 간에 제때에 강력한 타격을 주며 당의 통일 단결과 당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당원들의 일상적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또한 과거 종파에 관계했었던 자들 중 종파 사상 잔재를 아직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자들, 또는 기타 자유주의적 경향을 가진 분자들이 당 정책에 대하여 옳지 못하게 대하는 경향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경향이 우리 당 내에서 완전히 근절되였다고 아직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종파적 사상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은 오랜 시일이 요구된다는 일반적 론리에서 뿐만 아니라 비록 극히 부분적이지만 일부 당원들 속에서 표현되는 경향

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부 학교 및 기타 기관들의 사업 검열 행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 일부 당원들, 특히 일부 인테리들 중에는 사상적으로 견실치 못하며 당 정책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당원들은 당 정책을 진지하게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소위 《토론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당 정책에서 리탈되는 옳지 못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며 또한 당 정책을 리론적으로 《안받침》하며 《발전》시킨다는 구실하에서 당이 이미 명백히 규정한 론거와 사상에서 리탈하여 당 정책과 객관적 력사적 사실을 외곡 비속화하려 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심한 자유주의적, 개인 영웅적 경향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경향들 속에서는 때때로, 또는 많던 적던간에 일정한 종파적 사상 잔재가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당 내에서 토론의 자유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미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당은 당적 원칙에서 당 정책에 의거하여 그를 집행하며 한걸음 더 전진시키기 위한 성실한 토론은 백방으로 지지하며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고 검열된 당 정책을 반대하거나 그를 비방 외곡하는 《토론의 자유》는 어느 때에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않을 것이다.

일부 당원들 속에서 표현되는 당과 당 정책에 대한 옳지 못한 자유주의, 개인 영웅적 경향 그것은 종파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으로 유해한 것이며 더우기 그 속에서 종파 잔재가 표현된다는 그것으로서 특히 당에 유해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주관적으로 당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자기의 정치 리론적 및 실무적 수준의 제약성과 기타 조건 등으로 인하여 당 정책 집행에서 주관주의 혹은 형식주의를 범하는 경향도 있다.

일부 일'군들은 당 정책을 전면적으로 리해하지 못하고 어느 일면만 보고 속단하거나 또는 당 정책에 담겨 있는 새로운 내용을 판별하지 못하고 사업함으로써 당 정책을 외곡 혹은 비속화하는 주관주의, 형식주의적 착오를 범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모든 경향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당의 사상상 행동상 통일 단결에 있어서, 당 정책의 관철에 있어서 유해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어다.

그러므로 당 정책 문제들에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와 그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당 규률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 정책을 반대하는 종파 분자들의 행동에 대하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당 정책에 대하여 책임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견실치 못한 자유주의, 개인 영웅주의 분자들과 또는 당 정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그를 집행함에 있어서 범하는 주관주의, 형식주의 경향과 《창발성》을 발휘한다 하여 당 정책을 외곡하거나 비속화하는 등의 제 경향들과 강력히 투쟁하며 전 당이 일치한 견해 밑에 당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당 정책에 대한 일치한 견해는 당의 사상 의지, 통일의 필수 조건인 것이다. 당 정책에 대한 견해의 통일이 미약하면 그만큼 당의 사상적 통일이 약화되는 것이다.

당과 당 정책에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견실성과 정확성의 여부는 당원의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의 확립 정도 및 당 정책의 파악 정도와 관련된다.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정치적 립장이 견실한 당원들은 당과 당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자기의 모든 사업을 그에 의거하여 진행하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고한 당적 립장에서 당 정책을 연구하며 그를 실행하기에 노력하는 당원들은 비록 그가 리론적, 정치적 수준이 좀 어린 경우에 있어서도 큰 오유를 피하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며 그 자신이 급속히 발전한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당적 립장에 충실치 못하고 자기가 《똑 제일》이고, 자기 부문의 사업이나 리론 문제는 당 보다 자기만이 더 잘 안다고 자만하며, 그리하여 당 정책 문제들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일'군들은 피치 못하고 오유를 범하며 당과 현실 생활의 요구에서 락후된다는 것도 역시 경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당적 립장이 견실치 못한 경향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이 요구된다.

이러한 투쟁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 비판을 통하여 발로되는 결함을 극복함과 동시에 전체 당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 계급적 립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교양 특히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모든 당원들이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과 립장이 튼튼하고 당 정책을 깊이 파악함으로써만 그를 정확히 옹호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에서 리탈되는 모든 경향과 능히 투쟁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리함으로써 우리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가일층 강화하며 당 정책에 대하여 전 당이 일치한 견해와 해석으로써 그를 관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의 통일과 당 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위하여 투쟁하며 당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교양, 특히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하는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중요한 문제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당의 통일을 보장하며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이 당 정책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당 규약상 규범들을 엄격히 준수하며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자기의 임무들을 충실히 실행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초급 당 단체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 단체를 통하여, 그리고 당원들을 통하여 대중 속에서 실천된다. 우리 당 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그리고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그것이 비록 사소하고 부분적인 사업이라 할찌라도 당 정책을 관철하는 사업으로 되며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이 당적 원칙에서 조직성 있고 규률있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 조직이 위임하는 모든 사업은 그것이 큰 일이건 적은 일이건, 곤난한 것이건 용이한 것이건 무조건 충실히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함으로써 우선 매개 당 단체들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지의 통일과 행동의 일치를 보장하며 자기 앞에 부여된 정책적 과업을 관철하며 나아가서는 전 당적으로 사상적 통일 및 행동의 일치를 보장하며 당 정책 관철을 보장하는 것이다.

매개 당원들은 우선 자기가 속한 당 단체와 자기가 일하는 직장, 기관에서 동지들 간의 단결을 보장하며 당 생활 규범과 그 직장, 기관의 행정 질서와 규률을 준수하며 당적 및 행정적 임무를 성실히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일부 당원들은 그렇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경향은 일부 행정 기관, 경제 및 문화 기관들과 지어는 일부 당 기관에서 공작하는 당원들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당원들은 아무런 원칙적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대립시키고 동지들 간에 반목과 질시를 조성하며 동지들 간에, 그 당 단체와 직장 혹은 기관내의 사상적 단결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당원들은 자기 비우에 맞지 않는다는 리유로 웃사람을 허물하며 혹은 하부 일'군을 깔보며 편협한 그루빠적 행동과 험담을 늘여 놓으며 또는 《네가 할 일이냐》 《내가 할 일이냐》,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하는 등의 책임 회피의 공담으로써 사업을 저해하며 말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것이 큰 원칙적 문제를 위한 의견 차이나 사업을 위한 시비가 아님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곧 그의 당적 립장이 견고하지 못한 자유주의적, 개인 영웅주의적 혹은 종파적 잔재의 표현으로 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당에 끼치는 손실이 적지 않다는 데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곳들에서는 당 규률이 해이되고 직장 혹은 기관의 행정 질서와 규률이 문란하며 사업에서 여러가지 결함이 발로되고

있다. 이러한 결함들은 우리 내부를 파괴하려는 적대 분자들과 종파 분자들에게 리용될 수 있는 것임으로 더욱 유해한 것이다.

또한 일부 자유주의적 분자들은 당 조직이 위임한 임무 혹은 행정적 명령 지시를 잘 수행하지 않으며, 최근 일부 상업 및 기타 기관들에서 발로된 바와 같이 지어 일부 분자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당 및 국가적 임무를 충실히 실행할 대신에 국가 재산을 탐오 랑비하는 엄중한 현상까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자유주의적, 개인 영웅주의적 및 탐오 랑비 현상들은 당 규약상 의무 실행에 대한 일상적 통제와 엄격한 규률의 해이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들 속에서 당 규약상 요구들과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도록 당 규률을 강화하며 그를 위반하는 현상과 강력히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이에 있어서 당 책벌을 람용하는 것으로써 당 규률을 강화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당원들이 자기의 재능과 력량을 당 정책 실행에 바치며 자기 직장, 기관들에서 동지들과 단결하여 자기 임무를 성실히 실행하도록 사상 정치 교양과 사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이다.

우리 당 내에는 두개의 규률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당원들은 의무적으로 당 강령과 당 정책을 일상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당 규약을 깊이 연구하며 그것들을 실생활에서 엄격히 준수하며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최대의 의무이다.

현 시기 당 규률을 강화함에 있어서 간과해서 안될 문제의 하나는 당의 군중 로선 위반 현상과의 투쟁이다. 당 외의 군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주요한 의무이며 당 규률이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당의 위력의 원천이라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이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군중 지도에 있어서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할 것을 요구한다.

혁명 군중에 대한 옳은 군중 관점의 확립 및 군중 로선 관철의 필요성과 그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에 대하여는 한 두번 만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일부 일'군들은 자기의 군중 관점 확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대중과의 련계를 옳게 맺을 줄 모르며 혁명 군중의 무궁 무진한 재능과 창발성을 옳게 평가하지 못하며 당 정책 실현에서 그들에 튼튼히 의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일'군들은 군중의 지혜와 력량을 과소 평가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그들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고 주관주의적,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하는 바 이러한 경향은 대중의 앙양되는 열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경제,문화 건설에서의 전진 운동을 저해하는 것이다.

대중의 정치적, 로력적 열성이 더욱 앙양된 현 시기에 있어서 그러한 주관주의, 관료주의적 현상이 우리 사업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 큰 것이다.

근로 대중의 앙양된 열성에 의하여 현실 생활 속에서는 매일 매시간 전진 운동을 추진시키는 새로운 창발성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확한 지도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일'군들은 사무실에 앉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허다한 명령과 지시 등 문서질로 산 지도를 대치하려 하는 것이다.

일부 관료주의적 일'군들은 대중의 제의와 신소를 신중히 대하지 않으며 절실한 문제들의 해결을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이다. 두말 할 것이 없이 이러한 경향은 당의 군중 로선의 위반 현상이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또한 일부 당원들은 대중들 속에서 도덕적으로 견실치 못하게 행동함으로써 당원의 영예와 권위를 손상시키는 경향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 단체들은 모든 당원들이 자기의 도덕적 품성을 더욱 제고하며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당적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도록 당 규률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더 강화하며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제고하는 것은 우리 당의 위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것이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과 전망

리 종 옥

우리 나라 력사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우리 당 제3차 대회에서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시기의 모든 승리를 과학적으로 총화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들과 우리 인민 경제의 발전 수준 및 그의 현 상태를 옳게 분석 구명하는 기초 우에서 제1차 5 개년 계획 작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 대회가 제시한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5 개년 계획을 보다 정확히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던 국가 계획 위원회는 제1차 5 개년 계획 통제 수'자 예비안을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의 토의에 제출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는 국가 계획 위원회가 작성 제출한 제1차 5 개년 계획의 통제 수'자 예비안을 검토한 후 이 예비안은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는 기본적으로 옳은 예비안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이 예비안에 기초하여 5 개년 계획을 더욱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근거짓기 위하여 일련의 과업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 예비안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깊이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제1차 5 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과 전망을 옳게 인식시키며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기초하여 5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조직 추동하는 문제이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근로 대중의 앙양된 투쟁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수백만 근로 대중의 사상적 동원은 어떠한 곤난이라도 그를 능히 극복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근로 대중의 이러한 정치적 앙양은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를 관철하기 위한 자각적인 전 군중적 운동이 전개됨으로써만 더욱 제고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국가 및 경제 지도 일'군들은 5 개년 계획의 정치 경제적 의의와 그의 전망 또한 우리 인민 경제의 현 상태, 5 개년 계획 수행의 중심 고리들을 광범한 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생산 능력을 옳게 타산하고 생산 예비를 더 많이 동원하는 방향에서 계획 작성 사업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수행 방도를 찾아 내도록 사상 동원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근로자들을 난관을 극복 타개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군중적 투쟁에로 궐기시킴으로써 광활한 전망과 방대한 과제를 가진 제1차 5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차 5 개년 계획 작성의 토대로서의 3 개년 계획 기간의 성과

제1차 5 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옳게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작성의 토대로 되는 3 개년 계획 수행에서 달성한 성과와 우리 인민 경제의 현 상태를 정확히 료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후 시기에 우리 인민

은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을 받들고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의 방대한 기술--경제적 원조에 의거하여 거대한 창조적 사업을 수행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의 창조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우리 인민 경제는 생산력의 복구 발전에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기본적으로 회복하였으며 전쟁 전 생산 수준을 훨씬 릉가하였다.

당과 정부는 3 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에 806 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기본 건설 투자를 하였는바 전쟁에 의하여 파괴되였던 김책 제철소, 황해 제철소, 흥남 비료 공장을 비롯하여 240 여 개소의 대 중 기업소들이 기본적으로 복구되였고 희천 기계 공장, 기양 기계 공장, 평양 방직공장 등 80 여 개소의 기업소들이 신설되였다.

공업 기업소의 급속한 복구 발전으로 말미암아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액이 급속히 장성되였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중요 공업 제품들이 전쟁 전 수준을 훨씬 릉가하였으며 적지 않은 제품들이 국내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게 되였다.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농업 정책에 의하여 농촌 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강화와 농업 협동 조합 운동의 결정적 승리로 농업 생산이 전쟁 전 수준을 릉가하였다. 3 개년 계획 기간에 동해안 및 서해안 일부 지대들에서 계속되는 랭해와 한발로 인한 자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 생산량은 계속 증가되였는 바 1956년의 알곡 총생산고는 287만 6천 톤으로서 1948년에 비하여 108.4%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적 련계와 알곡 증산을 위한 물질적 토대가 강화된 결과 이루어진 것인바 국가 투자에 의하여 평남 관개, 승호 및 강남 지구 등 8만 7천 여 정보의 관개면적과 농민들의 자체의 로력으로 4만 7천 정보의 관개 면적이 확장되였다. 그리하여 1956년에는 전체 논면적의 74%가 수리 안전답으로 개변되였다.

이 기간에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로 말미암아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도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는 바 화학 비료의 공급량은 1953년에 비하여 6.8배로, 농기계 임경소 수는 3.2배, 뜨락또르 대 수는 4.1배로 장성되였으며 축력 제초기, 탈곡기, 선풍기 기타 선진적인 농기계들이 더 많이 공급되였다.

우리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민 경제의 기간 부문인 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운수, 체신 등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기본적으로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남아 있는 식민지적 편파성을 현저히 퇴치하였으며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 축성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전후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기본인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의 동시적 발전의 로선을 관철한 결과 공업의 부문별 구조가 현저히 개선되였는 바 공업 총 생산액 중 생산 수단의 생산과 소비품 생산의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49년 (%)	1953년 (%)	1956년 (%)
생산 수단 생산의 비중	58.6	37.7	53.9
소비재 생산의 비중	41.4	62.3	46.1

그리고 공업 총 생산액 중 부문별 구조의 중요한 변동을 보면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은 해방 전 1944년에 불과 1.6% 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면 1949년에는 8.1%로, 1956년에는 17.3%까지 제고되였으며 방직 공업은 같은 기간에 6%부터 11.4%, 18.4%로 제고되였다. 전재 공업은 1949년의 2.5%로부터 1956년에는 4.8%로 제고되였으며 야금 공업은 전쟁의 혹심한 피해로 1953년에는 1.8%에 불과하였던 것이 1956년에는 8.6%로 제고되였다.

이상의 수'자들은 전후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이 우리 나라 경제 형편을 옳게 분석한 기초우에서 가장 정확한 발전 로선을 제시하였음을 말하여 주며 동시에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식민지적 편파성과 전쟁에 의하여 조성된 인민 경제에서의 불균형이 현저히 퇴치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가 거둔 또 하나의 거대한 성과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확대 강화되고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에서 그가 지배적 위치를 획득하게 된 그것이다.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비중을 표현하는 다음 수'자는 이것을 실증하여 준다.

	1949년 (%)	1956년 (%)
인민 소득 생산 중에서	44.6	81.8
공업 생산액 중에서	90.7	98
농업 생산액 중에서	3.2	73.9
소매 상품 류통액 중에서	56.5	87.3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이와 같은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는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인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성과를 쟁취하였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전후 시기에 우리 인민 생활은 매우 급속한 템포로 장성하였다. 1956년에 종업원 1인당 평균 로임은 1953년에 비하여 158%로 제고되였으며 일반 물가 지수는 54.1%로 저하되였다. 그리하여 1956년말에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은 전쟁 전 수준을 릉가하였다.

그리고 교육, 문화, 보건 시설들이 확장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되였던 인민 생활은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가 전후 경제 건설에서 거둔 고귀한 결실의 하나이다.

3 개년 계획 수행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는 금후 우리 인민 경제 발전의 기초로 되며 보다 장기적인 전망 계획——제1차 5 개년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로 된다.

그러나 우리가 5 개년 계획의 과학적 정확성을 기하며 그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 가능성을 옳게 분석 구명하기 위하여서는 3 개년 계획 수행에서의 약한 고리들과 현재 우리 인민 경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옳게 파악하여 그의 정확한 해결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차 5 개년 계획 시기에 해결하여야 할 제 문제

전후 3 개년 계획은 승리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우리 인민 경제는 보다 높은 발전 단계에로 이행하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3 개년 계획 기간에 모든 부문들에서 전전 수준을 릉가하고 모든 문제들을 일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 인민 경제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 약점들이 있다.

3 개년 계획 기간에 석탄 공업, 발전 공업, 화학 공업 부문이 전전 수준을 복구하지 못함으로써 석탄, 발전량, 화학 비료의 생산이 전쟁 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압연재, 석탄, 화학 비료, 조면, 면직물, 알곡 등 일련의 중요 제품이 국내 수요를 아직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는 강력한 연료, 동력 기지와 섬유 공업의 원료 기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흑색 금속 부문, 화학 공업 부문, 특히 비료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민 소비품 생산이 질적, 량적으로 수요보다 뒤떨어져 있으며 농촌 경리에서 알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품 생산의 완만한 장성과 대외 무상 원조 수입의 축감으로 인하여 외화 획득 부문이 외화에 대한 수요보다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우리 인민 경제가 처하고 있는 이상과 같은 현 상태의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가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콕쓰탄을 제외한 석탄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충족시키며 흑색 금속, 화학 비료에 대한 국내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켜야 하며 목재를 제외한 건재품에 대한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문제이다.

또 특수한 설비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기계 설비 및 그의 부속품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으로써 충족시키며 인민 소비품을 현저히 장성시키며 주택 건설을 확장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의식

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에서 알곡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특히 섬유 원료의 보장을 위한 토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5 개년 계획 기간에 배급제를 페지하며 전반적 초등의무 교육제(7년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요 자재, 외화 및 재정에 대한 국가 예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3 개년 계획 수행에서 약한 고리들과 5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을 옳게 타산하고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주 객관적 조건에 기초하여 제1차 5 개년 계획 통제 수'자 예비안의 방대한 과제가 설정되였다.

제1차 5 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 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인 조선 로동당의 령도하에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업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가일층 강화하며 그를 조국의 통일 독립 달성의 결정적 력량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혁명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이 제시한 5 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생산력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써 장비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준비하며 동시에 제2차 5 개년 계획 시기부터는 대규모적인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차 5 개년 계획의 이 기본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전력 생산 및 석탄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함으로써 연료, 동력 기지를 더욱 강화하며 흑색 공업, 건재 공업,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인민 경제의 금후 발전을 위한 물질—생산적 기초를 튼튼히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업의 각 부문에서 적지 않은 기술적 개건을 실현함으로써 낡은 기술을 퇴치하며 특히 경공업과 기계 제작 공업의 락후성을 퇴치하며 전체 공업의 부문별 구조에서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만 우리는 인민 경제의 금후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기초를 구축할 수 있으며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확고히 축성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구축한다는 것은 생산 관계의 측면에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특히 5 개년 계획 기간에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완성하여야 한다.

전후 시기에 장족적으로 발전 강화되고 있는 우리의 농업 협동 조합들은 5 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킬 수 있는 기본적 조건들을 조성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력 발전의 거대한 력량으로 전변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는 5 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 협동화 운동을 완성하며 농업 협동 조합들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며 매개 조합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공고화하여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완전히 구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5 개년 계획의 또 하나의 기본 과업은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그것이다.

우리는 전후 3 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의식주 문제가 아직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력사적 락후성을 반영하는 것인바 일제의 장구한 식민지 통치의 악결과로 조성된 경공업의 락후, 농촌 경리의 쇠퇴 등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이 그의 경제적 기초로 되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 역도들에 의한 조국의 남북에로의 분렬은 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그들이 강요한 전쟁은 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곤난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 생활을 령락시켰다.

그러나 당과 정부는 전후 3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가 경제 건설에서 쟁취한 전취물들에 기초하여 인민 생활을 현저히 개선 향상시켰으며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 경제의 이러한 력사적 조건을 옳게 참작하여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본 과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제1차 5 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기본 로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시키는 데 있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회는 소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생산도 중단할 수 없는바 생산의 부단한 갱신과 중단 없는 반복으로서의 사회적 생산의 재생산 과정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기초하여서 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생산물의 재생산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노는 생산 수단에 대한 생산의 장성을 촉진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소비재의 생산을 확대할 수 없다. 확대 재생산에 있어서 소비재 생산에 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위적 장성은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이다.

례컨대 인민의 식량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식량 증산을 보장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화학 비료의 대량적 생산과 현대적인 농기구, 농기계 등이 보장되여야 한다. 비료 생산을 위해서는 화학 공장과 발전소가 복구되여야 하며 농기계를 생산하려면 기계 공장과 제철 제강소들과 광산이 작업해야 한다.

집을 짓는데는 쎄멘트, 목재, 철근 등이 요구된다. 철근 생산은 제철 공업이 있어야 하며 쎄멘트 생산은 화학 공업이 있어야 한다. 의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자연 섬유 원천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인조 섬유와 합성 화학 섬유 원료를 광범히 리용하여야 하는바 이것은 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화학 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전력 생산과 기계 시설들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공업들이 전기와 석탄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와 같이 발전된 중공업이 없이는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절실히 필요한 경제 부문들의 발전을 촉진할 수 없으며 소비재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할 수 없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기초하여서 만 우리는 발전된 산업을 가질 수 있으며 나라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보장함으로써 혁명의 원천지인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일층 강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5 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 정책의 기본 로선을 관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기초하여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경제 정책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그 리론의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확증한 쏘련 공산당의 풍부한 경험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에 근거하고 있는바 이 정책은 우리 나라 력사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의 반영이

며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모범으로 된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을 촉진함으로써 장차 우리 나라를 농업국으로부터 사회주의적 공업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축성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투쟁은 인민 경제 발전에서 가장 장애로 되고 있는 기술적 락후성과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는 사업과 병행되지 않을 수 없는바 우리는 전후 3 개년 계획 수행에서 이를 현저히 퇴치하였다.

우리는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공업의 락후성을 퇴치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였으며 전력, 연료, 금속, 화학, 건재 등 일련의 중공업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기업소들을 복구 개건하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한 주택 및 문화 건설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위한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시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서 인민 소비품 생산을 위한 경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으며 주택 문화 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급속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재의 생산 장성은 바로 중공업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에게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과 가능성이 있다.

공화국 북반부는 본래 일정한 중공업의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 기간적 공업 부문으로 되는 발전소, 금속 공장, 화학 공장, 및 많은 광산들이 있었으며 전후 시기에 우리는 이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확장하여 그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중공업에는 기계 제작 공업이 거의없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일제가 남겨 놓은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고 자립적인 공업 건설을 위하여 전후 시기에 기계 제작 공장들을 적지 않게 신설하였으며 이에 집중한 주의를 돌린 결과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공화국 북반부의 자연 경제적 제 조건은 중공업의 발전에 유리한바 우리는 이에 필요한 풍부한 지하 자원과 동력 자원을 가지고 있다.

더우기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조 단결을 강화하며 그에 기초한 국제적 분업에 엄격히 립각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 형편이나 자원 관계로 보아 우리 인민 경제 발전에 유리한 부문들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형제적 나라들로부터 방대한 기술—경제적 방조를 받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는 세계적 체계로 발전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 내에는 쏘련과 같은 강력한 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동지적 협조의 정신에 립각한 사회주의적 분업과 협업 관계가 날로 발전 강화되고 있는바 우리는 우리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원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들과 장래의 가능성들을 충분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5 개년 계획에서의 인민 경제의 발전 속도와 균형에 대한 전망을 정확히 설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구체적 조건들로 보아 합리적이며 유리한 부문들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례컨대 기계 제작 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는 자체의 력량에 알맞고 수요가 많은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수요가 적고 하기 힘든 것은 형제적 국가들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에서 수요되는 유색 금속을 비롯하여 기타 일련의 부문들의 급속한 발전을 예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

킬 수 있는 조건으로 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총체로서의 경제적 발전에도 유리한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다.

이 모든것을 고려할 때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규정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인민의 현실적 요구를 표현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정책이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것은 현대적인 기계 공업을 가진 중공업의 발전을 의미하는바 중공업은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이며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 속도와 규모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기술적 토대이다. 우리는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이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여야 한다. 그래야 만 우리는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인민 경제의 개건,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결정적 승리, 국가의 경제적 자립성과 방위력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들의 수요의 증대에 따라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더 많은 생산 수단들과 생활 필수품, 주택, 의료 시설, 교육 문화 시설들의 확장이 요구되는바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담보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다. 그러기 때문에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은 우리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기초를 공고화할 뿐만 아니라 경공업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킴으로써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제1차 5 개년 계획 통제 수'자 예비안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는 당의 경제 발전 로선에 튼튼히 립각하여 작성되였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자체 축적을 백방으로 확대 증가시키며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하는바 기본건설 투자의 분산성을 극력 방지하며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속히 거둘 수 있는 대상에 집중적, 중점적으로 투자하되 선후차를 옳게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 기업소들을 개건, 보충, 확장하며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엄격한 절약제를 확립하여 외화 획득과 외화 절약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제1차 5 개년 계획의 전망

제1차 5 개년 계획 통제 수'자 예비안은 우리 앞에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우리 인민 경제는 이 기간에 방대한 규모와 급속한 템포로서 발전하게 될 것인바 특히 우리 공업은 우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써 장비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준비하며 아직 남아 있는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는 방향에서 급속히 발전하게 될 것이다.

5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공업 부문에서는 연료, 동력 기지의 강화를 위한 석탄 및 발전 공업, 흑색 금속 및 쎄멘트 공업을 비롯한 건재 공업,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설비 및 그 부속품 공급을 위한 기계 공업, 알곡 증산을 위한 화학 비료 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직 공업, 식료품 공업들의 급속한 발전을 예견하고 있다.

전력 공업 부문에서는 현존 발전소들에서 출력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설비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발전소들의 복구 건설 사업을 급속히 추진 완성시키는 동시에 전력 손실을 제거하기 위하여 송변전망 시설의 정비 사업을 급속히 완성함으로써 1961년의 전력 생산량은 1956년에 비하여 훨씬 장성하게 될 것이다. 전력의 예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독로강 발전소 건설을 촉진시키며 강계 발전소 건설을 준비하여 5 개년 계획 말기에 가서 일부 공사를 착공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장성하는 공업 운수 및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존 탄광들의 기술적 개건 사업과 함께 새 탄광의 개발 및 탐사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석탄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광업 부문에서는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 공장들의 원료에 대한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며 외화 원천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선 가능한 정도로 현존 광산들의 기계화를 실시함으로써 생산 능률을 현저히 제고시키며 광석

채취 능력과 선광 실수률을 높이는 동시에 선광장들을 많이 건설하여 정광 생산을 증가시킬 것인바 광석 채굴업의 장성은 1956년에 비하여 현저히 제고될 것이다.

흑색 공업 부문에서는 증대되는 기본 건설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기계 공업에 요구되는 강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황해 제철소를 비롯한 강선 및 성진 제강소들에서 용광로, 해탄로, 평로, 전기로 및 압연 기대들의 복구 확장 및 개건, 신설 사업을 촉진할 것인바 강재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현저히 부족되는 소형 환강을 비롯한 각종 강관 등 규격 소재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이며 까스관 및 와이야로쁘를 비롯한 신제품들의 생산도 조직될 것이다. 그리하여 흑색 공업 생산은 현저히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유색 금속 부문에서는 국내 수요의 충족과 외화 획득을 위하여 남포, 문평 제련소들의 전해 능력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제련 실수률을 제고하여 동, 연, 아연 등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다.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금속 절삭 공작 기계와 인민 경제의 기타 부문들에서 사용될 보다 성능이 높은 기계 설비들이 생산될 것인바 광업과 석탄 공업에 요구되는 착암기, 크랏샤, 마광기, 권양기, 공기 압축기 등을 비롯한 각종 광산 기계들과 선광 설비들을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방대한 기본 건설에 요구되는 건설 기계들과 제초기, 파종기를 비롯한 각종 선진 농기계들의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전동기, 변압기, 각종 전선, 가정용 전기 기구류들과 펌프 및 양수기들을 대량 생산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기계 제작 공업은 수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선박 공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인바 어선·건조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점차 소형 철판선을 건조할 것이며 랭동기, 랭동선, 랭동차, 랭동 창고 등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계 공업은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소요되는 기계 설비 부속품들을 대량 생산 공급하는 한편 자전거, 재봉기 등 각종 일용 기구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철도 객화차 수리 공장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이미 신설된 공장들을 완비하는 한편 신설에 착수한 공장들을 급속히 완성하며 일부 공장들을 개건,확장,정비함으로써 그의 생산 능력이 현저히 제고될 것인바 기계 제품의 생산량은 현저히 증가될 것이며 라디오, 시계, 무전기, 자전거, 재봉기, 유선 방송기, 선반기, 금속 압연기, 교환대 등 각종 신품종이 확대되고 그의 질이 제고될 것이다.

화학 건재 공업 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화학 비료와 농약 생산을 증대시키며 합성 섬유 공업을 발전시켜 인조 섬유 생산을 조직하고 비닐론 생산을 촉진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방대한 건설 사업을 보장하여 앞으로 대규모적 건설을 진행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쎄멘트 생산을 백방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제약 공업을 결정적으로 확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화학 건재 공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의 생산량이 현저히 증대될 것인바 1961년에 화학 비료는 약 63만 톤, 쎄멘트는 200만 톤 이상으로 그 생산이 장성될 것이 예견된다.

5 개년 계획 기간에 경공업의 중요 과업은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방직 공업과 식료품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인민 소비품의 인구 1인당 생산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며 일용 필수품의 품종 확대와 대량 생산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인민들의 의복용 직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진 방적 공장의 복구 건설과 아마 공장의 신설을 촉진하며 농산물과 수산물로써 구미에 맞는 식료품 및 부식물의 생산을 확장하기 위하여 식료품 가공 공장들의 건설을 확대하며 피복 신발 등을 비롯한 비식료품에 대한 가공 생산을 발전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하여 직물, 내의류 피복 제품, 신발류, 식물성유, 담배, 문화용품 및 가정용품 등 소비품 생산이 현저히 증가될 것이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우리 당 4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기초하여 심해 어업과 세소 어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어획고가 현저히 장성될 것인바 1961년에 어획고는 훨씬 많은 량에 달할 것이며 그중 선어 및 랭동품이 현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공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에 기초하여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이 촉진될 것인바 5 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 협동화가 기본적으로 완수될 것이며 농촌 경리의 물질적 토대가 일층 강화될 것이며 농업의 기술적 개조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 기계화가 계속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에 중 소 규모의 관개 공사와 농촌 건설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화학 비료 시비의 급격한 증대, 관개 하천 공사의 촉진, 다수확 작물, 파종 면적의 확장 및 선진적 영농 방법의 도입등으로 알곡 경리가 급속히 발전하게 될 것인바 1961년에 알곡 생산은 370만 톤 이상으로 제고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알곡 문제의 해결에 기초하여 이 기간에 공예 작물 재배, 축산업, 과수업 및 잠업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과수업의 대대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 조치를 취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현재 과수 면적 1만 3,000 정보를 10만 정보 이상으로 확장함으로써 과실 생산을 훨씬 증대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우리 인민 경제의 기간 부문인 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하여 운수,체신 사업이 일층 개선 강화될 것이며 교육, 문화,보건 시설들이 일층 발전 강화될 것이다.

5 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과 농업의 새로운 앙양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이 일층 개선 향상될 광활한 전망이 열리고 있는바 인민 소득 생산의 장성에 기초하여 로동자, 사무원의 로임 및 농민들의 농산물 기타 물품의 판매 수입이 제고됨으로써 주민의 실질 소득은 현저히 장성되게 될 것이다.

주민들의 수요 충족을 위한 상품 생산의 확대와 관련하여 상품 류통 규모가 확대되며 주택 및 공공 후생 시설들과 문화 시설들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인민들의 보건 위생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 시설망들이 현저히 확장될 것인바 병원 침대, 외래 치료 기관 의사 수들이 각각 장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의 인민적 교육 정책을 반영하여 이 기간에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인바 1961년에 이르러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7년제)가 실시될 것이며 동년 말에 이르러 수십만 명의 고등 및 중등 전문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앞에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는 제1차 5 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 거대한 전변을 일으키게 될 것인바 그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5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의 보장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공업 국가로 전변시킬 뿐만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조성하며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물질적 힘으로 전변시키게 될 것이다.

5 개년 계획 기간에 북반부에서의 이와 같은 경제적 발전과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는 북반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남반부 인민들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궐기시키는 데 큰 고무로 될 것이다. 5 개년 계획은 남반부 인민들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위업에 궐기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광활한 전망을 보여 주는 방대한 과제를 포괄하고 있는 제1차 5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서는 이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과 현대적인 기술과 그를 소유한 기술 인재들이 더 많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금이 부족하며 기술 인재가 부족한 형편에서 방대한 이 력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곤난과 애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 타개할 수 있는 주 객관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맑스—레닌주의 학설로 무장되였으며 100만의 당원을 가진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가 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 분투하는 우리 인민들이 있다.

3 년간의 가혹한 전쟁에서 단련되고 시련된 우리 인민들과 일'군들은 평화적 건설 시기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투쟁에서 축적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3 개년 계획 수행에서 5 개년 계획 수행의 거대한 물질적 기초를 이미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의 호소를 받들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여 제1차 5 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 계획 수행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더우기 우리에게는 사회주의 건설에 소요되는 풍부한 자재 원천과 지하 자원이 있으며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나라들의 기술적, 경제적 원조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중한 계획성과 예견성을 가지고 사업을 옳게 조직만 한다면 5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로 된다.

문제는 곤난과 난관을 극복하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사상적으로 동원되는 데 있으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행복하고 유족한 우리들의 생활과 후손들의 장래의 행복은 우리 자신들의 헌신적이며 창조적인 로력 투쟁과 이에 의한 우리 인민 경제의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바로 5 개년 계획의 광활한 전망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전체 당원들과 우리 인민들은 조선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우리 당의 령도하에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운동을 계속 강화하여 내부 예비를 적발 동원하며 자금 확보를 위하여 축적을 증대시켜야 한다.

5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소요되는 재정이 확보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금 확보를 위하여 공업 원가를 저하시키며 특히 건설 원가의 저하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 원가의 저하는 5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 고리의 하나이다.

국가 축적과 예비가 적은 조건하에서 방대한 계획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원료, 자재, 자금, 로력 등의 엄격한 절약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자금의 합리적 리용을 위하여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투자를 분산시키지 말고 현존 생산 면적과 현존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는 원칙 우에서 투자의 선후차를 정확히 구분하고 당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에 상응하게 집중적, 중점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생산력 발전에서 기술 발전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생산력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로 되는 5 개년 계획 수행에서 우리의 중요 약점은 기술 인재의 부족에 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기술 일'군들이 부족하고 기술 기능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귀중한 예비들을 많이 사장시키고 있다. 또한 공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에 기술 발전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일층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5 개년 계획 수행에서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정확한 지도를 옳게 결부시켜야 한다. 경제 사업과 정치 사업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우리는 경제 건설에 대한 각급 당 단체들의 역할을 일층 제고하며 당, 국가 및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의 지도를 개선함으로써 지도를 대중 속에 접근시키며 발동된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성을 부단히 옳게 조직 동원하여 근로자들의 결의 실천에 대한 꾸준한 지도와 통제를 실시하며 생산 예비를 더 많이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 국가 및 경제 지도 일'군들은 제1차 5 개년 계획에 대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깊이 연구 파악한 기초 우에서 5 개년 계획의 의의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계속 철저히 침투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이 1957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제1차 5 개년 계획 실행에서도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조직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은 당의 경제 정책의 외곡 및 결정, 지시에 대한 형식적인 태도를 철저히 배격하고 당 정책, 결정을 헌신적으로 집행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전체 조선 인민들 앞에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앞날을 약속하는 제1차 5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 건설에서의 인민 정권의 조직적 및 지도적 기능

김 정 일

조선 로동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혁명의 무기로서의 우리 인민 정권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조직하며 지도하는 분야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였으며 또 수행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 전체 근로자들은 인민 정권의 조직 지도하에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락후성을 청산하고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부문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쟁취하였다.

지난 기간, 특히 전후 인민 경제 3 개년 계획 기간에 경제, 건설 행정에서 공화국 북반부 근로자들이 달성한 모든 성과들에 기초하여 우리 당 제3차 대회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이행하는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각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 부문들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실현을 촉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 생산을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계속 향상시킬 거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된 거대한 경제 건설 과업들은 지난 기간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민 정권의 조직 지도의 기능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경제 건설에 대한 인민 정권의 조직 지도의 요구는 낡은 사회—경제적 관계를 체대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토대 우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생산력에 의거하여 부단히 장성하는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인 생산 및 분배를 조직할 것을 지향하는 우리 당과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온다.

특히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작용하게 되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은 경제 건설에서의 국가적 조직 지도의 필연성과 가능성을 조건짓는다.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산업, 운수, 체신, 은행 등이 국유화된 결과 인민 경제의 제압 고소가 인민 정권의 수중에로 넘어 왔으며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산생되였다. 물론 공화국 북반부에서 수행된 중요 산업 국유화는 그것이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적 시책이였지마는 그것이 새로운 형의 진정한 인민 정권에 의하여 수행되였고 또 해방 전에 중요 생산 수단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들의 수중에 독점적으로 장악되여 있었던 사정은 중요 생산 수단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가 확립되게 하였으며 전체 인민 경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대부분의 생산 수단들을 인민 정권의 수중에 넘길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부문에서 생산이 진행, 발전되는 목적이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에 종속되게 되였으며 나아가서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이 이 유일한 목적에 복종되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이 하나의 통일적인 목적에 종속되여야 한다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체 국가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개별적 부문 또는 기업소들을 통일적, 조화적 전일체로 조직하며 각 부문들 간의 균형을 의식적으로 보장(이것이 바로 레닌이 지적한 바 인민 경제 발전에서의 계획성이다) 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 하면 전체 인민 경제의 중요 생산 수단들과 여러 생산 부문들이 전일적인 소유자에 속하게 된 조건하에서 만일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생산을 계획적으로 조직 지도하지 않는다면 여러 생산 부문들 간, 생산, 분배, 류통의 여러 측면들 간에 혼란과 불균형이 조성되여 사회의 경제 생활을 의식적,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민 경제에 대한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관리 지도가 없이는 사회주의 경제는 존재할 수도 없으며 또 발전할 수도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하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은 하나의 객관적 필연성으로, 경제 법칙으로 된다.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중요 특징은 국가가 계획적으로 경제를 관리할 데 대한 요구, 일체 국가 자원을 가장 합리적,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 경제를 통일적인 전일체에 계획적으로 결합시킬 데 대한 요구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경제는 이상과 같이 그 본질상 계획적, 통일적 관리 지도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민 정권 앞에는 착취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조국을 외래 침략자들로부터 수호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자기 수중에 장악되여 있는 생산 수단을 리용하여 경제 건설을 계획적으로 조직 지도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생산을 부단히 발전시킬 과업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인민 정권은 사회적 수요와 나라의 물자, 로력, 자금 등 자원을 계산하며 이에 기초하여 생산의 규모, 구조, 장성 속도를 규정하며 국 내 상품 류통과 대외 무역 사업을 조직하며 물자, 로력, 자금 등 자원을 계획적으로 각 생산 부문에 분배한다. 그리고 인민 정권은 인민 경제에 필요한 기능 간부를 양성하며 과학 연구 사업을 조직하고 그 성과를 생산에 도입하여 인민 경제에서의 부단한 기술적 진보를 보장한다. 또한 인민 정권은 국영 기업소들의 지도자를 임명하여 그에게 유일 관리권을 주며 협동 조합들의 경제적 활동을 선거된 관리 기관을 통하여 지도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 건설을 조직 지도하는 인민 정권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이다.

이 인민 정권의 기능은 사회 성원들을 새로운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교양하는 문화—교양자적 기능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이 진전됨에 따라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국가의 이러한 경제—조직자적 기능은 력사상 다른 형의 온갖 국가들, 례컨대 자본주의 국가에는 있을 수 없고 새로운 형의 진정한 인민 정권에만 고유한 새로운 기능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태내에서는 밀접히 련결되여 호상 작용하는 경제 부문들의 대규모적인 기계적 생산 체계가 산생된다. 대규모 기계적 생산 체계는 대규모적 생산을 조직하며 대규모적인 것을 보다 더 대규모적인 것으로 교체하면서 또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강화하며 촉진시키면서 생산의 사회화를 방대한 규모에까지 확대한다. 그리하여 특히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카르텔, 신지카트, 트레스트 기타 독점체들의 조직을 초래하며 한 개별적 국가의 범위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정한 형태와 정도에 있어서는 세계 경제의 범위에서도 사회적 생산과 류통의 전체 기본 부문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국가 자본주의적 경향의 발전을 초래한다.

이러한 생산의 대규모적 사회화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생산의 무정부성의 청산을 객관적

으로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기계적 생산 체계에 기초한 대규모 공장들에서 공장 내부의 복잡한 분업 체계에 의하여 전문화된 작업을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시켜 계획적으로 조직 지도하며 관리할 것이 요구되는 것처럼 전체 사회적 범위에서도 복잡한 분업 체계에 의하여 전문화된 사회적 생산 부문들 또는 기업소들을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시키며 계획적으로 조직 지도하며 관리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인민 경제의 조직적 통일의 확립과 그에 대한 계획적 지도의 요구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자본주의적 소유가 지배하는 조건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의 무정부성은 불가피하다.

자본주의 국가는 다만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공동 위원회로서, 엥겔스가 말한 바와 같이 관념적 총 자본가로서 자본가들의 리윤 추구의 목적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억압 착취하는 데 복무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일부 생산 수단들을 자기의 수중에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사회를 위하여 경제 발전을 직접 조직 지도할 아무런 가능성도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는 《그것이 생산력을 자기 소유하에 더 많이 장악하면 할 수록 그것의 총 자본가로의 전화는 더욱 더 완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더욱 많은 국민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 (엥겔스〈반듀링론〉 369페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

자본주의에 고유한 생산의 무정부성을 청산하고 사회적 물질 생활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인민 경제를 전일체로 결합시키며 계획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것은 오직 새로운 형의 진정한 인민 정권의 수립,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사실상 승인하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조건하에서만 가능하게 되며 또 필연적인 것으로 된다.

인민 경제에 대한 통일적인 국가적 지도의 필연성은 이상과 같이 사회의 물질 생활 발전의 전체 객관적 과정의 요구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 건설에 대한 인민 정권의 조직 지도의 원칙은 정당한 것이며 법칙적인 것으로 된다.

때문에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이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또 고수하고 있다.

※ ※

레닌은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 그 자체로부터 흘러 나오며 또 그의 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지도, 관리의 기본 원칙을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에서 찾았다. 쏘베트 주권의 초창기에 이미 레닌은 경제 건설 강령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이 사회주의적 경제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국영 경제 부문은 레닌에 의하여 작성된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에 기초하여 지도되며 관리 운영된다. 레닌에 의하여 작성된 경제 지도에서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이란 그 명칭 자체가 말해 주는 바와 같이 인민 경제에 대한 중앙 집권화된 계획적인 국가적 지도와 생산 관리에 직접 참가하는 근로 대중의 창조적 열성 및 지방 기관들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를 결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측면은 동일한 원칙의 호상 불가분적으로 련결된 두 측면인 것이다.

경제 지도에서의 중앙 집권화는 전국적 범위에서 호상 긴밀히 련결된 경제 부문들의 발전된 체계로서의 현대적 대규모 기계적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객관적인 기초를 가진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태내에서 산생된, 호상 밀접하게 련결되며 호상 작용하는 경제 부문들의 대규모적인 기계적 생산 체계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생산의 광범한 전문화를 통하여 생산의 사회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여기에서 생산력은 《…자본으로서의 그것에 고유한 일체의 것으로부터의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사회적 생산력으로서의 그것의 성격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을 위하여 돌진한다》 (엥겔스, 〈반듀링론〉 366페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 그리하여 자본가 계급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제 관계하에서 가능한 한 점점 더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자본주의하에서, 특히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거대한 독점체들을 조직하면서 생산 관리의 보다 더한 집중화, 사회화를 초래하게 되며 결국 국가—독점 자본주의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하에서 중앙 집권화의 필연성은 독점의 지배를 산생하는 자본과 생산의 집적 및 집중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착취자들의 리익을 위해서 수행되는 자본주의하에서의 중앙 집권화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온갖 모순을 첨예화시킨다. 자본주의하에서의 중앙 집권제는 사회적 생산의 자연 생장성, 무정부성, 그리고 여기에서 불가피적인 물질적 부 및 로력의 막대한 랑비로부터 모면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모순은 현대 자본주의의 제 조건하에서, 즉 대독점체들의 리익을 위하여 각급 형태의 국가—독점 자본주의가 발생 발전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더욱 더 첨예화되고 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조건하에서 전체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경제를 중앙 집권화할 가능성은 주지 않는다. 대독점의 형성도, 국가 독점 자본주의도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은 오직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의해서만 사실상 승인되는 바 레닌은 지적하기를 사회주의란 그 기원에 있어서 전체 인민을 위하여 행해진, 따라서 자본주의적인 것임을 그만둔 국가 자본주의적 독점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전체 사회의 범위에서 또 전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중앙 집권적으로 경제를 건설하는 과업은 오직 로동 계급과 또 그에 의하여 창건된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생산력의 발전 도상에 장애물을 설치하려 하지 않는다면, 만일 락후한 소상품 경제로 되돌아 갈려하지 않는다면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천만 사람들이 제품의 생산 및 분배 사업에서 통일적인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계획적인 중앙 집권적 조직 지도 사업이 필요하며, 인민 경제의 전 범위에서 계획화, 공급 분배의 조정 등 사업에 종사하는 특별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계산의 조직, 대기업소에 대한 통제, 전체 국가 경제 기구의 통일적인 대기계에로의 전화, 즉 수억만 사람을 유일 계획에 의하여 지도하는 경제적 유기체에로의 전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어깨에 지워진 거대한 조직적 임무이다》(레닌 전집, 제27권, 68페지).

이상과 같이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의 중앙 집권화의 방침은 사회적 생산 발전에서의 객관적, 진보적 경향에 완전히 상응하는 것으로서 결국 국가측으로부터의 인민 경제의 관리 지도 및 계획화에 귀착된다. 사회주의는 《중앙 집권적 경제, 중앙으로부터의 경제 건설이다》(레닌 전집, 제28권, 377페지).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적 국영 경제는 중요 산업 국유화에 의하여 창설된 이후 유일한 인민 경제 계획에 의하여 운영되게 되였으며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중앙 집권화된 관리 체계를 확립하게 되였다.

인민 경제의 중앙 집권화된 관리 지도는 레닌이 루차 강조한 바와 같이 광범한 대중 자신들의 창발성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즉 사회주의와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경제 지도의 중앙 집권제 원칙은 전체 사회의 공동적 리익과 사람들의 개인적 리익과의 결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리해로부터 출발하여 인민의 정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이다.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지방적 특성 및 창의의 발양과 광범한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의 발양을 필수적 조건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인민적 국가의 성격 자체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며 또 이 국가의 본질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인민 정권은 광범한 인민들이 자기의 대표를 선출하여 조직한 정권으로서 그가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민들 속에 튼튼히 뿌리박고 자기의 모든 활동을 조국의 민주주의적 륭성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복종시키고 있다. 한편 인민 대중은 자기의 손으로 조직한 인민 정권을 자기들의 행복의 수호자, 조직자로 바라보면서 언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민 정권을 지지 옹호하며 그가 내놓은 정책의 실천에 모든 창조적 열성을 남김 없이 바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인민 정권은 인민들과 통일되여 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음으로써 대중의 력량을 자기의 정당한 과업의 수행에 최대한으로 효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 인민 정권의 거대한 생활력이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경제 건설 지도에서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 창발성과 문화—기술적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키면서 우로부터의 조직적, 지도적 역할을 대중의 열성 및 창발성과 옳바로 결합시키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경제 건설 지도에서의 민주주의는 다종 다양한 형식으로 발현된다. 즉 기업소들에서의 생산 협의회, 부문별 열성자 회의, 직맹의 활동 기타 형식에 의하여 생산 관리, 계획 작성에 근로 대중을 광범하게 참가시키며 지방 정권 기관들에 대해서는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산업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며 지방의 특성과 전통을 살리게 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인민 경제 계획의 수립 및 수행에 대한 지방 기관들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이러한 경제 건설 지도에서의 민주주의의 발현들은 인민 경제에 대한 중앙 집권화된 국가적 지도에 광범한 근로 대중의 창발적 의견들과 지방 기관들의 창발성을 광범히 반영하며 인입할 수 있게 한다. 민주주의의 발현은 매개 일'군들로 하여금 보다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계획을 수행 및 초과 수행하는 데 창조적 로력 투쟁을 더욱 광범히 전개하며 경제 건설의 온갖 리익에 대하여 배려하도록 하는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따라서 경제 건설 지도에서의 민주주의를 보다 완전히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하며 완성하는 것은 중앙 집권제를 강화 발전시킨다.

이상과 같이 경제 건설 지도에서의 중앙 집권제와 민주주의는 하나의 불가분적 전일체로 통일되여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는 그것이 일방으로 관료주의적 중앙 집권제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또 타방으로는 경제 건설 지도의 중앙 집권화를 반대하고 전체 사회의 리익을 반영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적 경향과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루차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를 주장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가 한편으로는 관료주의적 중앙 집권제와, 다른편으로는 무정부주의와 확연히 구별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레닌 전집, 제27권 180페지).

경제 건설 지도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은 하부 기업소들이 상부 관리 기관들에게 복종하는 국가 규률의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며 매개 기업소 및 직장들이 국가 계획 과제의 무조건적 완수를 위한 질서와 제도의 확립을 보장하며 동시에 광범한 근로 대중이 협의제를 통하여 자기의 창발적 의견들을 광범히 경제 건설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 경제 지도에서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에 립각하지 않고서는 유일한 인민 경제 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전체 국내 자원들과 내부 원천들을 가장 합리적,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한 생산의 증대와 개선을 보장할 수 없다.

경제 관리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으로부터의 일탈은 불피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정상적 발전을 저애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례하면 유고슬라비야의 경제 형편이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유고슬라비야에서는 1952

년에 경제 건설 분야에서 분권화의 방침에로 넘어 갔다. 경제 건설 분야에서의 분권화의 방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멘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첫째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에 있어서 국가적 소유로부터의 그루빠적, 집단적인 소유에로의 이행이 그것이며, 둘째로는 관리 체계에 있어서 중앙 집권적, 국가적 관리 대신에 공업, 운수 및 상업에 있어서의 자치적 체계의 도입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별적, 부문별 성들과 국가적 계획 기관을 페기하고 로동자 쏘베트, 꼼무나 및 기타 자치 기관들의 체계를 도입하였다.

경제 분야에서의 이러한 분권화의 방침은 무엇보다도 1956년 12월 7일 유고슬라비야 련방 공화국 동맹 인민 의회에서 한 까르델의 연설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힘의 도구로서의 국가가 경제적 관계 및 경제적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어떤 완성된 사회주의 체계라든가 더우기 공산주의라는 것은 문제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는 관료주의적 장애물로부터 결국 해방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와 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푸루동류의 소부르죠아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성장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프로레타리아 혁명 후에는 전체 생산 수단이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여야 하며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지도자로 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공산당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죠아지로부터 점차 전체 자본을 수탈하고 전체 생산 수단을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가급적 급속히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정치적 지배권을 리용한다》.

푸루동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는 각자가 당장 소비할 생산물과 시장에서의 교환을 위한 생산물을 자립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사회 체계를 생각하였다. 상술한 까르델의 사상은 그 본질에 있어서 푸루동의 사상과 일치한다. 까르델은 맑스와 엥겔스가 파리 꼼무나 이후에 관료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마치도 프로레타리아트가 사회의 경제적 개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가이라는 사상을 거부한 것처럼 외곡하고 있다. 맑스는 자기의 저명한 로작 《불란서에 있어서의 국 내 전쟁》에서 로동 계급의 혁명적 정부, 즉 그들의 독재만이 《로동의 경제적 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형태》 (맑스—엥겔스 저작 선집, 제1권, 제2분책 296페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엥겔스는 《권력에 관하여》란 로작에서 《파리 꼼무나가 더욱 적게 이 권력을 행사한데 대하여》(같은 책 512페지) 즉 경제적 개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 주권의 힘을 너무 적게 행사한데 대하여 파리 꼼무나를 비난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까지 하였다.

맑스의 《고타 강령 비판》이라든가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관하여》 등 여러 로작들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적응하는 국가, 사회의 경제적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확고한 립장에 서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엥겔스는 사회적 생산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중앙 집권적 지도가 없이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대하여 직접적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생산에서의 온갖 권력, 즉 사회주의 하에서의 경제 생활에 대한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지도를 맹렬히 반대한 푸루동주의자들, 바꾸닌주의자들, 전체 무정부주의자들을 반박하였다. 엥겔스는 사회적 생산에서의 권력은 생산과 생산물의 류통을 제약하는 물질적 제 조건때문에 우리들에게 의무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경제 분야에서의 분권화의 방침은 과학적 사회주의 창시자들의 명제와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지도에서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은 사회의 물질 생활 발전의 전체 객관적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정확한 론리적 결론이다. 맑스—레닌주의 학설이 이미 명시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필수적인 경제 관리에서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의 거부는 필연코 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파괴하고 통제 없는 시장적 자연 발생성에로, 생산의 무정부성에로 이끌어 갈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아직도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부르죠아적 의식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과도기의 조건하에서 경제 관리권을 《생산자들》에게 내여 맡긴다는 것은 벌써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필요성을 거부하며 인민 경제를 부르죠아적 자연 생장성에 내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권화에 기초하여서는 사회주의적 생산의 특징으로 되는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서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개선을 보장할 수 없다.

실지에 유고슬라비야에서는 분권화의 방침에로 넘어간 이후 1955년에 공업의 일부 부문들에서 로동 생산 능률이 1954년에 비하여 저하되였다. 즉 고무 공업에서는 9%, 석유 공업에서는 3%, 전재 생산에서는 2%가 각각 저하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1955년에 공업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은 전쟁 전 1939년 수준보다 저하되였다. 그리고 1955년의 일반 소매 가격의 지'수를 본다면 1952년의 평균 소매 가격 지'수보다 27%가 높아졌다.

또 농촌 경리 분야에서는 1953년—1955년간에 농업 로력 협동 조합을 공급—판매의 기능을 가지는 일반적 형태의 협동 조합으로 재조직한 이후 농업 로력 협동 조합 수는 1953년 1월에 4,792 개이던 것이 1954년에는 896 개로 감소되였으며 토지 폰드의 비중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였다. 즉 개인 쎅또르에서의 농지 면적은 943,721헥터나 증대되여 총 토지 면적에서 개인 쎅또르가 차지하는 비중이 1953년의 65%로부터 1955년에는 72%로 증대되였다. 파종 면적은 계통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즉 1952—1953 농업 년도에는 휴경지가 358,000 헥터, 1953—1954년도에는 416,000헥터. 1954—1955년도에는 416,000헥터였다면 1955—1956년도에는 575,000헥터로 되였다.

이상과 같이 유고슬라비야의 경제의 분권화의 방침 이후 인민 경제는 쇠퇴의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생산이 높은 속도로 달성되였으며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이 현저히 퇴치되였으며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부문은 부단히 확대 강화되였다. 즉 1946—1955년 10년간에 3년 여에 걸치는 가혹한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액은 658%가 장성되였으며 인민 경제에서의 각 부문간의 균형은 사회주의적 생산이 요구하는 균형에로 변화되여 가고 있다. 사회주의의 강력한 물질—생산적 기초인 중공업, 그중에서도 특히 과거에 존재조차 찾아 보기 힘들던 기계 제작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경공업도 인민들의 수요에 수응하여 현저히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확고한 지배적 및 지도적 력량으로 되였다. 국민 소득의 생산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몫이는 1956년에 와서는 82%로 제고되였다. 공업 총 생산액 중에서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6년에 98%, 농업 총 생산액 중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비중은 73.9%, 소매 상품 류통액 중에서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비중은 87.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경제 건설 지도에서의 레닌적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에 확고하게 립각하고 있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이상과 같은 발전은 우리 인민 경제가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경제 발전의 무정부성, 경제 공황의 파괴적인 작용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였으며 그가 부단히 장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레닌적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은 경제 지도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분권화론을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단련되였다. 즉 경제에서 소상품 경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쏘베트 정권의 첫 시기에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반대자들, 즉 중앙 집권적 계획과 국가에 의한 경제 지도의 반대자들이 출현하였다.

례컨대 1920—1922년에 소위 《로동자 반대파》가 이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로동자 반대파》는 국가에 의한 중앙 집권적 경제 지도를 거부하고 인민 경제에 대한 관리권을 그가 설계한 《생산자 대회》 (직업별 생산 련맹에 망라된 생산자들을 말한다)의 손에 넘길 것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소부르죠아적 자연 생장성의 영향을 받은 무정부주의적 립장이였다. 그러므로 쏘련 공산당 제10차 대회는 소위 《로동자 반대파》의 제의를 거부하고 그 견해를 반당적인 것이라고 락인을 찍었다.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에 립각한 경제 건설 지도에서의 국가적 지도에 관한 레닌의 리론적 명제의 정당성은 쏘련에서의 40년에 걸치는 경제 건설 경험, 그리고 또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경제 건설 경험을 통하여 검열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르델은 생산자들의 자유 련합을 토대로 하여 경제 관리를 분권화하며 지방들에 자치 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국내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며 발전하는 가장 훌륭한 길인 듯이 설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력사적 경험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인민 경제 지도에서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없이, 중앙 집권적 국가 계획이 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만일에 중앙 집권제가 민주주의와 조화적으로 결합되지 않는다면, 만일에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의 원칙이 불철저하게 실시된다면, 국가 기관의 개별적 고리들에서의 관료주의를 없애지 않는다면 생산자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 지방적 창발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개별적 고리들에서의 집행상의 결함이나 오유가 중앙 집권제의 원칙 자체의 결함으로는 될 수 없으며 분권화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될 수 없다. 국가 기관, 경제 기관들에서의 관료주의를 청산하며 생산 대중의 생산 및 관리에서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시키며 지방적 창발성을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분권화에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중앙 집권제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부시키며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원칙을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철저한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이며 이미 력사에 의하여 검열되고 그 우월성을 확인 받은 립장인 것이다.

❊ ❊

경제 건설 지도에서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는 관리 방법, 관리 체계에서의 어떠한 천편 일률성과 고정불변성도 용허하지 않으며 구체적 조건 및 그의 변동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요구한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 경제 관리 체계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한 부분을 이룬다. 생산력의 부단한 장성은 생산 관계의 부단한 개선 적응을 요구한다. 매개 나라들의 경제 발전의 각이한 단계, 각이한 조건하에서는 그에 적응하여 중앙 집권제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는 관리 형태와 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느 한 나라에서, 어느 한 시기에 실시되는 정당하고 유익한 대책이 다른 나라에서와 다른 발전 단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례컨대 지금 쏘련에서는 현 발전 단계에 있어서 인민 경제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기업소 및 건설장들에 대한 지도 기능을 부문별 성 및 관리국으로부터 경제 지역별로 조직되는 지역적 기관들——경제 구역 인민 경제 쏘베트들로 옮기는 개편 사업, 말하자면 인민 경제의 지역적 관리 체계에로 이행하는 조직의 개편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인민 경제가 비상히 방대하게 발전하여 새로운 보다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있는 오늘에 와서는 이미 현존 부문별 관리 조직이 생산에 대한 구체적이며 기동적인 지도를 보장할 수 없게 되였기 때문이다. 많은 성 관리국들이 자기 산하의 방대한 수의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을 지도하는 현 부문별 기구는 과거에는 적합하고 유익한 것이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그렇지 못하게 되였다. 부문별 관리 기구——거기에는 또 일부 기관 본위주의와 그 결과로서의 일련의 부정적 경향도 수반되였다.

실제 경험은 공업 및 건설에 대한 종래의 관리 체계가 오늘 조성된 새로운 경제적 조건에서 생산력의 더욱 급속한 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의 자립성과 창발성,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의 제고를 위해 보다 광활한 전망을 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 형태가 필요하게 되였다. 쏘련에서 이것은 흐루쑈브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직 부문별 성, 국들을 통한 인민 경제 관리로부터 지역별 표식에 따라 조직된 관리로 이행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쏘련에서 취해지고 있는 공업 및 건설 관리 조직의 가일층의 개선을 위한 지역적 관리 체계에로의 이행은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를 강화 발전시키는 정확한 대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쏘련의 현 발전 단계에 있어서는 정당한 대책이지만, 례하면 우리 나라의 현 발전 단계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인민 경제의 지도, 관리 형태와 방법들은 해당한 구체적 환경의 특수성과 그 환경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과업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규정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는 해방전 식민지 조선에서 착취의 온갖 방법——자본주의적,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의 제 방법들을 적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일제 통치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적 대규모 공업의 발전이 저해되였으며 그 통치 말기에 일정한 규모에서 건설되였던 대규모 공업은 전형적인 식민지적 예속성과 기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식민지 공업은 공업 자체의 기술적 토대를 재생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을 위시한 인민 경제 기타 부문들의 기술적 토대도 전혀 보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공업의 식민지적 락후성과 편파성을 완전히 청산하며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원칙에 의거하여 발전된 자주적 민족 산업을 창설하지 않고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당면한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조건을 타산하여 우리 당 제3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금후 공업 분야에 제기되는 과업은 《새로운 현대적 공장들을 더욱 많이 건설하며 이미 있던 공장들을 재건함으로써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실현을 촉진》(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 54페지)시키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의 기초로 되는 금속, 기계, 석탄, 화학 및 건재 공업 부문들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 제일 약한 고리로 되고 있는 기계 제작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이와 동시에 경공업에 있어서도 주로 국내 원료 원천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장들을 더 건설하며 기존 공장들을 더욱 확장하여 인민들의 생활 필수품 생산을 훨씬 증가시켜야 할 경제 건설 과업들은 해당한 부문별 관리 기관들을 구분하여 생산적 표식에 따라서 조직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 하면 공업에 대한 부문별 관리는 중공업에서의 결정적 부문들의 창설 및 우선적 발전에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경공업도 급속하게 발전시킴에 주의를 돌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의 급속한 장성, 사회적 분업 및 전문화의 심화와 새로운 생산 부문들의 광범한 창설 등은 생산적 표식에 따르는 생산 부문별 관리 체계를 조직하여야 할 객관적 필연성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공업의 현 발전 단계에 있어서 정당하며 유익한 관리 체계는 생산 부문별 관리 체계이다. 생산 부문별 관리 체계의 특징은 공업 관리 기관들이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생산적 표식에 따라서 조직되는 데 있다.

우선 공업 관리의 최고 지도 및 관리 기관으로서의 내각의 지도를 받는 공업 관계 성들은 일정한 공업 부문만을 담당 지도한다. 례컨대 기계 제작 공업 부문을 담당하여 관리 지도하는 기계 공업성, 금속 공업 부문을 담당하여 관리 지도하는 금속 공업성 등이 그것이다. 이들 성의 체계 내에는 생산적 표식에 따라 더욱 전문화되여 동일 부문 기업소들 만을 담당하며 관리 지도하는 생산적 관리국들이 있다. 례컨대 금속 공업성 내의 흑색 금속 관리국, 광업 관리국, 연광업 관리국, 유색 금속 관리국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이 밑에 있는 기업소들은 더욱 생산적 표식에 따라서 조직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적 표식에 따라서 조직된 관리 체계는 소여 부문의 생산의 급속한 장성과 개선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여 주며 이 부문의 지도자들에게 생산의 전문적 특성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고 세부분까지 분석하여 경험들을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여 준다.

나라의 사회주의적 건설의 모든 단계에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 조직 형태와 사업 방법은 없으며 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개 단계에서 인민 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리 형태와 방법들을 탐색하여 내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레닌의 이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우리 당은 국내 경제 생활의 조직과 인민 경제 관리 형태의 개선에 대하여 부단한 배려를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그리하여 당은 대중의 경험에 의거하여 경제 관리 형태들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그것들을 경제 건설의 새로운 과업들에 복종시켰다.

《신속성 있고 실무적인 분석적 지도》(김 일성)를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산 부문별 관리 체계하에서는 중간 관리 고리들을 될수록 없애거나 적게하고 관리 기관들을 생산적 표식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분할하면서 관리 기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수반되여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방대한 행정 기구는 운영하기에 불편하며 경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며 지도 사업을 잘 진행하지 못하며 관료주의를 발생시키는바 관료주의는 모든 사업의 적이며 어떤 좋은 사업도 매장하여 버리고》(김 일성;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55—56폐지)말기 때문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공업의 발전에 따라 산업성을 중공업과 기타 성으로, 그리고 중공업성을 다시 기계 공업성, 금속 공업성, 석탄 공업성 등으로 분할하면서 공업 관리 체계를 객관적인 경제 발전 행정에 부단히 적응시켜 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업에 대한 부문별 관리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놀았으며 또 놀고 있다.

지방 인민 회의들의 조직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정　영　원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혁명 수행의 위력한 무기인 인민 정권 기관을 일층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당 3차 대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작년 11월에 실시된 지방 주권 기관 선거는 지방 각급 인민 회의들을 조직적으로 일층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활동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지방 인민 회의들은 자기 관할 지역 내에서의 국가 주권의 지방 기관으로서 그는 인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대표한다.

지방 인민 회의들은 해당 지방 인민들의 완전하고 진정한 자치적 기관인 동시에 유일한 국가 주권 기관 체계에서의 각급의 고리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지방 인민 회의들은 해당 지방에서의 국가 주권 기관이며 우리 나라의 정치적 기초로 된다. 공화국 헌법 제7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 각급 인민 회의들은 국가 법령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며, 경제, 사회 및 문화 부문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며, 지방 예산을 채택하며, 국가 및 사회 재산의 보호와 사회 질서의 유지 및 공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킬 것을 지향하고 있다.

지방 인민 회의들은 전국적 인민 경제 계획 및 국가 종합 예산에 의하여 제시된 범위 내에서 자기 지방의 인민 경제 계획과 예산을 채택 비준하며, 그의 실행에 대하여 자기 집행 기관인 인민 위원회에 지시를 주며, 그의 일체 활동을 지도 감독하며,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서도 방향을 주며 대책을 제시하며, 그들의 실제 사업에 대한 검열을 수행한다.

지방 인민 회의들은 자기의 기본 임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년간의 실천적 경험과 선진 국가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정식화된 공통성 있는 사업 조직 형태들을 가지게 되는바 이 조직 형태들은 우리 나라 정치 생활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가일층 발양시키며 국가 관리에 광범한 인민 대중의 상시적 참가를 보장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1, 조직적—법적 기본 형태로서의 회의

지방 각급 인민 회의들의 사업의 법적—조직의 기본 형태는 회의이다.

지방 인민 회의들은 기본적으로 회의 형식을 통하여 자기의 권한상 모든 문제들을 결정함으로써 관할 지역내에 있어서의 경제, 문화 건설에 관한 국가 생활을 지도한다. 주권 기관의 회의는 대의원들의 총회를 의미하는 바이는 원칙적으로 회기적인 제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소집함으로써 주권 기관들의 활동을 정상화하고 그의 집행 처리 기관인 인민 위원회의 부서들 및 산하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하급 인민 회의 및 인민 위원회 사업을 지도하며 통제 감독하게 된다.

지방 각급 인민 회의들의 정기 회의 소집 기간은 주권 기관 체계의 고리들에 따라서와 그 소집의 가능성에 따라서, 또 실제적 활동상 필요에 따라서 구별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 주권 기관 구성법에는 도, 시, 군(구역) 인민 회의는 6 개월에 1차씩,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는 3 개월에 1차씩 정기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여 있다.

이와 같이 하급 인민 회의의 정기 회의 소집을 더 자주 하게 한 것은 대의원들을 자기가 복무하는 실제 사업으로부터 오래'동안 분리시키지 않으며 인민 대중과 직접 련계되여 있는 인민 회의를 통하여 주권 기관들의 활동에 대중의 의사와 창발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입하기 위해서이며 또 모이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 소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민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는 것은 주권 기관을 지방 주민들에게 더욱 밀접히 접근시키며 주권 기관으로 하여금 더욱 정상적, 적극적으로 집행 기관들의 활동을 지도하게 하며 자기의 관할 지역 내에서 경제, 문화 건설 사업을 제때에 방향지어 줄 수 있게 한다. 만약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규정과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위반으로 되며 인민 회의가 자기의 집행 기관들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제때에 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대의원들의 의무 수행에 저해를 주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각급 인민 위원회들은 인민 회의의 정기적 소집을 제때에 보장함으로써 관할 지역내 경제, 문화 건설의 실제적인 사업에 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과 지방 주권 기관 구성법에 규정되여 있으며 또 다년간의 실무를 통하여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인민 회의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즉 지방 인민 회의의 고유한 권한으로 되여 있는 1) 지방 인민 경제 계획 및 예산의 채택과 그의 집행에 대한 총화 보고의 승인, 2) 인민 위원회의 선거와 그의 사업 결산 보고의 청취, 3) 대의원 상설 위원회의 조직 및 그의 사업 보고의 청취, 4) 지방 재판소의 구성과 그의 재판 활동에 대한 보고의 청취, 5) 대의원의 자격 심사 보고의 청취 및 그의 제명에 대한 결정과 보충. 선거에 관한 문제들 외에도 경제, 문화 건설 사업과 행정 조직 지도 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하고 긴절한 문제들, 국가의 법령, 결정, 명령들의 집행 대책의 수립과 그의 집행 정형에 대한 통제, 전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의 심의, 하급 인민 위원회들로부터의 사업 보고의 청취, 해당 인민 위원회 및 그 부서들의 사업 보고의 청취, 대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인민 위원회 지도 일'군들의 해답의 청취 등 집행 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실제적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상정 토의되여야 한다.

이에서 함경남도 인민 회의 사업을 경험적이라고 볼수 있다.

함남도 인민 회의는 지난 기간 도내 농촌 경리 분야에 있어서 아직 가장 약하고 락후한 고리로 되여 있는 축산 문제들과 잠업 생산 사업 강화 대책을 제2차 및 제3차 인민 회의에 상정 토의하였다. 도 인민 위원회는 이 문제들을 인민 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상당한 력량을 기울여 준비하였다. 회의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도 내의 축산 및 잠업 문제에 대한 사전 충분한 인식을 주기 위하여 지난 기간에 있어서와 현재에 있어서의 축산 및 잠업 생산 정형과 앞으로의 대책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제들에 대한 참고적 자료들을 제공하여 주고 연구시켰으며, 회의 직전에는 이 문제들에 대한 실무적 강습을 조직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 조직을 통하여 대의원들로부터 많은 창발적 문제들이 제기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대의원들의 토론 참가자 수는 종전에 비하여 훨씬 증가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게 되였다.

인민 회의에서 토의한 축산 및 잠업 생산 강화 발전 대책에 관한 결정은 곧 인민 위원회

에서 그의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토의하고 집행 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 집행 계획서는 인민 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제반 대책과 조직 사업의 구체적 방법적 문제들이 예견되였다.

축산 및 잠업 강화 대책은 시, 군 인민 회의들과 인민 위원회들에 의하여 관할 지역 내의 제반 실정에 근거하여 구체화되고 있는바, 이리하여 도 내 각급 인민 위원회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무축 농가를 퇴치할 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 협동 조합들에 공동 축산 토대를 축성케하며 잠견 생산은 최근 년간에 전점 수준을 훨씬 릉가하도록 전체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농민들을 동원하고 있다.

함흥시 인민 회의는 전후에 도시의 급속한 복구 건설과 관련하여 더우기는 독일 인민들의 적극적인 원조에 의하여 복구 또는 신설되는 주택들을 위시한 도시의 공공 시설들을 애호하는 문제가 가장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되였음을 인정하고 지난 3월에 진행한 인민 회의에서 도시 공공 시설들의 관리 사업을 일층 개선 강화할 대책을 토의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인민 위원회와 도시 경영 기관들에 의하여 그의 구체적 집행 대책이 강구되였을 뿐만 아니라 대의원들에 의하여 시내 모든 주민들에게 전달되여 지금 시내 전체 주민들은 자기들의 도시를 보다 아름답게 건설하며 관리하기 위하여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

시 인민 위원회는 독일 인민들의 원조에 의하여 새로운 근로자들의 주택이 즐비하게 일떠선 회상동에서 주민들을 조직 동원하여 문화적인 새로운 주택들을 보다 잘 관리하며 주택 지구들을 정리 정돈하는 사업에 대중의 열성을 조직적으로 인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함경남도 인민 위원회와 함흥시 인민 위원회는 인민 회의를 경제, 문화 건설의 실제적 문제에 관여시킴으로써 인민 회의가 인민 경제 계획과 예산 채택의 비준 기관으로서 만 아니라 실제 사업의 조직자적 역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거의 관례적으로 상 하반년에 진행되는 인민 회의에서 인민 경제 계획 및 예산의 채택과 그의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는데 국한하고 있다.

다수의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현행의 경제 건설과 문화 건설의 중요 문제들과 행정 조직 지도 사업에서의 중요하고 긴절한 문제들에 대하여 제때에 인민 회의에 상정 토의하지 않으며 인민 회의의 집행 기관으로서의 인민 위원회들과 그 부서들의 사업 정형에 대하여서는 거의나 상정 토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해에 지방 인민 회의 선거를 앞두고 각급 인민 위원회들은 자기 인민 회의 앞에 결산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산 보고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가능하다면 정기 회의 기간에 있어서의 사업 정형도 보고함으로써 인민 회의가 구체적인 실천적 문제들에 관여하여 자기 집행 기관들의 사업을 제때에 통제 감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더우기 많은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자기의 기본 과업의 하나인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사업과 그의 년간을 통한 사업 정형도 인민 회의에서 토의하지 않고 다만 전반적 인민 경제 계획 총화시에 대략적인 문제에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민 회의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심의하지 못하게 하며 심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인민 위원회들은 경제, 문화 건설의 보다 실제적인 문제들을 인민 회의에 제기하여야 하며 자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사업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인민 회의의 소집과 진행에 있어서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들은 도, 시, 군(구역)인민 회의들에 비하여 적지 않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경우에 있어서 리 인민 회의들에는 인민 회의의 고유 권한으로 되여 있는 경제 계획 및 예산의 채택 등 문제들이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데로부터 일부 리(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 일'군들은 인민 회의를 어떻게 조직 진행하며 그의 취급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

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민 회의를 제때에 소집하지 않고 있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는 주로 경제, 문화 건설에서의 중요한 문제들과 국가의 법령, 결정들의 집행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보다 방향적이고 전망적인 문제들을 취급하는 동시에 자기 인민 위원회들과 상설 위원회들의 사업을 지도 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의 정상적인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회의의 성과는 그에 대한 준비 여하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바 인민 회의의 소집 및 준비에 관한 조직 사업은 해당 인민 위원회들에 의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인민 위원회들은 인민 회의에 상정 토의하여야 할 취급 문제를 옳바로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바 이 회의 취급 문제 선택에서 기초로 되는 것은 상급 기관의 결정, 지시들과 대의원들의 제의, 인민들의 요구와 의사, 자기의 사업 계획 진행 정형 등이다.

인민 위원회들은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충분히 참작한 기초 우에서 사업상의 구체적 대책들이 충분히 강구되게끔 인민 회의 진행에 조직적 성격을 부여하도록 문제 선택에서 신중성을 기하여야 하며 한분기 또는 반년 이상 앞을 예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민 회의 준비는 사실에 있어서 커다란 정치 사업으로 되게 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창발성을 동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회의 준비는 다만 상무 일'군들에 의한 사무적인 준비가 아니라 대중적 준비가 필요하며 열성자들을 광범히 인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조직 준비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성이 필요하다.

준비 조직 사업에서 주되는 것은 1) 토의 대상으로 되는 사업 상태에 대한 사전 연구, 2)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 및 결정서 초안들의 준비, 3) 열성자들, 특히 대의원 상설 위원회들을 인입할 대책의 강구, 4) 회의 진행에 대한 계획 작성, 특히 회의에서 토의가 충분히 되도록 하며 더우기 비판과 자기 비판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는 대책의 강구, 5) 대의원들에게 문제의 취급 내용과 이에 관련되는 참고적 자료들을 알려 주는 조직과 대의원들이 해당한 문제에 따르는 선거자들의 의견을 접수 인입하는 조직 사업 등이다.

회의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의원들과 상설 위원회들을 적극 참가시키는 문제이다. 상설 위원회들이 회의 준비 사업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취급 문제에 따라 인민 회의에서 보충 보고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인민 위원회가 준비 제출한 결정서 초안에 평가를 가하고 보충적 안을 제기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게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난 4월에 진행된 함남도 인민 회의 제3차 회의에서는 《1956년도 예산 집행 총화와 1957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였는 바 재정—예산 위원회는 해당 인민 위원회 재정 부장의 보고에 보충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도내 각급 기관들에서 재정 규률과 예산 집행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데 대한 대책을 제기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에서 중요 문제는 증산과 절약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더우기는 상업 류통 기관들에서 상품 판매 활동을 확대하며 지방 산업 기업소들에서 계획 리윤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제기함으로써 결정에 적지 않은 보충적 안을 가할 수 있게 되였다.

다음으로 인민 회의의 진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를 돌려야 할 것은 대의원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문제이다. 적지 않은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인민 회의에 대의원 수보다 초대하는 사람들——열성자들, 기관 책임자들을 너무 많이 참가시키며 토론들도 대의원이 중심이 되지 않고 열성자들과 집행 기관 일'군들이 중심이 되여 회의를 좌우함으로써 대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저하시키는 현상들이 있다. 그러므로 각급 인민 위원회들은 대의원들의 회의가 군중의 회의로, 열성자들의 회의로 전환되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는 그의 진행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양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에 있어서 의장의 역할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하면서 문제 심의의 완전성을 기하며 회의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자기의 주되는 임무로 삼아야 한다. 지방 인민 회의들의 많은 회의가 형식에 구애되여 흔히 행사식 회의가 되며 대의원들이 집행 기관의 사업을 찬양하는 연설로써 일관되게 한다. 어떠한 회의나 옳게 진행되는 회의는 결함과의 날카로운 투쟁의 무대로 되고 밑으로부터의 비판의 무대로 되며 문제 심의의 구체성과 실무성이 보장되는 경우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인민 회의를 국가 관리의 학교로, 간부들을 육성 훈련하는 기회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 회의의 결정은 관할 지역 내 인민들의 의사의 집중적 반영이며 해당 인민 위원회를 위시한 모든 집행 기관들에 대한 방향적 지시로 된다. 그러므로 회의에서의 결정의 채택은 충분한 신중성을 기하여야 하는바 인민 위원회들은 가능하다면 준비된 결정서 초안에 대하여 미리 대의원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며 심의에 있어서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분과별 토론을 진행하거나 가결에 있어서 조항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민 회의는 다만 결정을 채택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채택된 결정의 집행 검열과 통제에도 중대한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 회의는 결정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집행 기관들과 그 책임자들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며 대의원들과 상설 위원회를 통하여 집행 검열을 실시하는 등 상시적인 통제를 실시할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민 회의의 성과는 회의 조직 준비의 계획성과 철저성, 회의 진행의 정확한 조직, 인민 위원회와 그 부서들에서의 조직 사업이 주도 세밀하게 되였는가 못 되였는가에 많이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인민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인민 회의 활동의 법적--조직의 기본 형태로 되는 회의 조직 사업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며 그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대의원 상설 위원회의 사업 조직과 활동

대의원 상설 위원회는 인민 회의 활동의 조직적 형태의 하나이다. 지방 각급 인민 회의들에서는 1956년 11월 선거 후 제1차 회의에서 각각 자기 지방의 실정과 필요성에 따라 해당한 상설 위원회들을 조직하였다.

지방 각급 인민 회의 제1차 회의들에서 조직된 상설 위원회는 14 개 종류에 달하는 바 이들 중에서 보편적인 것은 예산 위원회, 로동 및 사회 보장 위원회, 교육 문화 위원회, 인민 보건 위원회, 공영 시설 위원회, 향로 건설 위원회 등이다. 이외에 특수적인 것으로는 일부 지방 인민 회의들에 농촌 경리 위원회, 농림 수산 위원회, 상업 및 수매 량정 위원회 등이 있다. 이리하여 지방 각급 인민 회의들에는 8 ,502 개의 대의원 상설 위원회가 조직되여 있는바 이에 망라된 대의원 수는 32,411명(그중 녀성 대의원 6,454명)이나 된다. 이는 지방 각급 인민 회의 대의원 총 수 64,634명에 대하여 50.2%에 해당하며 대의원 총 수에서 인민 위원회 성원 수를 제외한 수에 비하면 85.1%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광범한 대의원들이 상설 위원회 조직에 망라되여 있는바 이 상설 위원회들이 지향하는 기본 목적은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상시적 활동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제고하며 광범한 인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맺음으로써 인민 회의 사업에서의 그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시키며 국가 관리에서의 진정한 인민적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상설 위원회의 조직은 지방 각급 인민 회의들의 조직적 활동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로 된다. 지방 각급 인민 회의들의 앞에는 새로 조직된 상설 위원회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그의 역할

을 제고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상설 위원회들의 기본 기능

대의원 상설 위원회는 해당 인민 회의의 지도적, 통제적 및 감독적 활동의 완전한 실현을 협조하는 상설적인 보조 기관으로서 회의를 준비하거나 채택된 결정의 실현을 통제, 감독함에 있어서 인민 회의를 협조한다.

인민 회의는 주로 자기 사업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수행하는 만큼 상설 위원회와 같은 인민 회의 보조 기관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제기하는바 인민 회의는 이러한 상설 위원회를 통하여 관할 지역 내에서 국가 생활의 모든 부문에 대한 통제와 감독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인민 회의 보조 기관인 상설 위원회는 해당 인민 회의에 복종하며 그 지도하에 사업하며 그 앞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설 위원회는 그 자체가 주권 기관으로 되거나 또는 집행 기관으로 되는것도 아니며 오직 주권 기관의 활동을 협조하는 대중조직체로 될 뿐이다.

이와 같이 상설 위원회는 대의원들의 활동의 한갖 조직적 형태로서 해당 인민 회의를 협조하면서 집행 기관인 인민 위원회와 그 부서들의 사업에 대하여도 방조하게 되는바 이러하여 그들은 이러 저러한 국가적 과업을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형태로서가 아니라 국가 기관들에 원조를 주는 형태로서 사업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상설 위원회는 주권 기관이나 집행 기관의 모든 사업의 강화 개선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상설 위원회의 임무

모든 상설 위원회들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해당 인민 회의에 부여된 과업, 특히는 지방의 경제, 문화 발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케 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가일층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과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민 회의와 집행 기관들을 적극 협조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설 위원회들은 일정한 의무와 권리들을 가지게 되는바 우리에게는 아직 정식화된 규정이 없으나 선진 국가들에서의 경험과 우리의 지방 인민 회의 상설 위원회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상설 위원회들의 의무로 되는 것은

(ㄱ) 해당 인민 회의 준비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는바 그들은 인민 회의에서 취급되여야 할 의안들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거나 해당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 제출한다. 상설 위원회들은 인민 회의를 준비할 때에 해당 인민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설 위원회들은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항상 깊이 연구하고 인민 회의에서 취급 토의되여야 할 긴요한 문제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때에 포착 제기하여야 하며 또 취급 토의되는 문제에 따르는 정확한 대책안을 작성 제출하는 사업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ㄴ) 국가의 법령, 결정, 명령들과 해당 인민 회의 및 인민 위원회의 결정 지시들의 집행 정형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상설 위원회들은 해당 인민 위원회 부서 및 그 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항상 연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열하거나 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그의 개선 대책안을 해당 기관들에 제의하여야 한다.

(ㄷ) 해당 인민 위원회와 그 부서 및 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해당 인민 회의 및 인민 위원회의 결정 지시들과 상급 기관의 결정, 명령 및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도록 방조하여야 한다. 상설 위원회들은 국가의 결정 지시를 인민 대중 속에 깊이 해석 침투시키며 그의 열성을 조직 동원하는 방법으로써 그의 신속 정확한 실행을 협조하며 결정 및 지시들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 저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제때에 해당 기관들에 그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ㄹ) 선거자들의 위탁과 제의를 실행하며 인민들로부터의 신소 청원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신속 정확히 처리하도록 감시한다. 이는 인민의 대표자로서의 대의원들의 의무 실행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인민 정권 기관들과 인민들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고 정권 기관들의 활동에 대중의 의견을 광범히 인입하는 실제적 조치로 되는 것이다.

(ㅁ) 상설 위원회는 해당 인민 위원회 부서들과 산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사무 처리의 지연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관료주의는 준법성이 위반되며, 공민의 권리와 리익이 유린되며, 실제 사업이 서류 속에 파묻혀 버리는 그러한 곳에서 흔히 나타나게 된다. 상설 위원회들은 자기 활동의 국가적 성격과 인민들의 사회적, 자주적 형식을 그 자체에 결합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국가 기관들에서 관료주의 잔재를 청산함에 있어서 인민 회의들이 가지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되여야 한다.

상설 위원회들은 이상과 같은 자기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권리들을 가지게 된다. 상설 위원회의 권리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활동에 있어서의 수단으로 되는 동시에 의무 수행의 담보로 되는 것인바 이는 그들의 의무와 서로 결부되여 밀접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

상설 위원회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ㄱ) 해당 인민 회의의 권한내에서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 임의의 문제들에 대하여 심의하며, 해당 인민 위원회 부서 및 기관, 단체들의 사업을 조사 검열하며, 그들로부터의 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

이는 상설 위원회가 해당 인민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서와 부문별 집행 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설 위원회는 이러한 권리 수행에 있어서 인민 회의의 집행 기관인 해당 인민 위원회 사업에 대하여는 그를 심의 대상으로 하거나 검열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또는 보고를 받을 수도 없다. 그것은 인민 위원회가 해당 인민 회의의 직접적인 집행 처리 기관으로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 관리 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부문별 체계로 조직된 인민 회의의 보조 기관인 상설 위원회가 그의 사업을 직접으로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으며 또 상설 위원회 자체는 해당 인민 위원회들의 적극적인 조직적 방조에 의하여서만 자기 사업을 옳게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사업을 통하여 인민 위원회 사업을 적극 원조하고 협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ㄴ) 상설 위원회는 해당 인민 회의에서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할 수 있다.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함에 있어서 상설 위원회 앞에 제기되는 중요 요구는 대의원들에 의하여 심의되는 사업 정형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주며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정확하게 제기하는 데 있다.

(ㄷ) 상설 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권한내에서 관할 지역내에 있는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에게서 필요한 자료를 받으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설 위원회들은 해당 인민 회의에 종속되지 않은 기관, 기업소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계획 수립상 문제라든가 생산 조직상 문제 및 내부 사업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 없고 다만 일반적 성격의 행정 사업들, 지방의 경제 건설과 주민 생활상 문제, 국가의 법 질서들의 준수 정형에 대한 문제들에 한하여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ㄹ) 상설 위원회들은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 문제를 토의하는 해당 인민 위원회 회의에 협의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바, 이리하여 상설 위원회들은 해당 인민 위원회로부터 취급 문제, 회의 날자 등에 대하여 통지 받을 수 있으며 회의에서 보고 또는 보충 보고하거나 토론에 참가할 수 있으며 결정서 작성에도 참가할 수 있다

(ㅁ) 상설 위원회들은 자기 사업에 열성자

들을 인입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일정한 과업들을 위촉할 수 있는바 모든 기관 단체들은 상설 위원회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상설 위원회들은 모든 국가적 과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사회적 자체 활동을 향도하면서 광범한 열성자와 근로 대중을 국가 관리에 인입한다.

이상은 모든 상설 위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와 권리들인 바 이는 동시에 그들의 일정한 사업 형식과 사업 방법을 규정하게 한다.

상설 위원회 사업의 형식과 방법

상설 위원회들은 자기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들과 방법들에 의하여 자기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상설 위원회는 성원들 간의 사업 분공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상시적인 것과 림시적인 것으로 구별된다. 상시적인 분공은 위원장, 부 위원장 및 서기장의 직무를 위임하는 것이며 림시적인 분공은 그때 그때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조직하는 것이다.

위원장, 부 위원장 및 서기장의 상시적인 분공을 제외한 림시적인 분공은 주로 위원들 간의 분공인 바 이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대상들의 검열에 참가하거나 이러 저러한 기업소, 기관, 단체들에 대한 사업을 계통적으로 통제하며 인민 회의 결정 초안과 상설 위원회 제의들의 준비에 참가하여 인민 회의 또는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 인민 위원회 회의에서 보충 보고 혹은 보고의 책임을 지우는 것 들이 그에 해당한다. 상설 위원회 성원들 간의 분공 사업의 옳바른 조직은 그의 조직적 활동을 제고시키는 중요 조건으로 된다.

상설 위원회는 또한 자기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 수립은 사업의 첫 출발로 된다. 사업 계획의 옳바른 수립은 사업을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수행할 가능성을 주며 인민 회의 앞에 나서고 있는 기본적인 과업들을 해결하는 데 상설 위원회들의 력량과 주의를 돌릴 가능성을 준다.

사업 계획에는 계획 기간내에 어떤 문제들을 위원회 회의에서 토의 결정하고 해결하며 어떠한 기관의 사업을 조사 검열하여, 또 어떠한 문제들을 준비하여 인민 회의 또는 인민 위원회에 제의할 것인가 등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여 기타 연구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상설 위원회들은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인민 회의 계획에 기본적으로 의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인민 위원회와 관련 있는 부서들의 사업 계획과 옳게 조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는 상설 위원회들이 다만 인민 회의나 인민 위원회 사업 계획에 예견한 범위내의 문제만을 자기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필요할 때에는 인민 회의나 인민 위원회 계획에 예견되여 있지 않는 문제들도 자기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인민 회의나 인민 위원회 사업 계획과 상설 위원회 사업 계획의 기본 방향이 일치되여야 하며 호상 상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상설 위원회들은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사업 조직에 근거하여 자기 사업을 다음과 같은 형식과 방법에 의하여 전개하여야 한다.

(ㄱ) 상설 위원회들은 자기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회의는 상설 위원회의 기본적 과업들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며 위원회 사업 계획을 비준하며 위원회 성원 또는 열성자들에게 위임한 사업의 집행 정형을 보고 받으며 인민 회의 및 인민 위원회에 회부할 제의들을 채택한다. 또한 회의에서는 필요에 의하여 해당 인민 위원회 부서들과 그 소속 기관, 단체들의 사업 정형을 청취 토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의 토의를 위하여 경험은 도, 시, 군(구역) 인민 회의 상설 위원회는 3 개월에 1차 이상 리 (읍, 로동자구)인민 회의 상설 위원회는 2 개월에 1차 이상 자기들의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여주고 있다.

회의에서 토의의 구체성을 보장하며 성숙된 제의를 채택하기 위하여서는 회의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의 준비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은 상설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설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장은 회의 준비 사업을 철저하게 조직하며 성원들 간의 회의 문제의 준비를 위한 분공 사업을 옳게 하며 열성자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회의 준비 사업이 충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ㄴ) 상설 위원회는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준비함으로써 해당 인민 회의 또는 인민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설 위원회는 인민 회의의 위임이 있거나 혹은 자체의 발의에 의하여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 문제 중에서 대책상 필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회의에 부의하거나 또는 그에 따르는 실무적 제의를 하는 동시에 준비한 결정서 초안을 제출하기도 한다.

인민 회의 또는 인민 위원회에서의 상설 위원회의 실무적 제의는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주로는 보고 또는 보충 보고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 이는 상설 위원회 활동 형식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상설 위원회들이 수행하는 보고 또는 보충 보고는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발전시키며 인민 회의가 문제의 전면적 분석을 가할 수 있게 하며 인민 위원회 및 그 부서들이 준비한 결정서 초안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과 함께 그를 보충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민 회의에 주게 된다. 상설 위원회들은 인민 회의 또는 인민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개 대의원들의 활동을 강화하며 선거자들과의 일상적인 련계를 밀접히 함으로써 그들의 산 의견들을 광범히 받아 들이며 또한 기관 및 기업소들의 사업 활동들과 현지의 사업들을 조사 검열 (연구)함으로써 경제, 문화 건설 분야에서의 사업 정형을 분석하고 결함들을 비판하며 선진적인 사업 방법들과 대책상 의견을 제기하여 인민 회의의 성과적 진행을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ㄷ) 상설 위원회는 해당 인민 위원회 부서 및 그 산하 기관 단체들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며 그들의 사업 활동 정형을 조사 검열함으로써 인민 회의 및 인민 위원회에 성숙된 대책상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설 위원회는 성숙된 제의의 작성을 위하여 이러 저러한 형식의 사업을 조직하는 바 그중에서 해당 기관, 기업소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거나 조사 검열을 수행하는 사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조사 검열하는 사업은 상설 위원회들의 적극적인 사업 형식의 하나이므로 이는 가장 신중성을 기하여야 할 사업이다. 그것은 조사 검열 사업을 통하여 기관들의 사업 상태를 정확히 료해 파악할 뿐만 아니라 사업상 결함들을 옳게 구명하고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적 대책을 옳게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검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대한 준비 사업이 충분하여야 하며 계획이 면밀하게 작성되여야 한다. 조사 검열을 위한 준비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 검열 요강의 작성 및 그에 동원될 력량의 옳은 편성이다. 조사 검열 사업의 력량 편성을 위하여 전문적 부문에 따라 분과별 그루빠를 조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 바 이 그루빠에는 상설 위원회 성원은 물론 열성자들, 특히 그 부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망라시켜야 한다. 이러한 모든 조직은 조사 검열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게 하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들 속에서 열성자들을 육성 교양하는 대책으로도 되는 것이다.

상설 위원회는 조사 검열 결과에 대한 정확한 총화를 지음으로써 옳은 제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검열 대상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동 상설 위원회의 방법을 광범히 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ㄹ) 상설 위원회는 각종 대중 단체들과 선거자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하여야 하며 모든 사회적 사업의 선두에서 조직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상설 위원회는 지방 주민들의 문화—복리 시설 등의 대책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인민 위원회내 대중 단체들에 의거하면서 열성자들과의 협의회, 주민들과의 담화를 조직하고 그의 사업상 대책들과 실행 계획을 토의한다.

또한 상설 위원회는 공장과 농촌들에서 광범한 사회주의적 증산 경쟁 운동을 조직하고 그를 발전시키며 선진적 경험들을 보급 일반화할 구체적 조직 사업도 전개하여야 한다.

(ㅁ) 상설 위원회들은 상설 위원회 호상간에 사업상 련계를 옳게 조화시켜야 한다. 상설 위원회들은 사업 과정에서 이러 저러한 문제들이 수 개의 상설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되는 것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호상 관련 있는 상설 위원회들 간의 합동 사업을 조직하는 것은 그들 사업 성과 달성에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례하면 기업소의 재정 예산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예산 위원회와 지방 산업 위원회가 호상 합동 사업을 조직할 수 있으며 류통 기관 사업을 검열할 때에 상업 류통 위원회와 예산 위원회가 관련을 가지게 되며 또는 상점의 위생 상태에 대하여는 인민 보건 위원회와 관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련계는 상급 인민 회의와 하급 인민 회의의 동종의 상설 위원회간에도 있게 되는바, 례하면 도 교육 문화 상설 위원회에서 신학년도 준비 사업 정형을 토의할 때 시,군 교육 문화 상설 위원회 위원장들을 참가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는 학교들의 사업을 검열할 때에 학교 소재지 시, 군 상설 위원회들과 합동 사업을 조직할 수 있다. 상급 인민 회의와 하급 인민 회의의 상설 위원회들 간의 이러한 사업은 그것이 종속적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상 협력과 방조적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ㅂ) 상설 위원회는 해당 인민 회의에서 자기 사업 총화 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상설 위원회는 해당 인민 회의 지도하에 사업하며 그 앞에 책임을 진다. 인민 회의들은 자기 상설 위원회들의 사업을 지도하면서 그들의 모든 활동을 방향지으며 통제하는 바 인민 회의에서 상설 위원회들이 수행하는 총화 보고는 상설 위원회에 대한 인민 회의의 통제 수단 중의 중요 수단의 하나로 된다. 상설 위원회의 총화 보고는 인민 회의의 정기 회의들에서 일정한 기간의 사업을 검토 총화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바 인민 회의는 이러한 총화 보고를 청취하고 그들의 사업상 결함을 지적 비판하고 그 개선 대책에 관한 지도적 지시를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설 위원회의 사업 정형에 대하여 대의원들은 선거자들 앞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적 지적들도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

상설 위원회들의 활동의 강화—이것은 대의원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민 회의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설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함에 있어서 인민 위원회의 조직적 방조 사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상설 위원회와 인민 위원회와의 관계는 호상 방조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바 더우기는 인민 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설 위원회들의 사업을 백방으로 방조하며 그의 창발성을 지지하고 경제,문화 건설 사업을 개선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인입 참가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상설 위원회에 대한 인민 위원회의 방조 사업은 다양한 형식을 띠게 되는바 그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은 상설 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성원들 간의 협의를 진행하며 인민 위원회 사업 계획 작성에 그들을 참가시키며 그들의 활동과 관련되는 문제의 심의에 참가시키며 인민 회의에서 토의 예정 안건을 미리 알려 주고 그의 준비 사업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그밖에 상설 위원회들의 활동상 모든 조건들을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금 많은 도, 시, 군(구역) 인민 위원회들에서 상설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여 주며 대의원실을 설치하고 그들의 일상적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고 있으며 인민 위원회의 직속 사무 기구 인원들 중에서 전문 일'군들을 지정하여 일상적인 방조를 주고 있는바 이는 상설 위원회들의 사업 활동을 강화하는 중요 조건으로 된다.

3, 대의원들의 사업 활동

대의원은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이며 국가 활동가이다. 그들은 인민들로부터 직접 선거받으며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들의 충복이다. 대의원들은 선거자들과의 일상적 련계를 유지 강화하면서 그들의 요구의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당과 국가의 결정들의 집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대의원들은 자기의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ㄱ) 대의원들은 선거자들로부터의 위탁을 접수하고 그를 정확히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선거자들의 위탁에는 선거자들의 요구가 표시되여 있는바 이는 대의원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행동 강령으로 된다. 선거자들은 자기들의 위탁들에서 인민 정권 기관들의 사업상 결함과 오유들을 지적하며 이 결함을 제거할 데 대한 방법들을 제기하며 자기들의 절실한 요구들을 표명한다. 선거자들은 대의원들의 선거시에 있어서와 면회시에 또는 개별적인 접촉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위탁들을 제기한다. 대의원들은 선거자들이 제기하는 위탁들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탁들을 적극 받아 들이며 해결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의원들은 선거자들과의 일상적 련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면회와 면담의 날'자를 정하고 그들과 담화하고 요구들을 받아 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 위원회들은 대의원들이 선거자들과의 밀접한 련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위탁들을 적극 받아 들이고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적극 보장하여 주는 동시에 대의원들이 제출한 선거자들의 위탁과 제의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 각급 인민 회의의 적지 않은 대의원들은 많은 경우에 선거자들의 제의의 전달자로서 그치거나 문제를 심화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것에 국한하여 전반적인 문제들과 련관시켜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문제의 제의를 성숙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민 위원회들은 대의원들이 선거자들의 제의와 위탁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의를 해결하고 성숙시키는 데 노력을 하도록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ㄴ) 대의원들은 선거자들 앞에서 자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자들 앞에서의 대의원들의 보고 제도는 대의원들과 인민 정권 기관 사업에 대하여 대중의 통제를 가하는 중요 수단으로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 사업에 인민 대중을 인입하는 중요 형식이며 사회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개선하는 데 대중의 창발성을 동원하는 형식으로 된다. 선거자들은 대의원들의 사업 보고를 토의하며 그들의 사업과 인민 정권 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결함을 폭로 비판하면서 인민 정권 기관들의 사업을 가일층 개선할 데 대한 자기 희망을 표시하며 자기들의 요구를 표명한다. 대의원들은 선거자들의 비판적 지적들에 근거하여 자기 사업 활동에서 부족점들과 결함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선거자들의 제의들과 희망들을 인민 위원회를 통하여 제때에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대의원들의 사업 보고는 정상적으로 또는 필요하다면 자주 실행할 수록 더욱 좋다. 대의원들의 사업 보고, 회의의 조직 준비 및 진행에 대한 방조는 해당 인민 위원회의 의무에 속한다. 우리는 지난 해 지방 인민 회의들의 선거 실시를 앞두고 진행한 대의원들의 사업 보고를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를 더욱 느끼게 되였다.

그러나 선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 인민 위원회들에서는 대의원들의 보고 사업을 조직하지 않고 있다. 함흥시 인민 위원회와 같이 인민회의 결정의 해설을 위하여 전달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라고 인정한다.

인민 위원회들은 대의원들의 사업 보고 회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대의원들의 사업 보고에 필요한 참고적 자료들을 제공하여 주며 그에 대한 강습, 또는 쎄미나르 등의 방법으로 대의원들이 충분한 보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조하여야 한다.

(ㄷ) 대의원들은 선거자들을 정상적으로 접견하며 그들의 신소와 청원을 정당하게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선거자들을 정상적으로 접견하며 그들의 신소 청원을 접수, 해결하는 것은 선거자들과 대의원들과의 련계를 정상화하며 국가 기관들과 책임적 일' 군들의 사업상 결함들과 과오들을 적발 시정하는 형식의 하나로 되는 동시에 인민들의 창조적 창발성을 발전시키는 중요 형식으로 된다. 중요한 것은 선거자들과의 정상적인 접견이다. 인민 위원회들은 대의원들의 동의 밑에 선거자들의 면회 시일과 시간, 장소를 결정하고 선거자들에게 통지하는 사업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의원들은 다만 선거자들의 신소와 청원의 등록자로 되거나 그에 대한 전달자로만 된다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대의원들은 선거자들의 신소 청원을 접수하면서 그에 대한 충분한 리해와 해설을 주어야 하는 동시에 선거자들의 신소 청원을 정확 신속히 해결하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대위원들은 자기 선거자들에게 국가 정책과 법령, 결정들을 해설 침투시키며 선거구내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법령, 결정들을 정확히 준수, 집행하도록 통제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정책과 법령, 결정들의 해설은 대의원들의 보고 회의 (결정 전달 해설) 접견 담화, 강연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선거구 내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사업 활동과 결정들의 실행, 정형에 대하여 료해하고 해당한 의견들을 주어 항상 정확히 집행하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결정 채택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법령, 결정들을 해설하며 그의 집행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바 이는 국가 정책과 법령의 선전자로서 대의원의 역할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법령, 결정의 집행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ㅁ) 대의원들은 지방 주민들의 사회적 자체 활동을 조직하며 항상 그들의 선두에 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대의원들은 국가 결정 집행에 대한 조직자로 되여야 한다. 대의원들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생산 집단의 성원들을 사회적 사업에 조직 인입하며 자기 자신 생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놀아야 한다.

대의원들은 또한 생산 집단 성원들의 문화 생활상 편리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 그들의 기숙사, 식당, 상점, 기타 문화 시설들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의원들은 주민들의 사회적 자체 활동을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적 조직체들—인민반, 검병반 및 기타의 조직체들과 긴밀한 련계를 맺아야 하며 그들 사업의 선두에 서서 나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대의원과 선거자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대중의 지지와 방조에 의거하여 대의원들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게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구에서 대의원들의 사업 활동은 인민 정권 기관과 인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 사업에 대한 대중의 통제를 보장하며 당과 정부가 제기한 과업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대중의 창발성을 인입하는 중요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인민 위원회들은 선거구에서의 대의원들의 사업이 강화되도록 온갖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는 능적 극적인 조직적 방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집행 및 관리 기관들에 대한 통제와 감독

지방 각급 인민 회의들은 해당 지방의 주권 기관으로서 그는 자기의 집행—처리 기관인 해당 인민 위원회 및 그 부서들과 산하 소속 기관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통제 감독함으로

써 그의 결정 실현을 보장한다. 인민 위원회와 그 부서에 대한 인민 회의의 통제 감독의 중요 형식으로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ㄱ) 인민 위원회를 선거하며 경우에 따라 그 일부와 전부를 소환한다. 인민 회의들은 위원장, 부 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을 선거하며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정형들을 심사하며 그들의 장래 사업 방향에 대한 지시를 준다. 이와 같이 인민 회의들은 인민 위원회 성원들을 선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검열 통제하여야 한다.

(ㄴ) 인민 위원회와 그 부서들의 사업 보고를 청취하며 이러 저러한 부문의 중요 문제들을 심의하고 결정을 채택 제시한다. 인민 회의에서의 경제적 및 문화적 건설에 대한 이러 저러한 문제들의 심의는 해당한 문제에 대한 인민 위원회와 그 부서 사업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는 형태로 되며 인민 회의들에서 인민 위원회와 그 부서들의 사업 보고를 직접 청취 토의하는 것은 집행 기관들에 대한 통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

인민 위원회의 결산 보고를 인민 회의 앞에 상정하는 것은 헌법상 요구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지방 인민 위원회들이 해당 인민 회의 앞에 정상적으로 자기 사업 보고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인민 회의의 집행—처리 기관으로서의 인민 위원회는 선거 전의 결산 보고 뿐만 아니라 년간 또는 인민 회의 회기 기간에 있어서도 사업 보고를 실행함으로써 제때에 정확한 방향적 지도를 받아야 한다.

(ㄷ) 인민 위원회 및 그 부서들의 사업을 검열하며 그들이 채택 발포한 부당한 결정과 지시를 폐지한다. 인민 위원회와 그 부서 사업에 대한 검열은 인민 회의가 조직하는 검열 그루빠와 상설 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되며 또한 인민 위원회와 그 부서들에서 채택 발포한 결정 지시들 중 국가의 법령, 결정 및 명령들과 자체 결정에 저촉, 모순되는 것에 대하여는 폐지하는 방법으로 통제를 실현하여야 한다.

(ㄹ) 대의원들은 집행 및 관리 기관들에 대하여 질문하는 방법으로써 통제를 실현한다. 대의원들의 질문은 인민 회의 및 상급 기관들의 결정들을 인민 위원회가 위반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또는 선거자들의 지시를 리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또 상설 위원회의 제의를 실행하지 않았거나 대의원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하여, 또 문제에 따라 진행한 사업이 무엇이며 대책을 강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대의원들은 개별적 또는 그루빠별 혹은 상설 위원회의 명의로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인민 회의에서 심의되는 문제와 관련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의사 일정과 관련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서까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위원회 및 부서들은 대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즉석에서 해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진 후에 해답 또는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해답 기간은 길어서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 주권 기관 구성법 제14조 참조). 집행 및 관리 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인민 회의의 통제 형태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 형태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리용은 지방 인민 회의들의 조직적 활동 수준을 가일층 제고시키는 기본적인 중요 조건으로 된다.

지방 인민 회의들의 활동 수준의 부단한 제고는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제시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위대한 혁명적 임무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담보로 된다.

지방 각급 인민 회의들은 보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에 의하여 자체의 활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우리 혁명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엄격한 절약제의 확립을 위하여

백 금 락

전후 3 개년 계획 수행에서 거대한 승리를 쟁취한 우리 인민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제1 단계를 완성하는 제1차 5 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 착수하여 이미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의 호소를 받들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 궐기한 근로자들은 내부 원천과 생산 예비를 적극 동원 리용하며 설비 리용 및 자재 소비에서 낡은 기술 지표를 타파하고 새로운 기술 지표를 창조함으로써 자기들의 증산 결의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 시기의 간고한 투쟁과 실지 생활을 통하여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과 지도의 현명성을 몸소 체험한 우리 인민은 실로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 거대한 전변을 일으키고 있으며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걷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 경제 내부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부족점들과 결함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상적으로 동원되지 못한 일부 일'군들은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 인민 경제가 제1차 5 개년 계획 수행에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그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국가 축적 증대와 엄격한 경제 절약이 요구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수출품 생산의 완만한 장성과 대외 원조 수입의 축감으로 인하여 외화 수지 발란스의 일정한 곤난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을 위한 재정 지출의 현저한 증대는 이미 방대한 자금을 지출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자금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만한 충분한 국가 축적과 예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형편하에서 우리는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상품 생산을 확대하여야 하며 자체의 내부 축적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지 못할 것이며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시킴으로써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경제 발전 로선을 관철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축적 증대의 중요 고리인 엄격한 절약제의 확립은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전투적 과업의 하나이다.

❊ ❊

엄격한 절약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적 생산 발전의 중요 특징은 그의 객관적인 경제 법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사회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그의 물질적 부를 증대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을 보장하는 동시에 확대 재생산의 원천으로 되는 국가 축적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이와 같은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하에서의 건설 및 생산

활동은 국내의 모든 물질적, 로력적 자원을 가장 합리적, 계획적으로 리용할 것을 지향하며 매개 경제 단위들에서는 최소한도의 지출로써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할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절약은 사회적 로동을 절약하며 온갖 비생산적 지출을 감소시키며 일체 랑비 현상을 배제함으로써 증산의 전제 조건을 조성한다. 절약은 사회주의적 생산 발전의 중요 측면이며 그것은 증산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우리 인민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요구를 반영하는 인민 경제의 계획화에 의거하여 내부 원천의 적극적인 동원 리용과 사회주의 진영 제국과의 경제적 협조 단결을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인민 경제의 지도적 지위를 장악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과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로동은 자본주의 하에서와는 달리 근로자들 자신과 전 사회— 국가를 위한 것으로 되여 있다.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자기 자신과 국가를 위한 것으로 되고 있으며 생산 발전이 인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의 부강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이러한 사정은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모든 생산 수단과 로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또 절약할 것을 지향케 한다. 여기에 사회주의 기업 관리 운영의 필수 조건으로 되는 엄격한 절약제의 철저한 실시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엄격한 절약제와의 불가분적 련관성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엄격한 절약제의 확립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기업 관리 운영의 고유한 원칙이며 그의 필수적 조건이다.

사회주의적 생산 발전의 이와 같은 객관적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경제 건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항상 사회적 로동의 지출, 설비, 연료, 원료 등의 절약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왔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당이 호소하고 있는 엄격한 절약제의 확립——이것은 사회주의적 생산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과 기업 관리 운영의 원칙을 강조하는 데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우리 앞에 제기된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인민 경제의 많은 부문들에서 추가적 투자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극히 적게하고 내부 원천과 생산 예비를 동원 리용하여 최대한의 증산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축적과 예비를 조성하고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전투적 과업으로서 제기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3 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로 형제적 국가들의 방대한 경제적 원조에 의거하였었다. 그러나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대외 원조 수입의 축감과 관련하여 주로 우리 나라의 내부 원천에 의하여 자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형편에 처하고 있다.

특히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기존 기업소들과 새 기업소들을 개건, 확장, 신설하며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만큼 더 많은 국가 재정 지출을 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축적의 증대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되는 것이다.

물론 국가는 지난 3 개년 계획 기간에 당의 옳바른 재정 정책에 근거하여 우선 소비와 축적간의 호상 관계를 옳게 해결함으로써 인민 경제 각 부문에 806 억원에 달하는 기본 건설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로임 인상, 물가 인하, 농산물 수매 가격 인상, 세금 감하 등의 시책에 수백 억원의 국가 자금을 지출하였다.

전후 시기에 국가 재정의 이와 같은 견실성의 보장은 우리 당 재정 정책의 정당성을 실증하여 주는 것인 바 이는 재정 지출의 장성을 생산의 증가와 병행시키고 소비와 축적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한 결과에 달성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 경제가 5 개년 계획 수행의 단계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재정 사업 분야

에는 현저한 긴장성이 조성되였는 바 그것은 국내적으로는 인민 경제 발전 및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요하게 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대외 원조 수입의 현저한 축감으로 인한 외화 발란스의 긴장성과 관련되여 있다.

3 개년 계획 기간에 대외 원조 수입은 년 평균 200 억원 이상에 달하였는 데 1957년에는 140 억원으로 감소되였다. 1957년에는 로임 인상, 종업원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국가 및 협동 단체 기업소, 기관들에서 지출하게 될 로임은 1956년에 비하여 약 100 억원이 더 증가될 것이며 농산물 수매 가격 인상, 식량 배급 기준의 증가, 식료품 공업의 장성 등과 관련하여 농민들에 대한 수매 자금의 방출은 80 억원이 더 증가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국가 재정 발란스는 현저한 정도로 긴장성을 띠게 되였는 바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 축적 규모는 형제적 국가들의 무상 원조가 현저히 축소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년간 약 300 억원의 기본 건설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재정 자원에 의하여서만 보장될 수 있다.

더우기 우리는 3 개년 계획 기간에 전전 수준을 릉가하지 못한 석탄 공업, 발전 공업, 화학 공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아직 인민 경제적 수요와 인민의 수요에 생산 장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압연재, 석탄, 화학 비료, 섬유 제품, 알곡 등의 생산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투자를 요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5 개년 계획 기간에 들어서면서 국가 재정 및 외화 발란스의 긴장성을 해결함으로써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본적으로 내부 축적 원천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구축하여야 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이 없이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둥이며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발전을 위한 사회주의 공업화를 촉진할 수 없다. 중요 생산 수단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고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의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문제는 주로 자체의 내부 축적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력사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문제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들의 근로 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략탈의 방법에 의하여, 또 외부로부터 자금을 류입하는 방법에 의거하고 있는바 그것은 식민지 인민에 대한 착취와 략탈, 패전국으로부터의 배상금, 예속적인 외채 등으로 공업 자금을 해결하는 그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그의 경제 발전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체의 내부 축적에 의거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한 쏘련은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모든 곤난과 난관을 극복하고 자체의 내부 축적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였다. 물론 사회주의가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오늘의 정세와 환경은 그 당시와 판이하게 다르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은 국제적 분업에 기초하여 호상 경제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 쏘련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 기술—경제적 방조를 주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들의 경제적 협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유리한 환경과 조건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자체 력량의 동원과 내부 축적 증대의 의의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인민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조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체 력량을 백방으로 동원하여 국가 축적과 예비를 더 많이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축적의 증대를 보장함이 없이는 인민 경제의 부단한 발전을 보장하는 기본 건설, 설비의 개선, 새로운 로력 원천의 동원 등 정상적인 확대 재생산의 조건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수 없다. 더우기 5 개년 계획 기간에 복구, 신설될 건설 대상들은 국내 자원에 의존하는만큼 축적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국가 축적 증대의 원천인 원가 저하와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보장함으로써 그의 규모와 속도를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그래야 만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면서 공업화를 위한 자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의 하나는 엄격한 절약제의 확립이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이를 옳게 활용한다면 우리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축적 증대를 보장할 수 있는바 우리에게는 그를 위한 풍부한 원천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공업과 협동 단체 기업이 있으며 사회주의 길을 따라 발전하는 협동화된 농업이 있다. 이 밖에도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여 가는 개인 상들이 있다. 이 모든 경제 부문들은 직접 간접으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축적 원천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축적 원천은 주로 사회주의적 경리 내부에서 조성되는 소득에 의하여 조성되는 바 특히 국가 수입의 대부분이 경공업, 상업, 교통, 운수, 금속, 기계, 화학 및 지방 산업 부문에 의거하고 있는만큼 이 부문들에서는 엄격한 절약제를 강화하여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며 원단위 소비 기준을 저하하여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엄격한 절약제는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자극하여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류동 폰드의 소비를 축소하며 그의 회전 속도를 촉진함으로써 원가를 저하시킨다. 고정 폰드의 마모와 원료, 자재, 로력 등의 소비는 금액상으로 평가되는만큼 생산품 생산 또는 작업 수행에 대하여 금액상으로 표현되는 기업소의 출비는 원가를 구성한다. 그러기 때문에 고정 폰드의 리용이 개선되고 류동 폰드의 소비가 축소되면 그만큼 원가는 저하된다.

원가 저하와 관련하여 현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공업 생산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키며 특히 건설 부문에서의 건설 원가를 더욱 더 저하시키는 그 것이다. 제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방대한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만큼 건설 원가를 저하시킴으로써 거액의 자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절약된 자금으로 더 많은 건설을 진행할 수 있다. 건설에서 원가를 저하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보장하며 오작 시공 및 반복 시공을 철저히 퇴치하여야 한다. 설계에서 건설 대상의 능력을 정확히 타산함으로써 유효 면적과 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필요 이상의 장식물을 없애는 것은 건설 원가 저하의 중요 방도의 하나이다. 건설 부문 일'군들은 자재 절약, 건설의 공업화 등으로 건설 원가를 저하시켜야 한다.

엄격한 절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설비 리용률의 제고, 생산 면적의 최대한의 리용, 원단위 소비 기준의 저하, 비생산적 지출 및 로력의 축소, 자금 회전률의 촉진 등 생산 발전의 물질적, 로력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 리용하는 방향에로 일'군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엄격한 절약제는, 선진 기술의 도입, 작업 공정의 합리화, 소기계화, 로력 조직의 합리화,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 등 로동생산 능률의 제 요인을 자극하여 증산을 보장하는 동시에 원가 저하를 위하여 생산 과정에서의 예비를 더욱 많이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격한 절약제를 확립하여 사소한 물품과 자금이라도 허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미 달성된 경제적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 장성의 보충적 원천을 확대함으로써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의 기초인 국가적 부의 증대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적 부의 증대——이것은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의 기초이다. 때문에 광범한 근로 대중은 이를 위하여 엄격한 절약제의 확립을 위한 투쟁에 적극성을 발휘하게 되며 그에 의거하여서만 절약의 실효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 ＊

우리 당은 현 시기 우리 나라에 조성된 경제적 조건들과 인민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전후 시기에 달성된 경제적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의 약한 고리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면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새로운 발전 수준에로 제고함으로써 1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들을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고 있다.

당의 호소를 받들고 궐기한 근로자들은 온갖 열성과 지혜를 발휘하여 엄격한 절약제를 확립하는 투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흑색 공업 부문의 로동자들은 각종 생산 수단들과 물자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난 1.4분기 동안에 약 9천 톤의 유연탄, 3 천여 톤의 무연탄을 절약하였으며 교통 운수 부문에서는 운영용 유연탄 약 1만 톤, 도로 관리국 산하에서는 휘발유 89 톤과 모빌유 44 톤을 절약하였다.

그리고 공업 생산물 원가는 작년도 평균 원가에 비하여 금속 부문에서는 0.2%,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8.6%, 전기 부문에서는 17.3%,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10%, 경공업 부문에서는 5.2%가 각각 저하되였다.

방직 공업 부문 일'군들은 면사와 면직물의 실수률을 제고시키며 재용면을 정확하게 리용하며 페설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원료의 지출 기준을 저하시켰는바 구성 방직 공장에서는 1.4분기 중에 실수률을 높이고 재용면을 혼합 리용하여 얻어진 조면으로 3 만 5 천여 메터의 면직물을 더 생산하였다.

수풍 건설 트레스트에서는 정확한 로력 기준량을 설정하는 한편 자재 소비 규정 및 각종 소모비와 간접비의 소비 기준을 저하하여 지난 4 개월 동안에 1 만 4 천 800 여 공수의 로력과 290 여 톤의 쎄멘트를 절약하였으며 강재를 비롯한 50 여 종의 유휴 자재를 회수 리용하여 466 만 7 천 여 원의 건설 원가를 저하시켰다.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 창의 고안 합리화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지난 1월부터 5월 20일까지의 기간에 42 건의 창의 고안과 선진 기술을 도입 적용하였다. 결과에 지난 4 개월 동안에 총 건설 원가를 6.7% 저하시켰다.

그러나 일부 생산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서는 사회주의적 기업 관리 운영의 고유한 원칙인 절약제가 일상적인 사업상 원칙으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낡은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의 유습인 랑비와 국가—사회 재산을 소홀히하는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우리 경제 건설 사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다.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당의 호소를 관철하기 위한 사상 동원이 미약한 일부 일'군들의 형식주의적 사업 작풍과 안일성,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조성된 이러한 사태는 인민 경제의 호상 유기적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는바 인민 경제의 많은 부문들에서는 생산물의 량적 증대에만 치중하는 나머지 그의 질을 제고하지 못함으로써 생산물의 사용 가치를 저하시키며 오작 손실의 비중이 증대되고 원가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기에 있어서의 절약제의 확립은 생산에서의 침체성과 파동성을 극복하고 제품의 질 제고, 오작 손실의 방지, 원가 계획의 완수를 위한 제 예비를 탐색 동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1.4분기 국가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소들과 경제 기관들에서는 설비 능력과 기술 력량에 적지 않은 생산 예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능숙하게 조직하지 못하고 절약제를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증산 계획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고 원가 저하를 보장하지 못하였다.

례를 들어 금속 부문의 만년, 청남 광산 등 15 개의 기업소를 비롯하여 기계 부문의 4 개 기업소, 림업 부문의 8 개 기업소, 수산 부문의 20 개 기업소들이 증산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였으며 1.4분기 계획 원가에 비하여 림업국의 실적 원가는 4.4%, 수산성은 5.2%가 초과되였으며 전년 평균 실적 원가에 비하여 석탄 공업성은 2.8%, 건재 공업국은 8%가 초과되였다.

생산 부문에서의 절약은 무엇보다도 생산 예비를 동원 리용하며 절약의 제 요인을 옳게 활용하는 데 있는바 적지 않은 기업소들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고 광범한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지 못함으로써 생산에서의 침체성과 파동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에서의 파동성은 생산 조직과 각종 기대, 설비의 불균형, 로력 배치의 불합리, 원자재의 불충분한 보장 등 제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는 바 그것은 일반적으로 월말의 돌격식 작업과 그후의 생산의 완만성을 초래하고 있다. 돌격식 작업은 기계를 혹사하며 로동자들의 피로를 가져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랑비와 오작품의 증가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생산에서의 파동성은 생산 설비의 정상적 리용을 저애함으로써 국가 계획 과제를 분기별, 월별, 일별로 완수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질 제고, 오작 생산 비중의 감소, 로임과 물자의 절약을 장애한다.

생산에서의 파동성으로 인하여 지난 3월 하순에 비하여 4월 상순에 선철은 83%, 강철은 84%, 강재는 42% 화학 비료 83%, 카바이트 40%, 쎄멘트 60%, 벽돌 58%, 견직물 98%로 각각 생산이 저하되였다.

근로자들이 결의한 증산 및 절약 과제를 동시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한 강한 조직 기술적 대책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도 사업이 미약한 데로부터 많은 기업소들에서는 다수 경우에 생산의 량적 증산에만 치중하면서 제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미약하게 진행하고 있다.

제품의 질 제고는 절약의 큰 예비의 하나이다. 보다 질이 높은 제품은 인민 경제와 인민의 수요에 더 큰 만족과 리득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여기에서 얻은 리득과 동일한 비중에서 로력, 자재, 설비의 절약을 실현케 한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투쟁은 오작 손실의 비중을 감소시키며 기업소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중요 고리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소들과 경제 기관들에서는 절약의 요인을 옳게 활용하지 못하고 제품의 질 제고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례를 들어 승호리 쎄멘트 공장에서는 2등 품종의 생산 과제는 80%밖에 수행하지 못하면서 3등 품종의 생산 과제는 225%로 수행하였으며 마동 쎄멘트 공장은 1등품은 66%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3등품은 130%로 초과 수행하였다.

그리고 만덕 광산에서는 1.4분기에 류화철 생산에서 그의 계획량을 량적으로는 완수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품위는 1월에 29%, 2월에 30%, 3월에 32%로서 국가 지표 35%를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흥남 비료 공장의 류산 생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제품의 질을 제고하지 못하며 그의 품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발로되고 있는바 매개 기업소, 경제 기관들에서는 절약의 구체적 방도를 옳게 동원 리용하여 증산과 함께 질 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또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 예비를 계속 동원 리용하기 위한 조직 기술적 대책을 취하지 않고 기계 및 설비의 휴전을 방지하며 기계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절약의 원천을 적발 리용하지 못하고 있다. 례를 들어 경공업 부문에서는 지난 1.4분기에 정방기는 256 만 기대시, 면 력직기는 37 만 기대시, 견직기는 6 만 기대시가 휴지되여 64 톤의 면사, 1,724 키로메터의 면직물, 49키로메터의 메리야스,

23키로메터의 인견직을 각각 더 생산하지 못하였다.

방대한 물자와 자금을 요하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하고 있는 오늘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작 손실의 비중이 증대되고 원가 저하와 질 제고가 보장되지 못하고 중요 물자들이 랑비되고 있는 사실은 인민 경제의 발전 템포와 규모를 촉진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장애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족점과 결함을 퇴치하기 위한 절약의 제 예비를 동원하는 한편 석탄, 강재, 전력, 목재 등 중요 물자들과 외화 절약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이 중요 물자들의 절약은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물자들은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발전을 위한 생산 및 건설과 관련되여 있으며 특히 현 시기에 이 물자들의 생산 장성이 그의 수요의 장성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데서 더욱 절실한 것이다.

특히 목재 절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목재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는 장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유 목재가 부족하며 삼림 자원이 적다. 외화 발란스가 긴장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부족되는 목재를 전부 수입에 의존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갱목, 전주, 건재 등을 비롯하여 기타 목재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쎄멘트로 대용하는 방법으로서 절약하여야 할 것이다.

절약 투쟁을 강화함에 있어서 특히 류의하여야 할 것은 외화 원천을 확장하고 외화를 절약하는 문제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외화의 확보는 국내에서 도달된 수준보다 앞서서 선진 기계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하며 또 국내에서 수요가 비교적 적은 생산물 생산을 위한 거액의 투자를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한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외화 사정은 긴장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외화 원천을 확대하고 외화 절약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회주의적 국제 분업의 유리성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현 시기 우리 나라에 조성된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문제를 자체 내부 축적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절약 투쟁에서 우선 중점적으로 실천 보장하여야 할 문제는 대략 이상과 같다.

* *

절약제를 확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약의 제 원천을 탐색하며 그의 동원 리용을 위한 방도를 옳게 설정하는 문제이다.

절약의 제 원천은 생산, 류통, 소비의 각 행정에 걸쳐 광범히 존재하고 있으며 또 그것은 인민 경제의 각 부문 및 기업소, 경제 기관들의 실정에 따라 이러 저러한 형태로 각이하게 잠재하고 있는만큼 그를 동원하기 위한 방도도 다양하며 호상 련관되여 있다.

그러나 절약의 예비는 일반적으로 인간 로동의 지출의 감소, 원료, 자재 등 로동 대상의 소비 기준의 저하, 기계, 설비, 구축물 등 로동 수단 및 로동 도구의 합리적 리용, 각종 화폐적 지출의 감소 등을 통하여 동원될 수 있으며 그의 결과로서 원가 저하가 실현된다.

원가는 생산물 생산에 대한 모든 지출의 화폐적 표현인만큼 그의 구성 요소는 다양하며 그의 저하 방도도 단순치 않다. 그러나 원가는 고정 폰드의 마멸에 이전된 가치와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원료, 자재, 연료, 전력 등의 가치와 로임 및 기타 지출을 포함하는만큼 이 모든 요소들을 체화된 로동과 산로동에 환원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절약을 위한 예비중 가장 선차적이며 중요한 것은 인간 로동을 절약할 데 대한 가능성, 즉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이다.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은 로동력의 수요를 감소시키며 생산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생산 규모의 확장, 원가 저하, 축적 증대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기업소, 경제 기관들에서는 로동 자원의 정확한 배치와 로동 조직의 합리화, 로동 행정의 기계화,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 생산 공정의 개선 등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제 요인을 옳게 활용하여 생산물의 생산 또는 작업에 소비되는 로동 시간을 최소한도로 단축시켜야 한다.

간단한 창의 고안을 통한 소규모적인 기계화를 실현하여 품이 많이 들고 힘든 로동을 헐한 로동으로 전변시키는 것은 절약의 주요 방도의 하나로 되는바 석탄, 광산, 림업 및 건설 운수 부문들에서는 경제적 조건과 기술적 수준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로동 행정의 기계화 문제를 절약 투쟁의 주요 과업으로 제기하고 이를 실천 보장하여야 한다.

절약의 또 하나의 주요한 예비는 고정 폰드의 리용의 개선, 설비 리용률의 제고이다. 기계 설비의 정지 시간을 퇴치하며 그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수리 기간을 단축하여 설비의 성능을 완전히 리용하는 것은 추가적 투자를 적게하고 생산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한다.

우리의 현존 대다수 공장 기업소들은 현대적 기술 설비로 장비되고 있으며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인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도 현저히 장성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 리용률은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계 설비의 고장으로 말미암아 소정의 로동일을 충분히 리용하지 못하는 현상도 발로되고 있다.

기업소 및 공장들에서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고 선진 기술 공정을 도입하며 기계의 휴지를 배제 및 단축하여 그의 가동률을 높이며 기계와 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고 그의 성능을 제고함으로써 설비 리용률을 높이는 것은 절약의 중요 방도의 하나이다.

절약의 또 하나의 중요한 예비는 원료, 연료, 자재 등 류동 폰드의 소비의 축소와 그의 리용의 개선이다. 원료, 연료, 자재의 절약은 생산되는 매개 제품의 단위당 소비의 비중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류동 폰드의 소비 규정을 옳게 설정하고 그를 저하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광범한 근로자들을 조직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류동 폰드의 절약과 관련하여 현 시기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원자재들에 대한 대용품의 도입, 각종 자재의 소비 기준의 저하, 그의 회수 리용, 지방 자재 및 폐설물의 리용 개선, 오작으로 인한 자재의 손실을 극력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류동 폰드의 회전률을 제고하는 문제는 절약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류동 폰드의 회전률의 제고는 보다 적은 류동 폰드로써 기업소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며 또한 그에 투하되는 화폐 자금의 지출을 축소시킨다.

이를 위하여서는 생산 과정을 단축하고 단위 제품에 대한 지출 기준을 저하시키고 원료, 재료, 등 소요 물자에 잠재하는 예비를 축소시켜야 하는바 여기에 있어서 일부 기업소 및 경제 기관들의 불필요한 물자의 보유 및 기타 과대 보유 물자의 청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물의 실현 기간의 단축과 기자재 공급 사업의 개선 강화는 류동 폰드의 회전률의 촉진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기업소들에서 계획 외의 화폐적 지출 (발금, 위약금)의 증대는 많은 경우에 기업소의 생산 조직 및 류동 폰드의 회전률이 불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출의 축소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기업소의 일체 사업 조직의 개선을 자극한다. 때문에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는 절약의 중요 수단인 독립 채산제의 강화와 기업소 호상간의 계약 규률의 엄격한 준수이다.

다음으로 절약의 예비는 온갖 화폐적 지출의 축소와 자금의 합리적 리용에 있는바 비생산적 지출 및 간접비의 축소와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의 제고는 절약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비생산적 지출의 증대는 기업소의 수익성을 제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경제적 효과성을 감소시키고 국가 축적 증대를 저애한다. 그러므로 생산

직장의 관리 부서들과 비생산 령역에서는 기구를 간소화하고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로력과 비생산적 지출을 축소하는 한편 재정 규률을 더욱 강화하여 사무비, 행정비 등 일체 비생산적 지출을 저하시켜야 한다. 이것은 자금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문제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는바 비생산적 지출의 축소로써 얻어진 자금은 인민 경제의 선차적인 부문에 집중적 투자를 보장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

절약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는 개인 소비 생활에서의 절약과 저축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하는 현 시기에 있어서 전체 인민들의 개인 생활면에서 사소한 것,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유효하게 리용하며 절약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 생활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물자와 화폐 지출을 축소시킴으로써 인민 생활 향상과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광범한 저축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저금의 성격은 자본주의 사회의 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저금은 근로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목적으로 대자본가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나아가서는 부르조아 국가 기관의 유지비와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저금은 주민들의 유휴 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그를 동원하여 나라의 번영 발전을 위한 경제 건설에 리용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기 때문에 절약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저금 형태를 통한 나라의 유휴 화폐의 동원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더우기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의 장성과 농민들의 실질 수입의 증가, 계속적인 물가 인하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수중에 유휴 화폐가 보유될 가능성이 조성되고 있으며 또 도시와 농촌에 방출된 자금의 회수가 완만한 조건하에서 저금 사업의 인민 경제적 의의는 더욱 크다. 저금은 국내 재정 자원을 동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의 하나이며 나라의 화폐 류통을 일층 강화하는 주요 수단이다.

은행 및 체신 기관들은 절약제의 확립과 관련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절약한 자금과 중 소 상인들의 일시적 유휴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저금 취급 사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절약 투쟁과 전 인민적 저금 운동에로 조직 추동하여야 한다.

*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약의 원천은 아직 동원되지 않은 예비로서 존재하는 바 이를 현실적 절약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서는 사무실적 방법이나 일시적 깜빠니야 사업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

기업소 및 경제 기관들에서 자기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절약의 구체적 방도를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사회주의적 기업 관리 운영 방법인 독립 채산제를 옳게 결부시키는 기초 우에서 일부 경제 기관들과 기업소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형식적이며 무계획적인 지도 방법과 관료주의적, 주관주의적 사업 작풍을 퇴치하고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킴으로써 절약제를 확립하는 투쟁에 생산 혁신자들과 기술자들을 광범히 인입하여야 한다.

생산 발전의 주요 측면의 하나인 절약제의 강화는 근로자들의 절약 과제를 대중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증산 경쟁 운동의 심화 발전에 크게 달려 있다. 당 단체들과 경제 지도 일'군들은 절약을 위한 선진 로동자들의 제의를 지지 방조하며 증산 경쟁 의무 조항에 구체적인 절약 목표를 설정하여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최대한의 증산——이 구호는 이미 광범한 근로 대중에 파악되여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고 있다. 그러나 증산의 전제 조건이며 그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는 절약을 위한 투쟁은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인민 경제의 발전 추세는 생산 령역에서나 비생산 령역에서나를 막론하고 적은 지출로써 더 많은 생산을 내며 내부 원천과 생산 예비를 적극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절약을 위한 사상 동원이 아직 미약하며 특히 건설 부문과 비생산 부문에서의 절약 투쟁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절약은 자금, 로력,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애하는 탐오 랑비 현상을 반대하며 증산의 가능성과 원천들을 탐색 동원하기 위한 창조적 사업이다.

랑비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절약의 고리가 어데 있는가를 밝혀 내려면 보다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로서 곤난과 애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절약을 위한 투쟁은 새것을 조장 발전시키고 낡은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의 유습을 반대하는 사상 투쟁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당 단체들은 일'군들 속에서 계급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해설 침투시키며 현 시기 절약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자각적으로 절약을 위한 투쟁에 궐기하도록 사상 동원 사업과 정치 조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엄격한 절약제의 확립——이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전투적 과업이다.

당, 국가 및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과 광범한 근로 대중은 일치 단결하여 엄격한 절약제의 확립을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실천과 인식

주 용 목

인식, 리론과 실천과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는 전체로서의 맑스주의 과학, 특히는 맑스주의 인식론의 근본적 문제의 하나이다. 맑스주의는 인식, 리론과 실천을 불가분적 통일과 상호 작용에서 관찰하여 실천을 이 상호 작용의 결정적 측면으로, 기초로 간주한다. 맑스주의에 있어서 모든 인식 또는 리론은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실천은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다.

맑스주의는 객관적 세계에 대한 가인식성을 거부하거나 실천에 대한 온갖 관념론적 외곡을 반대한다.

모든 관념론적 류파들은 의식이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식 대상인 객관적 현실 자체를 거부하며 인식에 대한 실천의 결정적 역할을 도외시하며 심지어 실천을 인식론의 령역에서 배제하거나 혹은 실천을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정신적 인간의 활동으로 고의적으로 외곡한다. 그들은 소위 《순수한 정신적 의지적 활동》만을 진정한 실천으로 보며 또는 인간 활동의 목적 의식적 측면을 경시하고 다만 인간 활동의 물질적 측면 만을 실천으로 보려고 한다. 실천에 대한 그 모든 관념론적 외곡들은 오직 맑스주의에 의해서만 완전히 극복되였다.

맑스 이전의 형이상학적 유물론자(포이엘바하도 포함한)들도 비록 그들이 인식의 대상을 객관적 현실이라고 정확하게 인정하였으나 사회 력사에 대한 견해에서는 여전히 관념론적 견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인식과 실천과의 호상 관계를 정확하게 리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인간의 인식을 사회 력사적 관계로부터 분리시켰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실천에 대한 인식의 의존 관계, 즉 생산과 계급 투쟁에 대한 인식의 의존 관계를 리해할 수가 없었다.

오직 맑스주의만이 인식을 사회적 실천과 련관시키며 인식 과정에 있어서 실천이 노는 결정적 역할, 실천에 대한 인식의 반작용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인식 과정에 변증법을 적용함으로써 인식을 가장 과학적으로 리해하게 하였다.

인식과 실천과의 호상 관계에 관한 맑스주의적 리해는 실천에 있어서의 인식, 리론의 역할을 제고하며 인식, 리론 자체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 방법, 령도 방법 및 사업 작풍 등등을 개선함에 있어서도 거대한 도움을 준다.

⁂ ⁂

인식의 근원으로서의 사회적 실천, 그것은 사회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건을 창조하는 인간 활동의 총체이며 세계를 변혁하는 인간의 활동,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 활동과 계급 사회에서의 계급 투쟁이다.

인류는 아직 자연 법칙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을 가지기 전에 벌써 자연을 개조하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론증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행동하고 있었다. 인간의 실천 활동은 어떠한 곤난을, 인간의 지혜가 그것을 생각해 내기 훨씬 전에 벌써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실천은 이와 같이 인간의 인식, 의식보다 먼저 존재하였으며 의식, 인식은 오직 인간의 실천 행정에서 만 발생 발전할 수 있었다.

실천 활동 행정에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외부 세계의 사물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사물의 일면 및 그 외부적 련계를 인식하는 감성적 인식 단계를 경과하게 된다. 이 단계는 비록 심각한 개념을 조성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객관적 사물을 인식하는 기초로 된다.

사회적 실천의 반복 및 가일층의 발전 행정에서 사람들은 감성적 지각을 일으킨 현상들을 반복 경험하게 되며 이리하여 인간의 의식상에서는 인식 과정의 비약이 일어난다. 즉 개념이 형성된다. 실천 활동의 발전은 이렇게 인간의 감성적 인식을 리성적 인식에로 제고시킨다. 리성적 인식 단계는 인식 발전의 높은 단계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사물의 비본질적 측면을 버리고 그의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것, 사물의 내부적 련계를 인식한다.

감성적 재료들에 대한 일반화는 매개 력사적 단계에서 도달된 인간의 실천적 및 지'적 활동의 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시초에 사람들은 가장 단순한 개념들 만을 창조할 수 있었다. 오직 실천 및 지'적 활동의 오랜 발전 과정을 통하여서만 보다 더 복잡한 개념, 리론을 창조할 수 있었다.

력사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공업 기술의 발전은 물리, 화학, 천문학 등의 자연 과학 발전의 기초였으며 17—18 세기의 자연 과학자들이 축적한 지식과 영국의 목축업자 및 원예가들이 축적한 실천적 경험은 다윈주의의 발생의 기초였다. 19 세기 40년대 이전의 과학 실천이 축적한 풍부한 지식과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전,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간의 모순의 첨예화, 그리고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의 실천은 맑스주의 발생의 기초였다.

인간의 인식 발전은 이와 같이 실천 활동과 밀접히 련계되여 있으므로 인식의 심오성과 풍부성은 실천의 다양성과 풍부성에 의존한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인간의 실천 활동이 발달하면 할 수록 자연 및 사회의 합법칙성에 대한 인간의 인식도 역시 더욱 심각해 진다. 자연 및 사회의 부단한 변화, 발전은 인식의 부단한 변화, 발전을 촉진시킨다.

그런데 계급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실천은 계급적 실천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생산에서의 그의 지위, 계급적 처지에 따라 서로 실천의 목적을 달리하며 외부 세계를 반영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다르게 반영한다. 각이한 세계관의 존재, 이것은 각이한 실천의 산물인 것이다. 때문에 인식, 이데올로기의 심오성 여부는 결국 그 이데올로기의 발생 발전의 기초로 되는 당해 실천 활동이 사회 발전에서 노는 역할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결정된다. 례컨대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혁명성과 심오성은 생산력의 무한한 발전, 계급 사회의 전복과 무계급 사회 건설에 절실한 리해 관계를 가진 로동 계급과 그의 전위 당의 혁명적 실천 투쟁에 의하여 규정된다.

실천은 과학적 연구 및 지'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들을 보장해 준다. 공업과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적 실천이 자연의 복잡한 과정들과 그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재료들을 제공하여 준다면 혁명 투쟁의 실천은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기 위한 재료들을 제공하여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주로 로동 계급과 그 전위 당의 혁명적 실천에서, 대중들의 혁명적 투쟁 경험에서 도출하였으며 또 도출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에로의 인류의 전진 운동은 해명을 요구하는 보다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는 과학 발전을 위한 무궁 무진한 원천으로, 추동력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적 실천의 승리적 전진은 오늘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사회 과학,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들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풍부한 재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실천은 이와 같이 인식의 원천으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인식은 만약 대중의 생산 활동과 혁명 투쟁에 침투하여 그들과 호

흡을 같이 함이 없이는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현실의 진실을 반영한 정확한 인식으로 될 수 없다. 인식이 주관적인 것으로 독단으로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인식, 즉 진리로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 실천적 경험들을 일반화하는 길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인식 과정이 현실, 실천에 접근하는 것이 부족하면 할 수록 그것은 진실을 반영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은 물론 피할 수 있는 오유들을 더욱 많이 범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우리의 선전 사업과 또 일부 일'군들의 지도 사업에서 볼 수 있는 주관주의적 편향들과 오유들, 즉 교조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오유들의 근본 원인은 대중, 실천으로부터의 유리에 있으며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주밀하고 진지하게 하는 노력이 부족한 데 있다.

일부 사람들은 오늘 외국의 경험을 심각히 연구 분석하지도 않고 우리 나라의 주 객관적 정세에 맞건 맞지 않건간에 우리 나라에 적용하자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창조나 발전이 보잘 것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하여 놓은 거대한 혁명적 실천을 경시하려는 현상들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쥐꼬리 만한 지식, 그것도 극히 불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대가 연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관점과 방법의 기초 우에서 작성된 당의 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의 인식론적 오유는 감성적 인식이 리성적 인식의 기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리성적 인식은 감성적 인식의 기초 우에 립각하고 있으며 감각이 제공한 풍부한 재료들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한 결과에 형성된다. 리성적 인식이 감성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관념론자이다. 리성적인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근원이 감성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리성적인 것은 오직 주관적인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리성적 인식은 감성적 인식에 의존하며 감성적 인식은 리성적 인식에로 발전한다. 이것은 곧 맑스주의적 인식론이다.

리성적 인식이 감성적 인식에 의존한다는 것은 인식이 실천에 의존한다는 기본 원칙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인식이 실천에서 산생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리성적 인식이 감성적 인식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식 과정의 이 두 단계는 서로 분리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기초 우에 통일되여 있으며 호상 이행한다. 이것을 분리시켜 사물을 고찰한다면 불가피적으로 편견을 가지게 되여 주관주의, 즉 교조주의 혹은 경험주의에 전락되고 마는 것이다.

오늘 일부 사람들 속에 있는 교조주의적 편향은 리성적 인식만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진정한 지식은 오직 리성적 인식에서 만, 즉 맑스—레닌주의의 명제들에서 만 산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감성적 인식, 대중들의 직접적 경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실천을 경시하며 또 실천을 모르며 그것을 연구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감각적 경험을 경시하게 된다.

어떤 나라의 교조주의자든지 그 본질은 같다. 교조주의자들은 모두 객관적인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욕망으로부터, 책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들은 실천을 경시하며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조사 연구에도 주의를 돌리지 않으며 대중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연구하며, 생활 실천의 밖에서 연구하며 그것을 하나의 교리로 전화시킨다. 교조주의자는 마치 엉터리 의사와도 같이 다만 많은 약 처방만을 기억하고 병자의 증세는 살펴 보지도 않고 주관주의적으로 처방을 내여 약을 지어 《만병 통치》를 망상하는바 그 결과로 《엉터리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교조주의는 우리 당의 사상, 맑스—레닌주의 사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그것이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현실, 실천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이며 일반적 법칙들 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주체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위대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맑스주의 리론을 그 어떠한 완결되고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는 결코 보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만일 생활에서 락후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모든 방면에서 가일층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 과학에다 초석을 놓았을 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로씨야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맑스주의 리론의 독자적 연구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이 리론은 영국에 대해서는 불란서에 대해서와는 다르게, 독일에 대해서는 로씨야에 대해서와 다르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지도적 명제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집, 4권, <2> 조선문판, 31—32페지).

⁂ ⁂

실천의 기초 우에서 발생 발전하는 인식, 리론은 피동적이여서 실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발생하면 실천에 대하여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여 주며 실천에서 제기되는 의문을 풀어 주며 사업의 전망, 사업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 주는 등등 실천에 대한 지도적 지침으로서 능동적으로 반작용한다. 실천이 과학적 인식, 리론에 의하여 지도될 때 비로소 목적 지향성을 띠게 되며 성공적으로 외계를 인간의 의사와 욕망에 복종시킬 수 있게 된다. 혁명적 리론이 없이는 혁명적 실천도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에 있어서도 생산력의 위력한 발전은 언제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의거함으로써만 가능하였으며 또 가능하다.

전 세계 로동 운동의 실천적 경험의 일반화인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사회 발전의 실천적 요구로부터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무계급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의 실천에 기초하여 발생한 이후 로동 계급과 그의 전위대인 공산당, 로동당들의 행동의 지침으로서 착취의 폐절과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적 자유를 위한 전체 진보적 인류의 투쟁에서 백전 백승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위력의 원천은 그가 객관 세계,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그의 발전 법칙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과학적, 창조적 성격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의 혁명적—실천적 성격에도 있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에 있어서의 리론과 실천의 불가분적, 유기적 통일의 첫째 측면이, 그 리론이 실천을 기초로 하는 데 있다면 그의 둘째 측면은 바로 리론이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에 있다. 세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며 리론을 위한 리론을 표방하는 모든 관념론적, 형이상학적 철학들과 리론들의 무력성은 그것이 실천에 기초하지 않으므로써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 실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바로 거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것은 물론 력사상에서, 례하면 말사스주의와 같은 허다한 반동적 리론들이 인민을 반대하는 착취자 계급들에게 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늘 제국주의 반동들과 그 이데올로그들이 조작해 내는 반동적 리론들이 제국주의적 침략과.전쟁에 복무하지 않으며 복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동적, 허위적 《리론》들은 대중이 착취자들의 영향으로부터 사상적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한 그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식, 리론이 그 성격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본성에 있어서는 실천에 복무하는 것임을 증명해 준다. 오직 관념론적 외곡만이 《리론을 위한 리론》,《지에 대한 갈

망》으로부터의 지식을 운운할 따름인 것이다.

그러면 인식, 리론은 어떻게 실천에 복무하는가?

외부 세계, 객관적 현실을 개조 변혁하며 력사를 창조하는 인간의 실천은 그의 의식에 의하여 향도되며 지도된다. 인식의 결과로서의 의식, 리론이 과학적 선진적이고 진리를 표시하면 할 수록 그것은 사람들을 실천에로 고무 추동하며 그 실천에 목적 의식성을 부여하며 실천을 향도 지도하여 소기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혁명적 리론이 없이는 혁명적 실천도 있을 수 없다.》《리론은 대중을 파악하자 물질적 힘으로 된다》고 한 명제들은 바로 실천에서의 리론의 역할을 명시해 주는 것이다. 쓰딸린은 리론의 역할을 항해하는 배의 라침판에 비유하였다. 이와 같이 인식, 리론은 실천과 결부됨으로만 거대한 물질적 력량을 가지며 객관적 세계를 개조하는 실천 사업을 촉진시킨다.

인식, 리론이 실천을 방조하며 실천에 복무함이 없다면 그것은 필요 없는 스콜라적 공담, 정력의 랑비에 지나지 않는다. 리론은 오직 실천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일견 현실 생활과는 유리된 듯이 보이는 연구들, 천문학적, 고고학적, 철학적, 연구들도 직접 간접으로 인간 생활, 인간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인식의 목적은 실천에 있다. 우리는 이미 실천은 인식의 기초이며 따라서 인식, 리론 사업, 연구 사업이 실천에 침투하고 실천의 립장에 견결히 서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인식, 연구 사업이 실천에 침투하고 실천의 립장에 튼튼히 서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의식적으로 실천에 복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야 만 가능하다. 의식적, 사상적으로 실천에 복무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함이 없이는 실천적 립장에 서서 인식하며 연구한다는 것은 형식주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인식, 리론은 그것이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실천자의 립장에 서는 경우에만 형식주의, 교조주의 등등의 오유들로부터 벗어 나는 것을 가장 잘 보장 받는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항상 현실적 문제, 실천적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리론을 창조하였고 발전시켰다. 종래의 철학자들은 오직 세계를 여러가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데 있다고 한 맑스의 유명한 명제는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혁명적, 실천적 본질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식, 리론의 목적은 실천이라는 사상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이러한 실천적 성격은 맑스주의가 존재하는 백여년의 력사를 통하여 로동 계급과 공산당, 로동당들의 실천적 활동 및 맑스—레닌주의 리론 자체의 부단한 발전, 풍부화에서 구현되고 있다.

리론은 실천을 목적으로 하며 직접 간접으로 실천에 복무하는 것인만큼 사상 리론의 순결성을 보장하며 리론적 외곡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실천을 위하여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맑스주의 발생 이후 전 세계 로동 계급과 진보적 인류를 위하여 유일하게 정당하고 전체 포괄적인 리론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리론뿐이다. 맑스—레닌주의 존재의 전체 력사는 일면 온갖 종류의 관념론적, 수정주의적 외곡을 반대하여 자체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였다.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리론에 대한 온갖 침해와 외곡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 속에서만 혁명적 실천은 성과를 보장할 수 있었다. 맑스주의의 창시자들이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그 당들은 전술적으로는 양보할 수 있으나 리론적 문제에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된다고 한 교시는 심각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대한 외곡과 수정주의적 경향이 어떠한 기회주의의 진흙탕에로 굴러 떨어지며 혁명적 리론의 순결성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의 불철저성이 반혁명의 대두를 위하여 어떠한 좋은 지반을 조성하여 주는가 하는 것은 제2 인터나쇼날과 로씨야의 멘쉐비크들의 력사, 특히는 최근의 웽그리야 사건이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과 그 당들이 혁명적 리론의 순결성을 위하여 언제나, 그리고 오늘 특히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하는 것은 오직 실천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또 필수적인 것이다.

리론과 실천의 불가분리적 통일을 자기 활동의 근본 원칙의 하나로 삼는 조선 로동당은 인식, 리론, 과학 사업이 반드시 실천적 과업들과의 밀접한 련관하에서 진행되며 직접 간접으로 실천적 목적에 복무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과학 연구 사업과 교수 교양 사업이 반드시 당이 해결하려는 현 시기의 과업, 즉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특히 제1차 5 개년 계획의 실천적 과업들과 밀접히 련관시켜 진행할 것을 전체 학자들과 교육자들 앞에 요구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조국 해방 전쟁의 불'길 속에서 개최된 과학자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바로 당의 이 리념을 전체 과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과학 연구 사업이 낡은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실천, 생산과 분리되여 진행되는 편향들과 특히 생산의 절박한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인민들의 생활과는 리탈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아무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일부 과학자들의 헛된 노력을 비판하면서 《리론과 실천과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함이 없이는, 그리고 과학 일'군들과 생산 일'군들의 창조적 협동이 없이는 과학 기술의 진보는 불가능합니다. ……과학 일'군들과 생산 일'군들의 창조적 협동은 과학 연구의 성과와 과학적 발견을 인민 경제에 적용하는 일을 쉽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협동은 때때로 제기되는 생산 요구에 대응한 과학 활동의 옳바른 길과 방향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론과 실천과의 련계의 훌륭한 방법은 생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과학 자체에 대하여서도 귀중한 리익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선집 4권, 143—144페지)라고 교시하였다.

전체 과학 일'군들은 인식, 과학의 목적은 실천이며 인식, 과학은 실천 발전의 기초 우에서 만 발전할 수 있다는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를 깊이 명심하고 인민 경제의 각 부문 사업과 적극적으로 밀접한 련계를 맺고, 례하면 기업소들의 기술 회의에 참가하여 생산 혁신자들과 함께 새로운 로동 방법과 과학적 방법들, 새로운 형태의 생산 조직들을 토의 연구하며 새로운 기계, 도구, 기구들을 함께 시험하며 과학 연구 사업 계획을 생산 일'군들의 토의에 부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근세 조선의 진보적 유물론적 사상 조류인 실학파는 실사구시, 즉 객관적 사실을 연구하여 거기에서 옳은 것, 즉 진리를 찾으라고 주장하면서 학문이 생활, 실천에 복무할 것을 매우 강조하였다. 박 연암은 《글을 읽고서 실용을 모른다면 학문이 아니며, 학문이 귀한 것은 그의 실용에 있다》고 말하였으며 정 다산은 《진정한 학자는 인민을 평안하게 하며 외적을 물리치며 재정을 넉넉하게 하며 과학과 군사에 능통해서 무엇이든지 담당할 수 있도록 되여야 한다. 어찌 글'구와 글'장을 찾아 내거나 벌레와 물'고기의 이름에다 주석을 다는 것을 일삼으며 예'날 옷을 입고 절하는 법을 익힐 따름이겠는가? 백성의 일상적 실용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지적들은 학습 및 학술적 연구를 오직 자기의 개인적 취미나 지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하는 무위 도식하는 당시의 지배 계급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며 절실한 교훈으로서 오늘날에 있어서 그의 선진성은 더욱 빛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선조들의 사상이 아직 대중의 재산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연구 사업이 생활, 실천과 유리되고 있었다는 것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인식의 목적이 실천에의 복무에 있다는 사실은 인식, 과학 사업에 대해서만 실천과의 련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또한 실천 자체에 대해서도 리론 과학과의 련계를

요구한다. 리론의 지도가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며 자연 생장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은 사회주의적 리론의 지도 없이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으며 피압박 인민들, 계급들의 모든 해방 투쟁도 선진적 리론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만 승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로동당의 지도하에서의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의 력사는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 리론과 우리 인민의 실천 활동의 창조적 결합의 력사이다.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의 완수 및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모든 투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만, 우리 나라 현실에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만 비로소 가능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실천을 능숙하게 결합시키고 있는바 이것은 우리 혁명의 매개 단계에서 수립된 당의 정책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혁명 발전의 객관적 추이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작성되는 우리 당의 정책은 언제나 우리 사회 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들의 근본적 리해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으며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인민들의 혁명적, 혁신적 력량을 새 사회 창조를 위한 투쟁에 고무 추동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인민들은 과학적으로 작성된 우리 당의 정책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하면서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바 이는 실로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튼튼한 담보인 것이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 개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고 제1차 5 개년 계획의 첫해인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에서 발현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거대한 창조적 적극성의 앙양은 우리 당 정책의 정확성, 그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흘러 나온 인민들의 자각적 열성의 표현이다.

리론과 실천의 통일의 원칙에 립각하면서 당은 언제나 생산자, 생산 관리자 자체의 과학 기술의 습득, 리론적 무장이 인민 경제 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며 주요한 담보로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지도 일'군들 자신이 해당 부문에 대한 경제, 기술 지식을 소유함이 없이는 그의 정책을 구체적 실정에 알맞게 실현할 수 없으며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생산자——사회주의 건설자들 자체의 과학 기술 수준과 정치 리론 수준을 제고함이 없이는 인민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되는 선진적 생산 혁신자들의 대렬을 확대할 수 없으며 그들을 통해서 전체 인민 경제 령역에 새로운 선진적 기술을 신속하게 창조적으로 도입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실천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식의 결과로서의 의식, 리론이 실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작용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건설 행정은 사회주의적 의식, 리론, 경제—기술적 지식의 향도적, 지도적 역할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자기의 전문 부문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 현실, 실천 활동과 긴밀히 련관시켜 소유하는 것은 새 사회의 건설 도상에 나선 우리들의 실천 활동에서 성과를 달성하는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리론과 실천, 과학과 생산과의 련계를 가일층 강화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과학 수준을 가일층 제고하는 불가결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혁명 과업, 즉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과업, 특히는 제1차 5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미제는 조선 침략에서 종교를 어떻게 리용하였는가

김 희 일

현대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종교는 그 사회적 본성으로 보아 억압의 도구로 되며 교회는 근로 대중의 노예화에 복무하는 기구의 구성 부분으로 된다. 여기에서 모든 종교와 교회들, 온갖 종교 단체들은 착취의 옹호 및 로동 계급의 마취를 위하여 부르죠아 반동에게 리용되고 있다.

동시에 부르죠아지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교회들은 민족적 억압의 수단으로서도 사용되게 되는바 자본은 타 민족과 인민들을 략탈 지배하기 위한 침략의 사상적 및 실천적 무기로써 종교와 교회들을 리용하고 있다.

종교는 총체적으로 침략의 전반적 리익에 복종하지만 그 역할은 침략이 전개되는 력사적 행정의 각이한 단계에 따라 구체적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바 그 특성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타국에 대한 식민지화를 목적한 예속화 정책의 실현 행정에서 종교는 그들의 침략적 정책과 행동을 음폐하는 사상적 병풍으로서 리용되며 교회와 선교사들은 침략 실현을 위한 정책 수행에서 적극적 요소로 행동하게 된다. 다음으로 식민지적 지배가 확립된 조건하에서 종교와 교회는 《신이 제정한》 식민지 제도의 《영원성》을 설교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해방 투쟁을 억압하고 식민지 노예의 운명에 대한 굴종과 정복자에 대한 순종을 배양하는 식민주의의 유력한 사상적 지주로 전화된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는 식민지 기반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전취한 인민들에 대하여 새로운 식민주의의 멍에를 강요하려고 발악하면서 종교와 교회를 보다 광범히 리용하게 되는바 여기에 있어서 종교와 교회들은 새 사회를 건설하고 자기 생활의 주인으로 되려는 인민의 의지를 마비시키며 제국주의적 착취와 억압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파괴, 중상, 정탐 활동의 도구로 리용되게 된다.

지나간 한 세기에 걸친 동방에서의 력사 행정, 특히 미제의 조선 침략의 전 력사 행정은 침략의 리익에 복무하는 종교의 이상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극히 명백하게 실증하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공화국 남반부를 계속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는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발악적 음모와 흉계에서 계속 종교를 리용하려 하는 책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음흉한 식민지 노예화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교를 어떻게 리용하여 왔으며 또 리용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리해하는 것은 원쑤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전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책동이 로골적인 침략성과 야수성을 가지고 진행된 그 침략의 바로 첫 시기(1866년—1871년)로부터 매개의 침략 행동들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종교——기독교 부식 공작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없었다.

비렬한 무장적 침략 행위로 끝마친 이 시기에서도 그들은 침략의 도구로서 종교를 필요로 하였다. 그들은 군함을 《복음의 사도》로 위장하고 신자들을 침략의 길 안내자로 삼으며 나아가서는 신자들에 대한 주권 당국의 금압을 침략의 구실로 리용함으로써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보다 용이하게 실현하려고 기도하였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자본주의적 침략의 선도자였으며 도구였다. 극동의 미국 선교사들이 동방 민족을 예속시키는 침략 정책이 성공할 때마다 《미 국기가 극동에서 휘날리는 데 대하여 선교사들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J.H 라탄 《미국 극동 정책사》 뉴욕, 1940년, 17페지)라고 《엄숙하게》 성명하고 있는 것은 소위 선교 활동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말하여 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기독교 포교 사업의 효시는 1866년 《샤만 장군》호 사건과 관련되여 있다. 강탈을 목적으로 하여 조선에 처음으로 침입해 온 이 미국선은 선교사 토마스를 대동하고 들어 왔는바 그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의 야소 성교(耶蘇聖敎)는 천도를 체(体)하고 인심을 바로 잡고 사속(邪俗)을 고치고 무릇 사람을 인의 충효(仁義忠孝)로 겸비케 한다》(《고종 실록》, 권지 3, 병인 4월 18일 조) 라고 설교하면서 신약 전서(新約全書)를 각지에 살포하였다. 그러나 침략자들이 설교하는 교의의 위선성과 허위성은 그들 자신이 감행한 전례 없는 비행——부녀자들에 대한 릉욕, 재물의 강탈, 무고한 인명에 대한 야수적 살육 행위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기독교 연구 전문가 윌리암 하윗트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였다. 즉 소위 기독교 인종이 타 종족에게 가한 《잔학과 철면피한 폭행은 세계 사상의 여하한 시대에 다른 여하한 인종이 행한 잔학, 폭행과도 비교할 수 없이 심한 것이다》(《자본론》 제1권, 1951년, 755페지 참조)라고. 이 말은 《샤만 장군》호 사건을 통해서 표현된 조선사의 일단편에서도 완전한 확증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전의 일부 기독교도들은 인민의 손에 의해서 처단된 토마스를 고상한 《순교자》로 흠모하면서 평양에 토마스 기념관까지 세우고 《샤만 장군》호의 사명을 《천사의 래림》으로서 찬송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웃지 못할 사실은 사람에게서 건전한 사고력을 거세하고 숭미주의의 맹목적 의식만을 주입시키는 미국식 종교 선전의 해독성에 대한 간과할 수 없는 교훈으로 된다.

미국 침략자들은 1868년 군함 《쉐난도아》 호의 침입시에도 신약 전서와 마가전 복음서(馬可傳福音書) 등을 조선 사람들에게 투급하는 방법으로 포교를 진행하였다. 동년에 주중(駐中) 미국 당국이 조선에 예속적 조약을 강요할 목적 밑에 조직한 충청도 덕산(德山) 소재 남연군(南延君) 묘 도굴 원정에서는 충청도 지방 천주교도들을 원정의 길 앞잡이로 리용하였으며 자기들의 전고 미문의 악랄한 강도 행위를 국제 여론 앞에서 정당화하기 위하여서는 원정이 조선에 《신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고상한 리념》으로부터 출발한 비상 수단이였다고 파렴치하게 떠벌리였다. 미국인들이 그의 부식을 위하여 무척 노력하고 있는 소위 《종교》와 《신앙》이 침략의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는 이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 침략자들은 1871년 미국 극동 함대의 조선에 대한 무력 침공 (신미 양요) 시기에도 경기도 지방 천주교도들을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에 의례이 리용하였다. 미국 함대가 물류도 (勿淄島) 근거지에 포진하고 있는 기간, 미국인들은 조선 천주교도들로부터 부단히 조선의 국내 정치, 군사 정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으며 그들을 통하여 국내에 요언을 류포시키고 인심을 동요시킴으로서 조선 정부의 강경한 항전 태도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였다. 조국을 반역하는 길에 들어선 일부 천주교도들은 무력 침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조선병은 로약자(老弱者)수천명에 불과하다》는 허위적 정보를 제공하는 매국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고종 일성록》 신미년 5월 갑진 조)

조선 인민의 영웅적 항거에 의해서 미국의 무력 침공이 수치스러운 참패로 돌아간 후 미국은 무력으로써 조선을 정복할 야망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미국 자본주의 발전의 주 객관적 제 조건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지난 세기 70년대 이후 미국의 극동 침략 정책은 장래의 새로운 대규모적 팽창을 위한 준비 시기로 이행하게 되였는바 그 시기 이후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도 장래의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준비 시기로 들어 가게 되였다.

미제의 조선 침략사에서 새 시기를 열어 놓은 1882년의 조, 미 수호 통상 조약은 미국 자본의 조선 침략을 위한 그와 같은 준비의 가능성을 보장한 것이였다. 그 시기 이후 미국인들은 교묘하게 조선의 《친우》로 가장하고 더욱 더 교활한 방법으로 조선 내에 미국 세력을 부식하고 경제적 리권을 략탈하기 위한 간계를 꾸미게 되였다. 이 시기에 특징적인 것은 침략의 주되는 방법이 지난 시기의 무력적 형태를 대신하여 종교—문화적 형태를 취하게 되였다는 사실이다.

1882년 조, 미 조약 체결시에 간교한 미국인들은 조선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조약에 포교의 자유에 관한 것을 삽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후 1884년 10월에 동 조약 제14조의 최혜국 조관(最惠國條款)에 의하여 외국인 거류지에서의 신교와 례배당 설치의 자유를 규정한 조 영 및 조 독 조약 (1884년 4월 비준 교환)에 균점(均霑)할 것을 허여받으므로써 조선에 기독교를 자유로이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게 되였다. 그후 미국은 1885년 4월부터 장로 교회계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 교회계의 선교사 아펜셀라를 필두로 하여 꼬리를 물고 들어 보내기 시작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조선에서 처음으로 공공연하게 주민들 속에서 기독교 전파 사업을 시작하게 되였다. 미국의 북장로 교회는 1885년 이래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1893년 이후는 평안도 일대에서 포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북감리 교회는 1885년 이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에서, 남감리 교회는 1895년 이후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 포교 활동을 맹렬히 전개하여 조선에서의 기독교 전파를 위한 거의 독점적 지반을 닦아 놓게 되였다.

조선에 들어 온 미국 선교사들은 자본가들의 기증으로써 이루어진 재단(財團)인 동양 선교회가 매년 대대적 광고를 내여 동양 각국에 파견한 침략의 개척자—선교사들을 광범히 모집하는 데 응모하여 나선 룸펜, 협잡군, 모리배들로써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간판을 가지고 침략 정책 수행의 주력자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미국 선교사들이 침략 정책 수행의 주요 담당자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미국의 위정자 자신들, 례컨대 1889년—1892년 기간에 국무 장관으로 재임한 포스터까지도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는 19 세기 중엽까지의 외교, 특히 동양에 대한 외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존재였다. 그들이 동양에서 유력한 활동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와이에 대한 침략에 있어서도 일찍부터 각종 사업에 관계하면서 미국의 하와이 합병의 토대를 만들었다》 (J. W. 포스터 《동양에서의 미국 외교》 보스톤, 1903년, 529페지). 바로 조선에서도 그들은 각종 사업에 관계하여 미국의 조선 침략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복무하였다.

조선에 미국 세력을 부식하기 위한 주요한 방도의 하나는 《예수의 복음》을 미끼로 미국을 《복음의 사도》로 선전하여 주민들에게 숭미 사상을 고취하는 것이였다. 기독교 전도를 시작한 이후 미국인들은 조선 왕실에 대한 《친우적》 지위와 강국의 압력으로써 점차 공공연하게 교회를 증가하여 갔으며 1888년 4월에는 조선 외무 당국 (교섭 통상 사무 아문)이 미국 공사에게 비법적 전교에 항의하는 각서를 수교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일 전쟁 직후의 아관파천을 전후하여 조선에 들어 오는 선교사 수는 격증 일로를 걷게 되였다. 이에 따라서 조선인 신자수도 점차 증가되여 갔으나 그들 중의 대다수는 순수한 신앙으로써 기독교를 신봉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미국인의 권세를 등지고 그와 결탁하여 일확 천금하거나 립신 출세하려는 사회의 쓰레기들이였다. 이에 대하여는 부르죠아 사가인 문 일평(文 一平)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당시 한인(韓人)의 신교하는 리면에는 선교사의 위세를 빌리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중에는 정치 관계나 태서(泰西) 학술로 해서 입교하는 것도 있고 진정한 신앙으로써 귀의(歸依)하는 이는 이른바 봉모 린각(鳳毛麟角)과 같이 희귀하기 짝이 없었다》(《호암 전집》 제1권, 서울, 1940년, 218페지).

그러나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신앙》은 문제가 아니였고 다만 《미국에 대한 신앙》만이 문제로 되였다. 미국인들은 교회의 영향을 강화하고 《미국의 자선》에 대한 환상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조선 사람들이 근대 문명에 생소한 것을 기화로 교회에 부속된 근대식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1885년 서울에 설립된, 미국 선교사 알렌이 주관하는 병원 《광혜원(廣惠院)》의 창립을 출발로 하여 미국 교회가 설립되는 곳에는 대체로 이와 함께 학교와 병원들이 서게 되였다. 그런데 이 선교회 설립의 학교들의 주목적은 선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들에서는 각반 교과목들 중에서 《성경》 과목이 가장 중요한 교과목으로 되였다. 학교는 례배당과 다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자제들을 입학시킨다는 것은 동시에 그들을 예수교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극악한 인민의 반역자 리 승만 따위의 매국노가 이런 학교에서 길러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이 병원에서 시료를 받을 기회를 준다는 것은 동시에 그에게 예수교인으로 될 기회를 주며 《하느님과의 인연》을 맺어 주는 것이였다.

이와 같이 미국인들은 침략의 도구로서 얼마간의 기독교 계통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여 마치 미국이 조선을 문화적으로 개화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와 아울러 그들의 조선인 앞잡이들인 정동(貞洞)구락부와 기독교 청년회 등을 사촉하여 미국의 문화와 생활 양식의 《우수성》을 널리 선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각성과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 속에 노예적 숭미 사상을 배양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종교의 탈을 쓴 미국의 침략의 마수는 왕실과 통치 계급에도 뻐치이게 되였다. 미국은 조, 미 조약 제1조에 조선에 대한 《우호적 원조》를 줄 데 대한 자기의 《의무》를 명문으로써 삽입하고 마치도 미국이 조선의 운명, 조선의 정치적 독립 및 령토적 안전을 유지하는 데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조선의 통치 계급 상층부를 손쉽게 자

기 영향하에 복종시키게 되였다. 우매한 조선의 통치 집단이 어떤 정도에까지 미국식 선전의 포로로 되여 있었는가를 말하여 주는 하나의 실례를 보기로 하자. 로, 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인천 해상에서의 함포성이 경운궁(慶運宮)영창문을 진감시키면서 망국의 위기를 고하고 있을 때, 《조선은 무슨 리유로 그가 선언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며 일본이 조선의 중립과 독립을 침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고종(高宗)의 한 측근자는 《우리들에게는 미국의 약속이 있다.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던지 간에 미국은 언제나 우리들의 친우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피력하였다. 고종 자신은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우리들은 미국이 우리들의 형인 것같이 생각된다》라고.(M,F 넬손 《조선과 동아의 구 질서》뉴욕, 1945년, 252 페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종 황제나 그의 측근자가 미국을 《형》으로까지 신봉하게 되였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들에게 맹목적 숭미주의를 주입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였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인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당시 (80년대 이후—필자)조선은 자기들의 튼튼한 후원국을 물색하였던 것이였다. 그 물색의 결과로 미국을 택하니 그것은 미국이 먼 거리에 있어 내정 간섭이 심하지 않을 것이요, 둘째로 재력이 부하니 물질의 힘을 볼 것이요, 세째로 종교적 신심이 농후하니 도의를 존중할 터이요 침략과 야심이 없으리라고 믿었다. 이 모든 호의는 선교사들이 고매한 태도와 순결한 희생으로 봉사하여 의료 사업에 큰 공헌을 주며 고관들의 병을 고치여 그들이 우리에게 심히 큰 영향을 주었었다》(《좌옹 윤 치호 략전》서울, 1934년 56페지). 미국 선교사들의 역할이 비록 불완전하게나마 명백하게 시사되여 있다.

미국 선교사들은 《일국 황제가 마치 이웃집의 한 늙은이나 되는 것처럼 유사 무사간에 각자 임의로》왕실을 드나들었으며 민비의 시의로 있었던 선교사 부인들인 언더우드 부인 번커 부인 등은 민비는 물론이요. 고종까지도 교활한 방법으로 롱락하여 자기들에 대한 반(半)미신적 신뢰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특히 1895년 민비 살해 사건 이후 불안에 싸인 고종은 자기 신하들까지도 믿지 못하여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를 밤마다 곁방에서 재우고 식사도 언더우드의 집에서 준비시키는 정도로 미국인 선교사들은 고종의 두터운 신임을 독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고매한 태도와 순결한 희생으로 봉사》하는체 하면서 왕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기울려 온 미국 선교사들의 필사적 노력 속에는 그들이 추구한 음흉한 침략적 목적—자기들에 대한 신임을 침략 정책 실현의 담보로써 리용하려는 야망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 왕실로부터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된 바로 그 시기를 전후하여 수다한 미국인들이 외부, 법부, 군부 및 기타의 중요 기관의 고문이란 명의로 정부 요직에 들어 앉게 되였다. 이것은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조선에서의 자기 세력의 부식을 위한 행정적 지반과 발언권을 장악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자신, 례컨대 언더우드는 외무 협판(協辨)의 지위를 차지하고 을미(乙未) 정변 이후부터는 왕의 사실상의 고문으로서 정사를 롱단함에 이르렀다.

선교사들의 이와 같은 간교하고 집요한 장기간의 책동의 결과로 미국은 조선 정부로부터 대소 수많은 경제적 리권을 강탈하게 되였는 바 그중 몇 가지만 례거하여도 조선 연해 선로 설정권, 울릉도 림목 채벌권, 조선 연해 진주 채취권, 운산 금광 채굴권, 서울—인천간 철도 부설권, 서울내 전등, 전차, 전화 및 수도의 부설권 등 허다한 경제적 리권을 강탈해 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지배층은 미국인들의 감언에 현혹되여 그들을 《형》이나 《친우》로 믿고 수다한 경제적 리권들을 제공하였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일상적 언행을 통해서 하느님과 조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였고 또 조선 통치 집단이 바라 마지 않던 조선에 대한 《형》으로서의 《원조》를 어떻게 제공하였는가? 여기에서는 로골적 배신 행위로 나타난 두개의 사실만을 들기로 한다.

조선의 《친우》로 가장한 미국은 을미 정변 후에 조성된 정치적 위기를 리용하여 조선 왕을 미국 공사관에 강제로 이동시켜 왕을 완전히 자기들의 손아귀에 틀어 잡고 《미국 공사로써 보호자로 하고 정부를 조직하려는》(기꾸찌 켄요 《근대 조선사》하권, 서울, 1939년, 499페지) 배신적 음모를 감행하였는 바 이 모략적 음모의 발기자, 적극적 참여자로 등장한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였다. 특히 선교사 언더우드는 소위 《중론의 지도자가 되여 고종을 모시고 이어(移御) 하시게 하는 일을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1896년 11월 28일 왕궁 습격 사건에는 직접 이에 참가하였는 바 사건 실패 후에는 음모에 가담한 조선인 주구들이 《원두우(元杜尤—언더우드의 한자 명)의 보호로 몸을 피하여 정동으로 와서 원두우 집에 류하게》하는 등 (《좌옹 윤 치호 략전》94페지) 음모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자본에 복무하는 종교의 수치스러운 역할, 미국식 《원조》의 위선적 본질의 전 내용을 규지(窺知)할 수 있게 한다.

《친우》 미제의 조선에 대한 더욱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지는 배신은 로 일 전쟁 전후 시기를 통한 일본의 조선 강점 정책에 대한 적극적 방조 정책에서 표현되였다. 1898년 미서 전쟁, 1899년 중국에 대한 《문호 개방》 정책의 제창 이후 미제는 극동 침략에 대한 새로운 적극성을 표시하면서 자기보다 약하고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의존하고 있는 침략적 일본을 리용하여 우선 조선과 만주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동방의 다른 지역에서 로씨야를 반대하여 미국 자본을 위한 길을 닦으려 하였는 바 미제는 이 전반적 침략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조선에서의 일본의 지배권 수립을 지지 방조하는 배신적이며 강도적인 방책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세에 암둔한 조선의 위정자들은 미국 《친우》의 《원조》만을 하염 없이 기대하였으며 악명 높은 선교사—의사로서 당시 조선 주재 미국 공사였던 알렌의 거듭되는 기만적 확언, 즉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말살하려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든지 대책을 취할 용의가 있다》 (M, F 넬손 《조선과 동아의 구 질서》 270페지)라는 망언에 국가의 운명을 위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두고 자기를 조선의 《진정한 친우》로 자처하던 미국 선교사들은 조선이 날마다, 시간마다 일제에의 식민지로 전변되어 가는 준엄한 현실 앞에서 차디 찬 침묵의 미소만을 띠우고 있었다.

력사적 사실은 이러하다. 지난 세기 80년대 이후 미국이 조선에 전파시킨 기독교와 이를 담당한 선교사들은 이상과 같이 미국의 침략 정책을 실시하고 마침내 조선을 식민지로 전화시키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 ❈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미제의 조선 침략은 다시 새 단계로 이행하게 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미국의 대 극동 정책을 규정한 주요한 객관적 요인은 우선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하에 동방 인민들의 반제 해방 투쟁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앙양된 사실이며, 다음으로 로 일 전쟁 이후 태평양에서의 일 미간의 제국주의적 모순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사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의 극동 정책은 두개의 모순되는 방향에서 움직이게 되였다. 즉 미제는 한편으로 일본을 반대하여 태평양에서의 자기의 지배를 수립하려는 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 쏘련과 아세아에서의 혁명 운동을 반대하는 일본의 침략을 고무 추동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조선 인민의 혁명 운동을 탄압하는 일제 식민지 통치를 지원하여 조선 인민의 혁명 의식을 말살하려 하였으며 반공 사상을 선전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미국 세력의 부식과 장래 침략의 준비를 위하여 《하느님》과 《자선》의 미명하에 미국의 영향을 계속 확대하고 숭미주의자들을 대량으로 배양할 것을 기도하였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조선 침략 정책에서 종교가 노는 역할을 더 한층 현저하게 제고하였던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미국은 《특히 …40년전부터 종교를 통하여 조선 땅에 그들의 영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하였다(선집, 제 2권, 103페지, 방점은 필자의 것).

1910년 조선내 외국인 선교사 총수는 453명이였는데 그중 절대 다수인 306명이 미국인이였고 이는 조선 재류 미국인 총수의 실로 62.7%에 해당하는 수'자였다. 1920년에는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의 4대 교단에서 조선에 파견한 선교사 수가 총계 336명, 교회 및 교리 강습소의 총수가 2천 3백 개소, 목사, 유급 무급의 전도사, 권사 등의 수는 2만 3천 여 명에 달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인들은 교회의 외곽 단체로서 세계 기독교 청년 련맹 (Y.M.C.A.) 조선 지부를 위시하여 예수교 서적 출판을 위한 조선 예수교 서회, 조선 성서 공회 등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예수교 서회의 출판물 수는 그때까지 4백 여 종이며 그중 정기 간행물 5종의 발행 부수는 1만 6천 부에 달하였다. 조선 성서 공회에서는 이때까지 성서 17만 8천 부와 성사(聖史) 분책 59만 3천 부를 출판하였다. 1919년에 장로, 감리 량교회 부속의 신학교, 성서 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 수는 7백 여 개, 학생 수는 2만 6천 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미국 북장로교회가 세계 각국에 파견한 선교사 총수 중 실로 그 3분의 1이 조선에 파견되여 있었다는 사실을 겸하여 고려한다면 미제가 얼마나 조선의 종교—문화적 침략을 위해서 주력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일제 강점하에서의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은 우선 일제 통치에 대한 적극적 협력으로써 특징지워진다. 조선에 통감 정치가 실시되여 초대 통감 이또(伊藤博文)가 1906년에 부임하여 오자 당시 수년 동안에 걸쳐 조선을 시찰 중이던 미국의 저명한 선교사 해리스와 만나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정

치상의 일체의 사건은 내가 이에 관계하겠지만 금후 조선의 정신적 방면의 계몽 교화에 관해서는 당신들께서 맡아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함으로써만 조선 인민을 유도하는 사업은 원만히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오야기 난메이 《조선 통치론》 418페지).

해리스는 1908년 초에 조선을 떠나면서 《쟈판 타임스》지에 게재한 조선 시찰담에서 《실로 오늘의 조선은 3년전 (통감 정치 이전——필자)의 조선이 아니고 비상히 진보 개선되였다》는 등 장황한 찬사로써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극구 찬양하였다. 장성하는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 앞에서 식민 제도를 유지하려는 데 공통적 리해 관계를 가진 두 제국주의의 대변자는 조선 인민을 억압하기 위하여 이처럼 추잡스러운 위선을 다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와서는 미국의 종교와 그 기관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 기구의 구성 부분으로 전화되였던 것이다. (물론 량자간의 야합은 태평양과 조선에서의 일 미간의 모순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그다지 견고한 결합으로는 될 수 없었지마는 이미 보호 정치 시기로부터 통감부, 그 후는 총독부가 매년 교회당의 건설과 기독교 청년회 사업 장려비로 막대한 금액을 국고로부터 지출하고 있었다. 1919년 3·1 운동 직후 일본 총독부는 일본인 관리, 은행가 등을 수뇌로 하여 미국인 선교사, 일부 조선인 목사의 무리들을 끌어 모아 《국제 친화회》, 《서울 기독교 련합 위원회》 등을 만들어 가지고 총독 정치를 협조케 하였다.

미국 선교사들이 일제 식민지 통치의 사상적 지주로 공헌한 대'가로 미국은 조선에서 획득한 경제 리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였다. 당시 조선 금, 은 산액의 80% 이상을 차지한 운산, 창성, 수안, 직산의 4대 광산을 위시하여 평양의 《곡산 주식 회사》를 비롯한 대소 수 많은 기업체들을 위시하여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경영에 이르기까지의 분야에서 경제 침략을 진행하였다. 그것이 일제 강점 후 비약적으로 강화되였다는 사실은 미국과의 조선의 무역액이 1910년에서 1937년에 이르는 기간에 근 46배나 장성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미국이 조선에서 강행한 기독교 전파 사업은 반공 사상의 선전과 더불어 숭미주의의 고취, 미국에 맹종하는 분자의 육성, 정탐 활동 등 사업을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인에 의한 기독교 전교는 숭미주의 독소를 전파시키였다. 그것은 《미국 반동 분자들이 선전하는 종교는 종교의 신앙을 위한 종교인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을 믿으며 미국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종교》이기 때문이다(《김 일성 선집》 제2권, 247 페지).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기독교 포교 사업의 결과로서 오늘날 미제는 남조선에서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미제의 침략 정책 앞에 서슴치 않고 내여 맡기고 있는 리 승만 도배와 같은 매국적 친미 집단이 배양되였던 것이다. 미국 로스안젤스에서 발간되는 《조선 독립 신문》은 1946년 1월 23일부 기사에서 해방 전에 있어서 리 승만에게 미국 선교사들이 《재정적, 정신적 원조를 보장하였을 때 그의 반쏘 운동은 맹렬하게 되였던 것이다》 라고 썼다. 이 말은 조선 인민의 반고 역적 리 승만을 자기 상전에 대한 더할 없는 주구로 길드림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놀은 역할의 일단을 말하여 주고 있다.

조선을 예속화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적 준비 공작은 이상의 사실들에 그치지 않았다. 조선에서 선교—정탐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미국 선교사들은 조선의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정탐, 매수 행위를 면밀히 진행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선교사의 간판을 가진 미국 정탐 언더우드 (리조말에 활동하던 언더우드의 아들)와 반역자 박 헌영과의 관계만 들어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즉 《박 헌영은 1919년 경 서울에서 잡지 <녀자시론> 의 편집원으로 있을 때부터 동 잡지를 주간하는 친미 분자 차미리사와 기독교 선교사로서 연희 전문 학교 교원 (후에 교장)으로 있던 미국인 언더우드와의 친교를 통하여 숭미 사상을 품게 되였고… 1939년 10월 5일경 서울 종로 3정목 료리점 백합원(百合園)에서 연희 전문 학교 교장이고 기독교 선교사로 가장한 미국 정보 기관의 탐정인 언더우드를 상면하고 그의 요청을 응락하고 동인에게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에 간첩으로서 충실히 복무할 것을 서약한 후 동년 12월 언더우드로부터 지하에 깊이 침투하여 조선 혁명 운동 내부에서 자기 지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지도적 지위를 탈취함으로써 장차 미제의 조선 침략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과 비밀 정보를 수집하여 련락할 데 대한 지령을 접수하고 그것의 실천으로서 곧 서울 《콤그룹》에 접근하여 지도권을 탈취한 후 조선 혁명 운동에서의 종파적 조직인 이 《콤그룹》을 언더우드의 지령에 근거한 자기 활동의 기반으로 만들 것을 기도》 하였던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미 제국주의 고용 간첩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간첩 사건 공판 문헌》 평양, 1956년, 111—112페지) 이와 같은 사실은 미제의 고용 간첩으로 전락된 박 헌영의 조국 반역 행위가 벌써 1919년부터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에 의하여 시작되게 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제는 일제 강점하의 조선에서의 《종교 활동》을 통하여 식민 제도를 유지 공고화하며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재 편성할 데 대한 계획을 음흉하게 추구하여 왔던 것이다.

* *

우리 조국이 위대한 쏘련의 무력에 의하여 해방된 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는 그가 길러 놓은 리 승만 역도와 야합하여 민족적 독립의 완성과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을 반대하여 나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막대한 희생과 손실을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수행을 곤난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오늘 날 미제 침략군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에서는 종교 및 그 기관들이 리 승만 파쑈 제도와 유착되고 있다. 즉 거기에서는 종교를 반대하는 자는 공산주의자로 락인 받는 중세기적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리 승만 역도들은 국가 권력의 도움으로써 남반부 인민들의 민족적, 계급적 의식의 장성을 억압하기 위하여 종교를 대중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 종교와 교회들은 미제의 식민주의 정책을 방조 보장하는 침략의 무기로서 리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위력한 사회주의 체계 진영의 형성·발전과 관련해서 자본주의의 절망적인 장래가 더욱 더 명백해 짐에 따라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파괴 활동을 발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일련의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음으로 양으로 반대하던 모든 부르죠아 정당들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 이후에 있어서 카토릭 교회는 국내 및 국외 반동의 주요 도구로, 조국 반역의 중심으로, 미제를 위한 간첩 활동의 거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웽그리야에서 1948년에 반국가 음모를 조직하였으며 작년 10월 사건 당시에는 웽그리야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개인 소유제로 돌아갈 것을 열광적으로 선동한 웽그리야 카토릭 교회의 전(前)주교이며 로마 법왕청의 추기원(樞機員)인 민젠찌 일당의 활동은 그에 대한 명백한 실례로 된다.

오늘 날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혁명의 원천지인 공화국 북반부에서도 장엄한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려고 최후 발악적 책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를 리용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미 적발 처단된 간첩 분자들의 사건에서도 명백히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서 종교의 사회적 기초가 청산되여 가고 있으며, 우리 당의 꾸준한 맑스—레닌주의 사상 교양에 의하여 인민들의 정신적 면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북반부에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잔재와 무엇보다도 종교적 의식을 유지 소생시켜 이를 리용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종교는 사람들을 낡은 착취자적 도덕 관념에 얽매여 두며 반인민적, 반동적 세력의 본질을 리해할 수 없게 하며 따라서 원쑤들의 도발적인 악선전의 전파를 도와 줄 수 있으며 건전치 못한 기분의 온상으로 될 수 있다. 때문에 원쑤들이 견실치 못한 사람들에게 종교적 신앙과 미신을 주입한다면 자기들의 목적에 쉽사리 리용할 수 있으며 자기들의 함정에 끌어 넣을 수 있다.

생산력 발전의 불충분성에서 오는 곤난들과 자연 및 사회에 대한 지식 보급의 불충분성 등 종교의 사회적, 물질적 조건들이 완전히 청산되기 전에 종교가 소멸될 수는 없다. 때문에 모든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는 미신과 마찬가지로 인민에게 기만적인 위안 이외에 아무런 현실적인 리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착취자들, 원쑤들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며 따라서 종교는 어데서나 인민의 원쑤들에 의하여 인민 자체를 반대하는 간악한 투쟁에 리용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들에 대하여 피착취자들과 전체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의 선진적 력량은 결코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과 모든 나라의 선진적 로동 계급들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며 허용하는 동시에 인민들을 종교로부터 해방시키며 또 원쑤들이 종교를 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적 무신론의 선전을 비롯한 사상 교양 사업에 부단한 관심을 돌리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 시기에 있어서 미제가 우리 나라에서 《종교》를 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은 우리의 혁명 투쟁의 일환으로 된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당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종교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일상적 사업과 미제가 침략적 목적에 종교를 리용하려는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원칙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투쟁에서 미제가 조선 침략에서 종교를 악랄하고 교활하게 리용한 력사적 제 사실을 생생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정치 정세

리 성 철

최근 년간에 국제 정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일본 인민들과 일본 통치 계급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변된 새로운 국제 정세 하에서 제3차 세계 대전은 이미 숙명적인 것으로 되지 않았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지역 인민들의 반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이 급격히 장성하고 평화 지대가 확대됨에 따라 제국주의 렬강들 간의 모순이 첨예화되였으며 평화적 공존 원칙이 불가항적인 세계적 대세로 전환되였다.

일본 인민들은 미 일 반동 지배층들이 기도하고 있는 새로운 《원자 전쟁》 계획과 군국주의 재생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밀접히 련결시켰다. 그들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미국을 추종하는 정책을 청산하고 대외 정책을 평화 공존 원칙으로 전환시키며 정치, 경제 및 외교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는 대중 운동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화 발전시켰다. 국제 정세의 변화는 비록 일본의 로동 계급과 농민 대중들뿐만 아니라 중소 부르죠아지와 대자본가들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의 대중 운동의 장성에 기초하여 일본 공산당과 사회당을 비롯한 민주 세력의 대렬이 급격히 장성되였다.

일본 통치 계급 내 일부 계층들은 아세아 지역에서 평화와 중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부단히 증대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침략적인 전쟁 계획이 바야흐로 실패하고 있는 바로 아세아 정세 발전의 기본 추세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국제 정세는 앞으로 《평화 공존》의 원칙에서 발전하리라는 견해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통치 계급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임의 사상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는 계층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일본이 아세아에서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였으며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통치 계급의 내부 모순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그들의 대내외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대내 정책 분야에서는 인민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개량주의》적 경제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며 대외 정책 분야에서는 소위 평화 외교와 《경제 외교》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요구하는 민주 세력이 부단히 장성 강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통치 계급의 정책과 사상에 일정한 영향을 주어 그들 간의 내부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사실이 바로 최근 일본 정세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민주 세력의 장성과 보수 세력의 상대적 약화

최근 일본의 정치 정세를 고찰해 보면 보수 세력과 민주 세력간의 력량 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력력히 찾아 볼 수 있다. 민주 세력은 해와 날을 거듭할 수록 더욱 현저하게 장성하고 있는 반면에 보수 세력은 내부의 파벌 투쟁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자체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있다.

보수 세력은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1956년 1월에 소집된 제24차 국회에서 독점 자본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며 보수 세력의 견고한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 군국주의를 재생시킬 목적으로 몇 개의 반동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기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미 일 반동 세력의 공동 요구였던 《소선거구 법안》과 두개의 교육 관계 법안은 헌법을 개정하며 군국주의를 재생하는 문제와 밀접히 련결된 《중요》 법안들이였다.

그러나 이 《중요》법안들도 국회 내에서 진행된 사회당과 공산당 및 로농당의 공동 투쟁과 국회 밖에서 진행된 교육, 문화, 사회 활동가들의 전국적인 항거로 말미암아 저지되고 말았다. 민주 세력의 단결된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게 되자 이에 당황한 보수 세력은 무장 경관의 힘을 빌어 강제로 국회 회기를 연장시켜서까지 반동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기도하였으나 겨우 《교육 위원회 법안》과 《국방 회의 설치 법안》의 두개 법안밖에 통과시키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소위 보수 세력을 통합함으로써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는 한편 《이대 정당론》(二大政黨論)을 내걸고 사회당을 제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의회 제도까지 부인하려던 《소선거구 법안》은 분쇄되고 말았다. 또한 보수 세력은 작년 7월에 있은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 세력의 진출을 억제하고 참의원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으려던 추악한 기도는 완전히 실패되였다. 즉 참의원 선거 결과 보수 세력은 종전보다 13 개의 의석을 상실한 데 비하여 사회당 의석은 12 석이 증가되였으며 공산당도 1 석을 더 증가시켰다. 이리하여 민주 세력은 득표에서 41.8%, 의석수에서 3분의 1 이상인 86 석을 확보함으로써 반동 세력이 기도한 《헌법 개정》을 저지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1955년 2월에 있은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 세력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하여 미 일 반동 지배층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다.

일본에서 민주 세력이 급속히 장성한 모습은 평화와 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대중 운동이 장성한 데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스나까와》 기지 반대 투쟁과 오끼나와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중 운동에서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스나까와 지구에서 미군 군사 기지를 확장할 의도 밑에 3천 여 명의 무장 경관을 동원하여 강제로 측량을 실시하려고 기도하였으나 공산당을 비롯한 민주 제 정당들과 총평을 위시한 로동 단체와 학생 단체들의 공동 투쟁에 의하여 저지 당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보수 세력은 종전과 같이 미국의 지시대로 군사 기지를 확장할 수는 없게 되였다.

오끼나와에 대한 영구 점령을 계획한 미국의 소위 《쁘라우스 권고》를 반대하며 《4원칙》을 관철시키려는 오끼나와 도민들의 투쟁은 미국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된다고까지 비방하던 보수 세력도 전 인민적인 항거와 여론의 압력 밑에 《4원칙》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형식상으로나마 그의 반환까지 운운하게 되였다. 이러한 대중 운동의 장성에 기초하여 작년 12월에 진행된 오끼나와도 나하시 시장 선거에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끼나와 인민당 주석 세나가가 당선되였다. 이것은 일본 본토에서의 군사 기지 반대 투쟁을 고무하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금후 일본 인민들의 독립 운동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군사 기지를 반대하는 대중 운동이 장성 강화되는 과정에서 일본 인민들은 그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각종 예속적 조약들, 즉 《쌘프랜씨스코 강화 조약》, 《일 미 안전 보장 조약》, 《일 미 행정 협정》을 폐기하여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였고 민주 세력은 각종 불평등 조약을 폐기 또는 수정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보수 세력도 이와 같은 대중적인 압력을 더 이상 저지시킬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시바시 수상과 현 기시 수상도 국회에서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의 《개정》 문제를 운운하

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원자 및 수소 폭탄의 시험 및 그의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은 통치 계급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는 3천 4백만명이 이에 반대 서명하였으며 국회에서는 이미 2차에 걸쳐 원수폭 금지를 결의하였고 금번 크리스마스도에서 실시하는 영국의 수소 폭탄 시험에도 반대를 결의하였다.

지금 일본 인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원수폭 반대 투쟁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원자 기동부대》의 파견을 반대하는 투쟁과 그리고 기지 반대 투쟁 및 오끼나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운동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으며 전 인민적 운동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쏘련과의 국교 회복의 실현은 일본에서 민주 세력이 장성한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로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집권당인 자유 민주당내에서 요시다 파를 중심으로 한 친미 세력은 미국의 지지 밑에 부당한 령토 문제를 내 걸고 쏘 일 국교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결렬시키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쏘련과의 국교 회복은 일본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또한 극동 및 아세아의 전반적 평화를 확보하는 중요한 담보임을 확신한 일본 인민들은 그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쏘련과의 국교 회복은 실현되였고 그에 기초하여 일본은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본 통치 계급이 싫건 좋건 간에 금후 일본이 평화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였으며 평화와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일본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그들은 쏘련과의 평화 조약을 조속히 해결하고 친선 관계를 공고 발전시킴으로써 만이 일본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으며 쏘련과의 통상 관계의 확장과 과학, 문화 교류의 발전을 계속 강력히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통치 계급은 쏘련과의 국교 회복을 자기들의 정권 쟁탈에 리용하여 그들 내부의 추악스러운 파벌 투쟁을 표면화시켰으며 나아가서는 일 미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켰다. 국교 회복 이후에도 그들은 쏘련과의 평화 조약 체결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며 통상 조약 체결 및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하여 아무런 적극적인 노력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리하여 보수 세력의 반동적인 정책은 인민들 앞에 낱낱이 폭로되였으며 그들로부터 더욱 고립당하게 되였다.

일본 공산당의 장성 강화는 민주 세력의 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작년 7월 하순 제8차 중앙 위원회 총회에서 최근 년간에 변화된 국제 국내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토대 우에서 일본에서도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종래의 강령을 수정할 것을 제7차 대회 심의에 제의하였다. 또한 일본 공산당은 일본 인민들의 당면한 요구인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위하여 일본 사회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제 사회 단체들과 함께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전체 인민을 단결시켜 미 일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나설 것을 제의하고 이 운동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있다.

반동 지배층은 일본 공산당이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것이 인민 대중 속에서 위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파급될 것을 겁내여 각종 부르죠아 출판물들을 통하여 그의 본질을 외곡하는 선전 깜빠니야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여하한 방해 술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공산당은 계속 믿음직한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즉 공산당이 제기한 사회당과의 통일 행동은 보수 세력의 반동 정책을 반대하는 여러 공동 투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작년에 있은 참의원 선거에서는 공산당과 사회당, 로농당(금년 2월 사회당과 합동)의 3개 정당은 전국 10여개 부 현에서 통일 행동을 취하였으며 이것이 민주 세력으로 하여금 참의원 의석 수의 3분의 1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이러한 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일본 인민들은 독립과 평화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공산당과 사회당은 그의 정책과 행동에서 반드시 통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고 그의 실현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였다.

또한 로동 운동의 앙양은 일본의 민주 세력의 장성을 증시하여 주는바 최근에 이르러 통치 계급의 반동적 로동 정책을 반대하는 일본 로동자들의 투쟁은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일본 력사상 최대의 것이라고 하는 금년의 《춘기 투쟁》에는 2월부터 5월까지 약 1 천만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독점 자본가와 기업주들은 2 천원의 임금 인상과 8 천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할 데 대한 로동자들의 요구 조건에 대하여 부득불 임금을 평균 7—8% 인상시킬 것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독점 자본가들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로조 지도자들과 선진적 로동자들에 대한 해고, 정직 등의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전체 사회계의 커다란 격분을 일으켰으며 다시금 로동자들의 항의 운동을 야기시켰다. 로동자들의 이 항의 투쟁도 계속 승리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일본 국철 당국은 파업자들에 대한 징벌 조치를 철회하며 1 개월분 하기 수당을 지불하여 임금을 인상할데 대한 로동자들의 요구를 접수하였다.

금번의 일본 로동자들의 《춘기 투쟁》은 독점 자본과 정부 당국이 꾸며낸 《새로운 임금 정책》과 로동 정책에 대한 결정적 타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평화와 민주와 독립을 위한 일본 인민들의 대중 운동이 강화 발전되고 그에 기초하여 민주 세력의 력량이 장성한 사실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일본 통치 계급의 내부 사상과 그들의 대내외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일본 통치 계급 내부의 모순을 격화시켰다. 그러나 보수 세력은 내부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면서도 경제의 앙양에 기초하여 여전히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

미 일 반동 지배층들 간의 모순의 첨예화와 일본 통치 계급 내부 모순의 격화

현재 일본의 독점 자본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는 보수 세력 내부에는 10 개의 대 소 파벌이 있으나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상 차이로 보아 대략 다음과 같은 두개의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원조를 계속 받아 들이기 위하여 국내 지반을 공고화하며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접근을 거부하려는 경향이며,

둘째, 미국의 완전한 종속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주성》을 가지고 대미 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접촉을 가지자는 경향이다.

보수 세력의 이와 같은 《정치적 분화의 경향》은 그들의 경제적 지반인 일본 독점 자본의 《분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본 경제의 발전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조선 전쟁 전까지의 시기인 바 당시 일본 경제의 특징은 미국에 의한 식민지적 예속화였다. 즉 전전의 일본 재벌은 매판 자본으로 된 반면에 미국의 중압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민족 자본은 그들을 반항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둘째 시기는 조선 전쟁 시기인 바 당시 일본 경제의 특징은 미국에 의한 경제의 군사화에 있었다. 허나 반면에 일본의 자본가들은 막대한 전쟁 리윤을 얻을 수 있었다. 세째 시기는 조선 정전 이후부터 현재까지인 바 이 시기의 특징은 일미 경제 관계의 모순이 현저히 첨예화된 시기이다. 즉 경제의 전반적인 장성에 기초하여 일본 독점 자본은 미국에 의존하는 비률이 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의 민족 자본이 대두하여 일본 상품이 다시금 국제 경쟁의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전후 요시다에 의하여 대표된 일본의 통치 계급은 철저히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악화된 일본의

경제 상태를 리용하여 거의 강도적인 경제적 략탈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원조》와 《재벌 해체》의 명목 밑에 일본 경제를 자의대로 통제할 수 있었다. 1955년까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24억 7,120만 딸라에 달하였다. 미국은 이 《원조》를 《대충 자금》으로서 일본의 각종 산업에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일본 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다. 1953년 7월까지 일본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은 합계 10억 6천 6백만 딸라에 달하였다. 또한 재벌 해체 후 미국의 회사들은 총액 2천 5백 50만 딸라에 달하는 기업 주권을 구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미 주둔군을 위하여 지불한 《점령비》는 1952년 4월까지 총액 49억 7천 7백만 딸라에 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1949년에 이르러 일본의 공업 생산은 거의 전전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일단 회복된 생산도 시장 문제로 말미암아 다시 생산 과잉적 현상이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생산 정지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공업 생산은 다시금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전쟁에 의한 《군수 경제의 호경기》는 일본 경제의 이러한 《애로》를 다소나마 완화시켰다. 미국은 이 시기에 《특별 군수 주문》으로서 일본의 경제 생활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일본은 대외 수출에서의 자기의 결손을 이 《특수》에 의하여 보충받았다. 1952년과 1953년의 일본의 특수 수입은 각각 8억 딸라 이상에 달하였는 바 이것은 일본의 외화 수입의 37%를 점했다.

이 기간에 일본의 공업 생산은 전전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번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 산업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군수 공업에 기초한 것이다. 1934~36년에 비하여 1953년 일본의 공업 생산 지수는 161.23으로 상승하였다. 그중 기계 공업은 266.5, 화학 공업은 216.6, 금속 공업은 183.5%였으나 섬유 공업은 76.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특수》에 의존하여 리윤을 획득하려던 독점 자본의 환상은 조선 정전에 의하여 마사지고 말았다. 미국의 무기 주문은 1953년에 비하여 54년에는 4분의 1, 55년은 8분의 1로 감소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기계 기구 공장들이 현저히 감소되였고 탄광 독크들의 휴업률이 증가되였다. 이와 함께 대미 무역에서의 결손은 증가되고 외화 보유량이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1946년부터 53년까지 일본의 대외 무역에서의 입초는 34억 딸라였으며 조선 정전후 반년간에 외화 보유량은 11억 8천만 딸라로부터 5억 8천만 딸라로 감소되였다. 이리하여 1953년 10월 이후부터 당시 요시다 정부는 수출을 제한하는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54년에는 직접 미국을 방문하고 10억 딸라의 차관과 《특수》를 계속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일본 경제를 완전히 예속하려는 미국은 이를 거절하고 말았다. 이러한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친미적인 매판 자본을 대표하여 온 요시다 내각은 드디여 붕괴되고 말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을 추종하는 정책은 일본 독점 자본가들에게 적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오게 하였다. 일본은 중국과 같은 방대한 수출 시장을 상실하고 축소된 자본주의 시장으로 몰리우게 되였으며 미국에 의한 대외 무역의 예속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민족 산업을 파괴하는 경쟁적인 상품의 수입으로 말미암아 국내 경제 체계의 해체를 촉진시켰고 대자본가들과 각 산업 부문간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일본의 독점 자본은 동남 아세아 시장으로 진출을 계획하였으나 이들은 여기서도 영국, 서부 독일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치렬한 경쟁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이리하여 일본의 섬유, 철강, 기계 부문의 대 자본은 심각한 곤난에 부닥치게 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의 보수 세력 내부에는 매판 자본을 대표하는 요시다의 친미 세력 외에 그들과 미제에 의하여 구속 받아 오던 민족 자본가 계층을 대표하는 새로운 세력이 대두되였다. 이들은 처음 《일 중, 일 쏘 국교

조정론》을 들고 나왔으며 그후 점차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을 요구하였다. 처음 이 계렬은 주로 수산 및 해운 관계 독점체들에 의하여 지도되였으며 그후 미쯔이 스미도모 재벌과 기타 2, 3류 재벌에 속하는 철강업, 섬유 산업, 무역 산업 부문의 재벌들이 이에 참가하였다.

최근 일본의 독점 자본은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자립적 경제의 물질적 기초》를 축성하기 위하여 방대한 자본을 축적하였다. 전후 일본의 자본 축적 템포는 전전에 비하여서나 또는 전후 서구라파 제국에 비하여도 높다. 전후 10년간에 고정 시설 설비에 투하된 금액은 정부적인 것과 민간의 것을 합하여 12조 1,000억원(일본원)에 달한다. 또한 일본의 생산 설비 능력은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1935년을 100으로 하여 1945년은 190%였다면 1955년 말에는 200으로까지 확대되였다. 생산 설비는 단지 량적으로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1950년 이후부터 실시된 고정 자본의 갱신 및 확장과 근대적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질적으로도 향상되였고 국제적인 경쟁 능력도 강화되였다. 신흥 화학 공업, 화학 섬유 공업의 창설, 전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전력 자원 개발, 금속 및 기계 공업에 대한 기술적 합리화를 실시함으로써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였다. 한편 국내 시장도 개척되였으며 철강, 조선, 기계 등은 전후 일본의 중요한 수출 상품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현재 일본의 공업 생산은 전전의 최고 수준이던 1944년의 수준을 넘어 서고 다른 자본주의 렬강을 경쟁자로써 상대할 단계에까지도 이르고 있다. 1956년 일본의 공업 생산 지수는 전전의 239.7%로 장성하였다. 특히 1956년 일본의 대외 수출은 전후 최고 기록인 24억 9천 여 만 딸라에 달하였다. 이것은 1955년도에 비하여 23.4%의 증가로 된다.

1955년 하반기부터 일본 독점 자본은 다시금 대규모적인 설비 갱신과 기술의 근대화를 실시하였다. 새로운 투자의 중심은 중화학 공업에 돌려 졌다. 즉 석유 화학 공업의 창설, 합성 섬유 산업의 확대 등 넓은 범위에 걸쳐 진행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산업의 제조 공정에 대한 자동화와 자동차 및 조선 공업의 합리화는 기계 수요 능력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철강, 전력 및 수송 능력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것을 급속히 보충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 그들의 당면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점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로서 제기되는 것은 가공 부문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 산업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철강, 전력, 수송 부족과 함께 그들의 확대 재생산을 저해하고 있는 중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일본 독점 자본이 실시하고 있는 빈번한 설비 투자의 강화는 결국에 가서는 생산 과잉의 경향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생산의 확대에 대한 소비의 부족이라는 모순된 현상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작년 여름부터 소비재 생산 부문의 일부인 섬유, 쎄멘트, 류안, 가정용 전기 기구들에서는 생산 과잉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문제는 일본 독점 자본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식민지를 상실하고 늦어서야 국제적인 경쟁에 참가한 일본 자본주의는 아직도 안정된 해외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장의 략탈을 위한 경쟁자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가일층 급속하게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최근 일본 경제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일본 경제의 전반적인 장성은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을 더욱 격화시켰다.

일본 독점 자본은 재정 금융 면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 물론 독점 자본의 자본 축적이 진척되였다고 하지만 그의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미국으로부터의 정치적 차관 및 사적인 외자에 의존하는 정도는 변

화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독점 자본은 국내 투자 자금에 대하여 이미 미국에 의존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주로 해외 진출에서 미국 자본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전 하또야마 내각 당시의 경제 심의청 장관이였던 다까자끼 다쯔노스께는 일 미간의 금후 경제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전후 부흥의 특수한 단계를 끝낸 오늘 일본은 이미 미국의 직접 원조를 필요하지 않게 되였으며 ……아세아 지역의 발전에 있어 량국이 협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 기시 수상은 《솔직히 말하여 현재의 일본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원조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로 되고 있지 않다》고 쓰고 있다. 금년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제3차 잉여 농산물 협정 체결을 거부한 것은 풍작 외에도 일본은 상기 협정에 의한 《대충 자금》을 필요로 할 정도가 감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역 및 시장 문제는 일 미간의 경제적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일본은 많은 원료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철강, 면화, 소맥, 대두 등 중요한 원료의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여 있다. 일본은 수입 총액의 54%를 딸라 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에서도 41%를 딸라 지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 또한 일본의 대외 무역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특수》가 5억 딸라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대외 무역의 총액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 1955년도의 실례만 들어도 일본은 수출 총액의 22%, 수입 총액의 31%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수입 제한과 관세 인상으로 말미암아 모순과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수년간 미국으로부터 계속 5억 딸라의 입초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주로 경공업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은 상술한 바와 같이 중화학 공업 부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무역을 계속하자면 반대로 경공업도 발전시켜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안'가한 일본 경공업품은 미국 국내업자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미국 자본가들은 대규모적인 일본 상품 뽀이코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미국의 남부 수개 주들에서는 법률로써 일본 섬유품의 판매를 금지하였는 바 이러한 동향은 뉴인그랜드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다.

무역 면에서 미국의 정책이 일본 경제에 미치고 있는 가장 큰 제약은 사회주의 제국에 대한 수출 제한, 특히 중국에 대한 금수 정책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비률이 높다. 전전에 있어서 대외 무역은 국민 총수입의 23%를 점하였다. 전후 일본은 대외 무역에서 아직도 전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1955년 1—10월을 전전에 비교하여 보면 수출은 54.4%, 수입은 76.9%밖에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의 공업 생산은 전전을 초과하였다. 즉 대외 무역이 공업 생산의 요구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전에 일본은 수입 면에서만 보아도 극동 지역으로부터 의존한 것이 35.3%였다면 전후에는 4.1%에 불과하다. 이러한 과거의 실적으로부터서도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독점 자본의 관심은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금수 정책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바 그들은 미국에 대하여 공공연히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를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실지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1956년 1월부터 9월에 이르는 기간에 3 천 9 백만 딸라에 달하였다. 이것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제1위로 된다.

일본의 유력한 경제 잡지의 하나인 《에코노미스트》지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하여 《단지 문제는 무역 정책에 만 그치지 않고 대미 관계 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독점 자본의 견해를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일 미간의 모순은 군사적 면에서도 점차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 예산을 국민 소득의 4—5%로 증가하고 지상군만을 확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군사비를 당분간 국민 소득의 2% 이내로 제한할 것이며 지상군만 아니라 륙, 해, 공군의 3군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전반적인 장성에 기초한 일 미 경제 관계를 이상과 같이 고찰하면서 현재의 기본 모순을 다음과 같이 특징 지을 수 있다. 즉 현재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주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종속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문에서 의존하고 있으며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도 일본 독점 자본은 자립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관계는 기술 및 원료 시장 면에서 아직도 강하며 일본 경제는 딸라권에 얽매여 져 있다. 그러나 이 의존 관계는 최근에 점차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즉 일본 경제는 《특수》에 의존하지 않아도 국제 수지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경제적 자립이 그만큼 장성한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회주의 진영 제국과의 경제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 독점 자본은 사회주의 제국과의 무역에 대한 미국의 제한, 대미 수출에 대한 각종 제한, 방위 부담금 및 엠.에쓰.에이(M, S, A)협정에 의한 무기 공급, 재 군비 정책 등에서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으로부터의 특수의 계속과 기술 도입, 미국 자본과 결탁한 동남 아세아 진출에 대하여서는 명백히 리해 관계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제 과정을 통하여 최근 일본 통치 계급의 사상에는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금후 일본은 《독자적인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친미적인 경향이 가장 농후한 경제 조직인 《경제 단체 련합회》는 《미국에 만 의존하는 경제 방침을 개변하고 일본의 독자적인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현재 《일본은 미국 원조에 의하여 경제를 유지하던 시기는 지나갔으며 평등적 립장에서 미국과 담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급속한 장성은 일본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일방으로는 독점 자본에 의한 급속한 자본의 축적과 생산의 확대, 타방으로는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 농촌 경리 발전의 정체 및 새로운 계급 분화, 중소 상공업자들의 대량적인 몰락, 잠재적인 실업군의 존재——즉 독점 자본의 축적과 인민 대중의 빈궁화의 사회적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제 국내적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보수 세력간의 내부 모순도 더욱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있은 이시바시 내각의 성립과 금년 2월에 있은 기시 내각의 성립이라는 빈번한 내각의 변경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매판 자본을 중심으로 한 친미적인 독점 재벌들은 하또야마 내각이 쏘 일 국교 회복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민주 세력이 급격히 장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일 미간에 간격을 산생시켰다고 하여 그의 사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종전과 같이 로골적으로 친미적인 내각을 조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중 일 무역 확장》 및 《중소 기업 대책》을 들고 나온 이시바시 내각을 지지한 것이다.

산업 자본의 리익을 대표한 이시바시는 자거 단독으로 내각을 조직할 만한 세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유 민주당 내의 친미 세력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친미 세력은 이시이파의 《경제 단체 련합회》 수뇌자들과 요시다——이께다파의 금융 자본이 타협하여 이시바시의 정책을 자기파 독점 자본의 립장에서 견제할 것을 기도하였다. 이로부터 이시바시 내각은 성립 당초로부터

동요하였으며 친미 세력에 의하여 견제 당하였다. 이것은 당시 자유 민주당의 주류파를 형성하고 있던 미끼다께오와 이께다가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간의 대립 관계로부터 정책상 의견 일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도 련결되여 있다.

이시바시 내각의 총사직은 그 자신의 병환과 관련한 것이 직접적인 리유로 되고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자민당 내부의 새로운 파벌 투쟁의 표현인 동시에 독점 자본가들의 모순의 표현인 것이다. 이시바시는 새로운 전쟁 계획에 기초한 미국의 대일 정책에 대하여 명확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인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일 정책을 받아 들이면서 발생된 그들 내부의 모순과 동요 그리고 독점 자본가들의 의견 불일치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총사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반동적인 보수 세력은 그들 내의 분쟁을 《규합》하여 대미 관계를 가일층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보다 강력한 보수 내각의 출현을 요구하였다. 특히 1957년도 예산안을 성립시키며 로동자들의 춘기 투쟁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보수 세력 전체의 내부 혼란을 방지하라는 독점 재벌들의 요구는 강력하였다. 이러한 독점 재벌의 요구에 순응하여 나온 것이 바로 기시 내각이다. 그러나 기시 내각의 성립도 그들 내부의 모순을 완화시킬 수 없었다. 특히 그가 로골적인 친미파의 대표인 이께다와 합류하여 《주류파》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종래 기시와 결탁하였던 고노이찌로파와의 대립이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노파는 오노반보꾸파와 함께 어업 자본을 비롯하여 해운 관계 자본 계렬을 대표하고 있다. 기시 내각이 성립됨으로써 보수 세력의 친미적 경향은 하또야마, 이시바시 내각 당시보다 더욱 농후해 졌다. 기시는 미국과의 《협조》가 일본의 대외 정책의 기본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와 미국에서는 기시 내각의 성립을 환영한 것이다.

반동적인 보수 세력은 내부 모순과 파벌적인 대립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전후 경제의 부흥과 《호경기》에 안받침되여 미국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자주성》을 요구할 만큼 자기 힘을 회복하였다. 그들은 이 힘을 계속 유지하며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미 일 독점 자본의 지배에 합치시킬 《강력한 체제》를 확립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일본 통치 계급의 금후 동향

상술한 바와 같은 주객관적 정세 하에서 독점 자본을 중심으로 한 일본 통치 계급의 정책은 주로 생산을 계속 확대시키며 그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는 한편 현재의 《호경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며 증대되는 상품 생산에 대처하여 안정한 대외 시장을 확보하며 그를 위한 자본 수출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당면한 중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쏘련과의 국교 관계가 회복되고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강화된 유리한 조건 밑에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려고 한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주로 경제 관계를 념두에 두고 있다. 즉 잉여 농산물의 삭감, 면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완화, 전반적인 관세 인하를 종래보다 더욱 강하게 미국에 요구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후진 국가들에 대한 자본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특히 동남 아세아와 남미, 중근동 지역에서 자기의 경쟁자인 영국을 몰아 내려고 기도하면서 해당 제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외교를 실시하려고 한다. 또한 쏘련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가능한한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중국과도 지불 협정을 체결하며 민간 통상 대표부를 설치하고 금수 정책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것이 현재 일본 통치 계급이 추구하고 있는 《자립화》의 기본 내용으로 되고 있다.

최근 일본 통치 계급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잉여 농산물 협정 체결을 거부하며, 재군비

계획에서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며 또한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의 개수(改修)및 《오끼나와시정권 반환》을 운운하면서 《자주성》을 표방함으로써 인민들을 기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주성》에는 역시 제한이 있다. 그들은 《반미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 미 관계를 조절》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인민들의 절실한 요구인 중일 관계에 대하여서는 국교 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쌘프랜씨쓰코 강화 조약》 이후 각종 예속적인 조약에 의하여 미국에 예속된 정치적 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독점 자본의 리해 관계에 저촉되고 있는 경제적 분야에서의 《자주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 인민들이 요구하는 민족적 독립의 길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특히 최근 기시 내각이 성립되닌서부터 보수 세력 내부에서는 다시금 친미 세력이 주류파를 형성하기 시작한 사실을 념두에 둘 때 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성한 민주 세력의 압력 밑에 기시 수상은 일 미 관계의 기본 문제인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의 수정 및 페기 문제를 6월에 있는 미국 방문에 제기하겠다고 언명은 하고 있다.

일본 통치 계급은 동남 아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외교》에 가장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독점 재벌들은 《동남 아세아는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남 아세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 외교》를 추진시킬 데 대한 로선은 이미 자유 민주당의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이루고 있으며 《기시 외교》의 중심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경제의 양양에 기초한 일본 독점 자본의 당면한 요구가 판로를 개척하며 그를 위하여 자본 진출을 추진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시 수상의 재벌 배경으로 되고 있는 철강 및 중화학 공업 부문의 독점 재벌들이 현재 미국에 의하여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이 지역에서의 판로 개척에 가장 고심하고 있다는 사정과 현재 일본 정부의 공업 정책이 이 부문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일본 독점 자본가들 앞에는 적지 않은 애로가 가로 놓여 있다. 즉 이 지역에 대한 선진 자본주의 렬강들의 경제적 진출과 자본 수출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 국가들과 사회주의 진영 제국과의 경제 교류가 해마다 증대되고 반식민주의 민족 해방 운동이 장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이 지역 인민들의 증오심이 아직 완전히 가셔져 있지 않다는 그러한 사정들인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남 아세아 제국이 일본의 군국주의 재생을 견결히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현 일 정부의 추종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5월 하순 동남 아세아 제국을 방문한 일본 수상 기시가 가는 곳마다 랭대를 받았다는 것도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 통치 계급은 유엔을 통하여 아세아 아랍 쁠럭에 접근하며 점차 그의 지도적 지위를 확보하며 일본에 대한 이 나라 인민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 진출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써 배상 문제 해결을 리용하고 있다. 동남 아세아로 진출하기 위하여 일본의 통치 계급은 이 지역에 조직된 미국의 군사 쁠럭에 참가할 것을 당분간 회피하고 있으며 소위 《평화 외교》를 주장하고 있다.

금년 1월 하순에 열린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주재 일본 대공사 회의 석상에서 당시 외상이였던 기시 노보스께는 《우리들과 지리적으로 특히 가까운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제국과의 통상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 지역이 일본 외교의 초점》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들이 이 지역에 부여하고 있는 경제적 중요성을 충분히 말해 주고 있다.

일부 독점 자본가들은 자체로 동남 아세아 나라들과 경제 합작을 추진하며 국가가 대외 투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도록 정부 부서

들을 추동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독점 자본이 점차 격화되여 가는 국제 경쟁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에 만 의존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 자체의 자본 축적이 현저히 강화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주목될 문제들이다. 동남 아세아 여러 지역이 딸라와 파운드로써 분할되고 있는 만큼 금후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진출은 자본주의 렬강들 간의 모순을 가일층 첨예화시키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독점 재벌은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쏘련 및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확장하며 현재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안정한 경기 동향을 호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의 통상 확장은 금후 일본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의 정상적인 통상 확장은 정식 국교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인민들은 중일 무역의 확장과 동시에 중일 국교 회복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치 계급은 여전히 《두개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립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일본 통치 계급은 쏘련과의 국교 회복 및 유엔 가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리한 국제적 지위를 리용하여 소위 자유 국가 성원의 립장에서 《동서 량 진영 및 서방과 아세아 아랍 쁠럭간》의 《선의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현 일본 정부 지도자들에 의하여 루차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유엔 가입과 관련하여 후지야마 아이이찌로는 《일본은 아세아 쁠럭과도 접촉 하면서 인도의 중립주의와는 다른 의미의 중립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자유 진영 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첨부하고 있는 점에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선의의 조정자적 역할》이란 것은 미국의 리익을 그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통치 계급은 이러한 주장 밑에 그들의 《독자적》인 리해 관계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되도록 국제적인 분쟁 문제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서방과 아세아 쁠럭간의 조정자로서 자처하려는 의도의 리면에는 이 쁠럭 내에서 점차 지도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그의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 통치 계급의 애매한 립장은 결국에 가서 미국에 굴종하고 그의 종속국으로 전락되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인민은 이러한 종속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일본 통치 계급이 진정으로 미국의 예속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져 나올 것을 원한다면 미국에 의하여 강요 당한 각종 예속적인 조약을 페기하고 아세아 집단 안전 보장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평화적 공존 원칙에서 아세아 린접 국가들과의 선린 관계를 회복하고 호상의 경제적 륭성 발전을 위하여 통상 관계를 발전시키며 이 지역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만이 가능할 것이다.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일본 침략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애국적 의병 운동

김 경 인

지금 우리들은 조선 로동당 투쟁 력사를 1910년대로부터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 선행한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과의 련계 속에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 인민은 과거 외래 침략자, 특히 일본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각종 형태와 방법으로 애국적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었다. 조선 인민의 초기 반일 투쟁 가운데서 주류를 이룬 것은 의병 투쟁이였다. 이 애국적 의병 투쟁은 그후 일제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1910년 이후의 조선의 민족 해방 투쟁과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 무장 투쟁에서 계승 발전되였다. 그러므로 1910년대 전의 조선 인민의 반일 의병 투쟁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당 투쟁사 학습에 도움으로 될 것이다.

❊ ❊

청일 전쟁 후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자기의 독점적 지배권을 확립하며 나아가 그들의 종국적 야망이던 조선 강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일층 침략 정책을 추구하여 나섰다. 그러나 전후에 조성된 극동에서의 정세의 변천, 특히 조선을 위요한 로일 량국간의 대립의 첨예화는 일본 략탈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야망을 쉽게 실현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초조와 불안에 빠진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의 내정에 대한 횡폭한 간섭, 지어는 테로적 방법에 의한 정변의 도발, 무능한 통치배들에 대한 위협과 매수, 기타 갖은 음모와 교활한 수단을 다하여 조선 침략의 지보를 강화하기에 발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의 반동 통치 계급은 완전히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였다. 통치배들은 1894년 농민 전쟁에서 인민 대중의 거세인 항쟁을 몸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명,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는 추호의 관심도 없었으며 오직 일신의 지위와 영화를 위하여 외래 침략 세력에 의존 아부하며 매국 배족의 죄행을 꺼리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서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반식민지로 전락되여 갔다.

국가의 위기,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압박과 략탈이 날로 증대되여 갔으며 따라서 인민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여 갔다.

조선 인민은 이 이상 더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무능하고 부패한 반동 통치배들과 일본 침략자들이 하는 소위대로 내여 맞기고 방관할 수 없었다. 조선 인민은 이 결정적 위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길은 오로지 인민 자체의 승리적 투쟁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감득하게 되였다. 그들은 특히 일본 침략자들이 조국 땅에서 물러가지 않고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한, 통치배들의 억압과 착취, 그리고 그들이 매국 배족적 죄행을 지속하고 있는 한 조선 인민의 무권리와 빈궁이 사라질 수 없으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애국적인 인민들은 농민 전쟁에서 실현하지 못한 념원을 또 다시 쟁취하기 위해 일본 략탈자들과 반동 매국 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장엄하고 간고한 투쟁의 길에 들어 섰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애국 투쟁의 첫 걸음부터 적극적인 무장 투쟁을 택하였다. 그것은 조선 인민이 농민 전쟁을 통하여 얻은 고귀한 경험, 농민들은 그처럼 절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어선 정의의 투쟁에 대한 일본 략탈자들과 반동 통치배들의 야수적인 무력적 탄압을 당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절실히 감득하였기 때문이다.

의병 운동은 갑오 정변에 뒤이어 1895년 10월 일본 침략자들에 의한 민비 학살 사건(을미 사변)과 조선 인민에 대한 단발령의 강제 실시를 계기로 하여 폭발하였다.

《국모 피살》과 단발령의 강제 시행은 량반 유생층에게 있어서 《천지 개벽 후 일대 변괴》를 당하는 것으로 되였다. 때문에 그들은 《두가단이나 발불가단》(頭加斷髮不加斷)이라고 단발을 완강히 거부하여 나섰으며 《국모의 원쑤》(國母之讐)를 갚기 위하여《멸왜 토적》의 투쟁에 나설 것을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당시 량반 유생의 이 호소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의병 운동에로 궐기시켰다. 인민들의 의병 운동에로의 궐기는 량반 유생층들의 이른바 《국모의 원쑤》를 갚거나 5백년의 례의와 관상(冠裳) 의속을 보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였다. 광범한 인민의 궐기는 어데까지나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봉건 통치배들과 국토를 강점하고 인민을 노예화하려는 일본 략탈자들을 물리치려는 열화같은 애국심과 그들의 절실한 리해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였다.

의병 투쟁은 전국 각 지방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1895년 11월 강원도 원주, 제천 지방에서의 류 진석과 그 문인 리 춘영, 안 승우 등의 의병 창의에 호응하여 기남,호서, 호남,령남,령동 등 각 지방에서 인민들이 의병 투쟁에 일어 났고 동일한 시기에 리 소응은 관동에서 의병 투쟁의 불'길을 올렸는바 이에 령서, 해서, 관북 등 여러 지방에서 호응하였다. 의병 운동이 이처럼 전국적 범위에 확대되여 가는 정형을 당시 개성 참서관 리 범덕의 상부 보고에 의한다면 《…춘천 지방에 의병이 량민을 선동하여 관동 각 군에서 포군을 모집하여 소요가 크게 일어나더니 근일 철원 지방에 의병소를 설치하고 의천 등지에서 포군이 일어나 전천으로 들어 오고 삭령 토산에 점차 충만한지라 그 세염이 바람을 만난 불과 같다》고 하였다.

의병의 봉기는 일정한 투쟁 계획도 없었고 그리고 무기의 준비도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으며 의병을 구성한 기본 력량도 바로 투쟁에 나서기 전날까지 호미와 연장을 다루던 농민들이였다. 그러나 적은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의 정규군이며 이에 정부 군대가 가세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의병들의 투쟁은 처음부터 간고성을 띠게 되였다.

그러나 일찌기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전쟁의 정의성에 대한 확신, 자기 형제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생명을 희생하겠다는 의식은 병사들의 정신을 제고시키며 그들로하여금 미증유의 곤난을 극복하게 하였다.

자기 투쟁의 정당성을 확고히 인식한 의병들은 적에 비교할 수 없는 장비와 허다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의병 부대들은 인민들에게 《조국의 숭고한 력사를 사랑하며 우리 선조들이 끝끝내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우리 강토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여야 한다》고 호소함으로써 자기 대렬을 부단히 보충 강화할 수 있었다. 의병들은 궐기한 첫날부터 《의를 일으킴에 깨끗하여야 하며》 《의로움을 끝끝내 지켜야 하며》 《스사로 노력하여 결심한 바를 꿰뚫러내자》고 맹세하였다. 온갖 난관과 신고 속에서도 의병들은 규률과 질서를 유지하였으며 자기의 정의적 투쟁 목적에 무한히 고무되였다. 의병들의 용감성과 대담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희생적 투쟁의 모범은 매개 전투 마다에서 표현되였다. 례컨대 의병장 서 상렬은 령남 7읍 (안동, 례안, 례천, 순흥, 풍기, 령천, 봉화)에서 궐기한 의병장들과의 회합에서 《반역하지 말것, 생사로 결심을 바꾸지 말것》, 《사사를

도모하지 말 것》, 《적에 항거하여 용감할 것》을 맹약하여 그들의 투지를 더욱 돋구어 주었다. 그후 서 상렬 의병 부대는 상주, 대봉 전투에서 왜적의 진지를 습격하여 5, 6차에 걸친 치렬한 격전을 거듭하면서 적을 격파 패주시켰다.

의병들의 투쟁은 그의 예봉을 왜적에게만 돌린 것이 아니라 친일 악질 관리들을 처단하는 데도 돌렸다. 1895년 11월말 원주, 제천 의병 부대들은 류 진석을 총 지휘관으로 하여 단양 고을을 걸쳐 1896년 1월 4일에는 충주를 점령하였다. 이와 전후하여 동 의병 부대는 단양 군수 권 숙과 충주 관찰사 김 규식을 비롯하여 청풍, 평창 등 여러 고을 군수들을 닥치는대로 처단하여 그 위명을 3남 일대에 떨치였다. 이에 호응하여 관동 지방에서 리 직신이 지휘하는 의병 부대들은 관찰사 조 인승을, 령남 지방에서 활동하던 리 상련이 지휘하는 의병 부대는 관찰사 김 석중을,리 범직 의병 부대는 천안 군수 김 병숙을 각각 처단하여 친일 주구배들로 하여금 전률케 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본 략탈자들은 자기의 정규군을 충주 고을 의병 토벌에 동원했다. 충주를 거점으로 류 진석 의병 부대는 왜군의 대부대의 포위 공격을 당하였다. 이리하여 적아간에 가렬한 공방전이 계속되였다. 의병들은 적들의 량도 절단(糧道絕斷) 전술로 인하여 주림과 추위에 떨면서도 굴함이 없이 용감히 싸워 10여 일간 이상 성을 견지하였다. 박 주영 의병 대장이 지휘하는 의병 부대 수백명은 서울 바로 턱밑인 남한 산성에 근거하여 도처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다가 불의에 적의 공격을 당하였다. 의병들은 최후의 한사람까지 적과 싸우면서 성과 운명을 같이하였다. 기타 의병장 김 경달과 19세 청년 의병 홍 사구의 영웅적인 최후 등 의병들이 발휘한 영웅성과 완강한 투쟁성을 보여 주는 실례들은 헤아릴 수 없이 찾아 볼 수 있다.

의병 투쟁의 거세인 투쟁력은 일본 침략자들과 친일파 매국 역도들을 불안과 공포 속에 빠뜨렸으며 그들의 침략 기도를 밑 뿌리로부터 동요시켰다. 전체 조선 인민의 증오의 대상으로 된 놈들은 인민의 위압에 기를 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혼란기에 고종왕은 로씨야 령사관으로 파천되였다. 드디여 친일파 김 홍집 내각은 인민의 처단을 받거나 그의 상전 일본 침략자들의 비호하에 일본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될 궁지에 빠졌다. 통치배들은 일본의 사촉하에 발포하였던 법령을 철수하는 등 민심 수습에 허덕이였다. 일본 침략 세력도 일시 조선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의병들은 친일 내각의 붕괴와 일본 침략자들의 일시적 위축으로 인한 정세의 전환에 안도감을 가지고 그만 자기 무장을 해제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시기 반일 의병 운동은 조국의 결정적 위기에 직면하여 자주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애국적 구국 투쟁의 첫 봉화로서 조선 인민에게 거대한 계몽적, 조직적 힘을 부여하였다. 레닌은 일찌기 투쟁의 수개월은, 때로는 정치적 침체의 수년간의 선전이 할 수 있었던 것 보다도 더 빠르게 더 심각하게 인민을 계몽한다고 가르쳤다. 의병 투쟁을 통하여 인민들 속에서 원쑤 일본 침략자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과 적개심이 환기되였으며 조국 수호의 결의가 더욱 굳어 졌다. 동시에 이 투쟁은 조선 인민의 정치적 자각을 촉진하였으며 그들의 계급적, 민족적 자아 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작용을 놀았다.

조선 인민의 애국적 활동은 의병 투쟁에 의하여 고무되고 추동되면서 그후 인민적 성격을 띤 각종 형태의 투쟁으로 확대 발전되여 갔다. 인민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군중 집회——만민 공동회의 주최로 열린 집회와 때로는 왕궁을 에워싼 시위로 외래 침략자들의 략탈적 음모와 정부 통치배들의 각종 매국적 시도를 폭로 규탄함으로써 그를 파탄시킴에 있어서 일정한 승리를 전취하였다. 자기들의 단결된 력량, 그리고 《모임의 힘》에 대하여 인민은 자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기들이 지금까지 향유하지 못하던 권리를 주장

하여 나섰다.《자주》,《독립》,《인권》 이러한 웨침은 인민들 속에서 나날이 높아 갔으며 확대되여 갔다. 이로부터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다른 한개의 조류, 애국 문화 계몽 운동이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 반일 의병 운동은 그후 각종 반일 애국 운동의 모체로 되였으며 그의 추동력으로 되였다.

❈ ❈

1895년—96년대의 의병 운동 이후 일시 잠재적인 세력으로 있던 인민 의병 운동은 1904년 일제에 의한 로일 전쟁 도발을 전후하여 조선에 대한 일제의 강점 정책이 로골화하여 감에 따라 다시금 발발하기 시작하였다.

청일 전쟁 후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던 일제는 1895—96년대의 조선 인민의 반일 항쟁과 짜리 로씨야의 적극적인 진출에 견제당하면서도 조선에서 그 침략의 야망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미 영 제국주의의 지지와 방조를 받아 로일 전쟁 도발을 준비하면서 조선에서의 경제적 침략을 일층 강화하였다.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그리고 조선 연해의 어업권 점탈을 위시하여 제1 은행권의 발행과 그 강제 통용 등 조선의 주요 자원과 명맥을 장악하기에 급급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의 통치 계급은 자기들의 전날의 죄과를 뉘우치기 보다 오히려 더욱 우심하게 매국 배족의 죄행을 감행하기에 몰두하였다. 일본과 구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나라의 주요한 자원을 매도하는 죄행을 공개적으로 지속하였으며 호화 방탕을 일삼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인민을 착취하기에 더욱 횡포하여 졌다.

이러한 가운데서 인민 생활은 날로 피폐하여 갔다. 그 우에 거듭되는 흉년으로 수많은 인민들이 기아에 쓰러졌다. 전국 도처에서《나를 구하라, 나를 살리라》(救我活我)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 갔으나 매국 통치배들은 이를 구출할 대책이란 애당초부터 념두에도 두지 않았다. 당시 황성 신문은 충청 남도 각 군의 민정(民情)을 보도하여《한절과 세말이 가까워 오는데 량곡이 떨어져 인민이 모다 부황병에 걸리여 유리하는자 속출하니 헤아려 보건대 빈 가호가 10의 8, 9호나되며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도 기갈을 면치 못하다가 어떻게 얼마간의 낟알을 얻어 먹고 폭사하는 변고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으며 빙설의 굴속에서 서로 붓들고 떨다가 얼어 죽는 일이 곳곳에 있으니 차마 보고 들을 수 없는 정상을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다》(황성 신문,1902년 2월 12일)고 한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였다.

인민들은 분산적으로 수십명씩 작당하여 부자'집을 습격하는 폭동을 일으켰는 바 세칭《활빈당》《화적》의 봉기가 전국 각 지방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 났다. 이 중에서도《활빈당》의 활동은 1899년 봄 이래 남부 조선 각 지방을 휩쓸었으며 다음 해인 1900년 초에는 특히 충청 남북도의 전역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드디여는 관동 여러 지방에까지 파급되였다. 《활빈당》은 부자의 재물을 몰수하여 빈민을 구제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지방의 간신오리를 응징하며 나아가 통치배들에게《철도 부설과 기타의 리권을 외국인에게 허여하지 말라》,《금광의 채굴을 금하라》,《곡'가를 일정하게 하라》,《세금을 경감하라》,《악형을 폐지하고 무고한 인민을 치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인민들은《활빈당》이란 명칭을 내걸고 투쟁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계급적 립장을 뚜렷이 밝히였다. 이 시기에《활빈당》이란 물론 적들에 의하여 불리워진 이름인바 그들은 무장한 인민들로써 구성되였다. 적들은 도적의 무리로 이를 지목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그 본질을 모호 또는 말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인민적 의병 무장 투쟁은 로일 전쟁 전에 이미 자연 생장적으로 성숙되여 갔으며 조직되여 갔다. 이러한 의병 무장 대오 결성의 준비 계단으로서, 그 전초 전으로서의《활빈당》《화적》의 활동은 일본의 로일 전쟁의 도발과 그들의 략탈과 야수적 만행이 강화되여 가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뚜렷한 자기 성격을 발현하면서 전국적 규모에로 확대되여 갔다.

전국에 패만한 일제 략탈 군대의 만행, 군령의 실시와 조선 인민에 대한 박해, 인민들로부터의 토지와 재산의 략탈, 강제적인 역부 징모(役夫徵募), 친일 매국 단체 일진회의 죄행과 그 행패의 증대, 통치배들의 침략자와의 야합, 일제의 고문 정치 등에 의한 정치적 및 경제적 실권의 강탈 등은 조선 인민의 격분을 더욱 자아 냈다.

조선 인민은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국가와 민족 존망의 위기에 처하여 한가히 《격문》이 날아들 것을 기다릴 수 없었으며 어떠한 걸출한 지도자의 명령 출현을 바라고 있을 수 없었다. 오직 인민 자신의 손으로 투쟁 대오를 조직하며 그 자신들 속에서 지도자를 내놓으며 그 자신들이 적의 총검의 수풀로 뛰여 들어가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수 경우에 토지와 집을 빼앗기고 류랑하는 인민 자체 내부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 원쑤와 죽기로써 싸울 것을 맹약하는 데로부터 그들의 투쟁 대오는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초기에는 10명 다음에는 점차 증대되여 20명 혹은 50명으로 일당이 되여 산간 험지를 근거로 하여 그의 활동을 개시하였다. 적수 공권으로 투쟁에 나선 그들은 무기와 군자(軍資)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자기들의 첫 투쟁으로서 전개하였다. 그들은 각자가 구할 수 있는 원시적 무기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부유한 지주나 장터의 거상들에게 금전과 무기를 원조하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애국적 인민들의 이와 같은 절실한 호소를 배신하여《화적》《가의지도》(假義之徒)니《적경》(賊警) 혹은《비도》(匪徒)《폭도》(暴徒)로 몰아 오히려 관청에 밀고하여 가해하는자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그들은 용서 없는 처단을 받았다.

적들도 솔직히 고백한 바와 같이《서울에서는 일본인이 무사함에 반하여 지방에서는 그 불안이 제거되지 않았고》《이리하여 날이 갈수록 조선에 있는 일본인이 받는 손해는 더욱 더 심대하여 갔다》.

인민들은 처음부터 매국 단체 일진회를 원쑤로서 증오하였으며 그와 투쟁하였다.

1904년 9월 경에 태천에서 일진 회원 32명이 진위대 병사들의 손에 의하여 처단된데 뒤이어 1905년 3월 전주에서 인민들도 일본 략탈자와 일진회 박멸을 고창하여 일어났으며 6월에는 경기도 지평에서 인민들이 일진회 사무소를 습격하여 그 회원 9명을 처단하였다.

이렇듯 당시 적들에게《화적》《활빈당》《폭도》《비도》《부정도배》로 불리워지던 인민들의 투쟁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적의 소위와는 달라서 어데까지나 애국적인 인민들의 침략자와 그 주구 매국 역도와 지주 토호를 반대하는 반침략, 반봉건 투쟁이였다. 동시에 애국적인 인민들의 이러한 형태의 투쟁은 보다 강력한 의병 투쟁을 준비하는 전초전으로 되였다. 비록 이 시기에 이러한 투쟁은 산만적으로 무질서하게 진행되였다하여 이 투쟁이 가지는 의의는 결코 감소되지 않는다. 그들의 활동은 일제가 공포한 무시무시한 군령이 실시되여 전국 방방곡곡이 일제 략탈군대와 헌병으로 충만된 총검의 수풀 속에서 전개되였는 바 이 사실은 조선 인민의 애국적 열의를 더욱 앙양시켰으며 더욱 많은 인민 대중을 적과의 결사적인 투쟁 마당으로 불러 일으켰다.

로일 전쟁은 1905년 9월 일본의 승리로 종말을 고하였다. 로일 강화 조약에 뒤이어 일본은 미 제국주의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예정하였던 조선 강점 계획 실천에 공개적으로 나섰다. 일본은 일방으로는 무력한 통치배 리 완용 도당을 매수하고 그 주구 송 병준, 리 용구 등을 사촉하여 정부 내외로부터 그들의 침략을 받들게하며 타방으로는 무력적인 위혁과 공갈로써 드디여 11월 17일 망국적인 을사 오조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망국적인 조약에 의하여 조선은 일제의 독점적인 식민지로 전락되고 말았다. 조선의 통치는 일본인 통감의 지휘 감독하에 실시되였으며 조선의 주권은 문'자 그대로 일제 통감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일제 략탈자들은 전

국 각지에 해파리처럼 퍼지여 조선 인민의 재부를 강탈하기에 광분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에서 농민은 토지로부터 축출되였고 수공업자와 상인은 직장과 점포의 문을 닫았고 어민은 어장을 빼았기고 염민은 염장에서 쫓겨났다. 조선의 주인으로 조선 사람 대신에 일제 략탈자가 행세하게 되였다.

1906년 조선에서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은 1905—1907년간에 있은 짜리 전제 제도를 반대하는 로씨야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로씨야 혁명의 영향하에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웨•이•레닌은 자기 로작들에서 1905년 로씨야 혁명이 아세아 제국의 인민 운동의 앙양에 준 거대한 영향을 루차 지적하였다. 《세계 자본주의와 1905년의 로씨야 혁명은 아세아를 결정적으로 각성시켰다. 중세기적 정체 가운데 못 박혀지고 문맹적인 수백만 주민들이 새 생활과 인간의 초보적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눈떴다》고, 1905년의 로씨야 혁명은 조선 인민의 일제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반항심과 각성을 더욱 촉진시켜 주었다.

당시 조선의 신문들은 로씨야 혁명에 대하여 《아도 혁명 대분란》(俄都革命大紛亂) 《아국 농민의 혁명 운동》《아국의 동맹 파업》 《아국 혁명당》 《근대의 반란》 《아국의 혁명사상》 《아국 혁명 운동의 영향》 등등의 표제로서 련일 대서 특필로써 보도되였다. 이와 같이 로씨야로부터의 혁명 운동에 대한 소식과 그의 혁명적 사상, 그리고 근로자들의 과감한 무장 투쟁의 소식은 조선의 근로 대중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1906년 후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은 농민을 기본 력량으로 한 전 인민적인 반일 의병 무장 투쟁으로, 지식인들에 의한 정치 계몽 단체의 조직과 광범한 애국 문화 계몽 운동으로, 도시에서의 군중 집회와 시위 운동으로, 상인들의 철시 투쟁과 징세 반대 폭동으로, 학생들의 동맹 휴학과 열혈 청년들의 테로 활동으로, 전 인민적인 국채 보상 운동과 유생들의 상소 운동으로, 군대의 폭동과 로동자들의 파업으로, 실로 다종한 투쟁 형태와 방법으로 하여 거대한 위력을 가지고 전개되였다.

그중에서도 반일 의병 운동은 이 시기 민족 해방 운동의 주류를 이루면서 더욱 치렬하게 계속되였다. 로일 전쟁 개시를 전후한 시기로부터 1905년 을사 오조약 전까지의 시기에 자연 발생적이고 소규모적인 이른바 《적한》 《폭도》의 활동은 1906년 2월 통감부 설치 이후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전국적 규모에로 확대되면서 점차 대소 의병 부대로 결속되여 갔다. 《적비》의 활동과 경기도, 충청 남북과, 전라 남북도에서 벌떼처럼 일어나는 《적변》(賊變)은 소위 즙포관이나 군수의 힘으로서는 처치할 도리가 없었으며 소위 국왕의 조칙도 통치배들이 강구한 《즙도 방략》으로도 막아내지 못하였다. 투쟁 행정에서 소 집단인 《적경》 《비도》들은 점차 린접한 경내에서 50—100명으로 혹은 200내지 500명으로 결속되여 각각 한개의 의병 대오로 형성되였다. 이와 같은 의병 부대의 결성 정황을 당시 신문들은 《거의 둔취》 (擧義屯聚), 혹은 《폭도 둔취》라고 보도하였으며 그들의 활동을 의요(義擾), 의거(義擧)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병 활동의 중심 지역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5 개 도의 40 여 군에 이르렀다. 이 기간의 의병 부대의 투쟁 중에서 가장 저명하였고 가장 큰 의병 부대는 민종식, 최 익현, 신 돌석 등이 지휘하는 의병 부대였다. 민 종식은 그 출신이 비록 량반 관료 출신이였으나 극히 량심적인 인물로서 그가 의병에 투신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의 공연(供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제가 1905년 오 조약을 늑체하여 우리 나라 국권을 강탈하며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 함에》 그는 《나라에 충성된 마음 뿐 분격을 참을 수 없어 장차 일인(日人)을 토벌하고 5적을 섬멸하고 다시 국권을 회복하여 부디 인민을 구하며 보다 태평을 누릴 계도》로서 1906년 봄에 애국 인민을 규합하여 싸움에 나섰던 것이다. 동 의병 부대는 4월 충청남도 홍산을 지점으로 하여 린근 각 군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5월에 들어서는 서천, 람포, 결성을 련달아 점령하고 마침내 충청도의 요충인 홍주성을 습격하여 점령한 후 일제 략탈 군대와의 공방전에서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민 종식 의병 부대의 활동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경상도에서도 의병 운동은 격앙되였다. 영해, 영덕, 진포, 봉화, 울진, 례안, 안동, 청송 일대를 중심하여 의병들이 활동하였는 바 그 중에서 신 돌석이 지휘하는 의병 부대의 활동이 그 주력으로 되고 있었다. 신 돌석을 지도자로 하여 집결된 의병은 그 초기 약 1,000 여명의 대부대로서 경상도의 거의 전역을 그 활동 구역으로 하여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신 돌석은 원래 천민 출신이였다. 그는 의병 투쟁에 출전한 후 시종 일관 그 최후까지 투쟁을 견지한 의병 운동에 있어 모범적 지도자였으며 유격전의 전술로써 적을 기습 소탕하여 백전 백승하는 용맹을 전국에 떨치였다. 전라도에서는 6월 초순 담양, 태인, 순창 일대를 중심으로 최 익현이 지휘하는 의병 부대의 활동이 가장 뛰여났었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자기의 군대, 헌병을 증강하며 회유와 잔혹한 토벌의 방법으로 의병 부대를 진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보다 광범한 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였고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초기 《화적》 《활빈당》 활동으로부터 《폭도》 《비도》의 행동으로 원쑤들에 지목되여 오던 애국 인민들의 활동은 1906년 중기에 이르러 비로소 떳떳한 의병 부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력사 무대에 재등장하였다. 의병 투쟁은 그 활동 범위가 점차 확대되여 갔으며 보다 광범한 계층을 인입하면서 앙양의 일로를 향하여 전진하였다. 1906년 10월 초부터 1907년 6월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각지 의병들의 주요 활동 지역을 당시 신문 보도에 의하여 개괄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경상도——지례, 개령, 금산, 황간, 영동, 옥천, 선산, 례안, 봉화, 영양, 진보, 령해, 영덕, 안동, 의성, 문경, 기장, 전라도——광양, 담양, 구례, 순천, 동복, 창평, 장흥, 장성, 남원, 룡주, 광주, 충청도——대흥, 정산, 부여, 홍주, 청양, 보은, 홍산, 람포, 진령, 회덕, 천안, 덕산, 충주, 음성, 련산, 강원도——삼척, 녕월, 울진, 양구, 린제, 기타 경기도와 황해도 남양, 단양, 제천, 룡인, 수원, 진위, 수안, 곡산, 신계, 평산 등 무려 58개 군이였다.

각처에서 일어난 의병 투쟁은 일제 략탈자들과 그 주구 도당들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일제와 그 주구 및 지방 악질 관리와 량반 지주 토호배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모선망, 부선망》(某先亡, 富先亡) 이란 동요까지 류행하였고 지방에서 제라고 머리를 휘젓고 다니던자와 부자로 이름난 자들은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다. 의병이 활동하는 지역의 행정은 마비 상태에 빠지여 무정부 상태를 이루었고 왜놈들과 그 주구 도당들은 의병이라면 치를 떨고 어쩔줄을 몰랐다. 직접 무기를 들지 않은 농민들은 각처에서 의병들의 이와 같은 활동에 고무되여 폭동으로 호응하였다. 1906년 2월 안동군과 선산군에서의 농민 폭동을 위시하여 11월의 곡산 농민 폭동, 1907년 3월의 김해, 남해, 회덕, 고령, 태인군에서의 농민 폭동 등이 바로 그 실례로 된다.

로일 전쟁을 전후하여 재기한 의병 운동은 그의 초기 즉 1895—96년대의 의병 운동에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보여 주었다. 의병 운동의 발발 초기에 그 지도층의 거의 다수가 량반 유생층이 였으며 그들의 선창에 의하여 인민이 이에 호응하였다면 이 시기에 있어서의 의병 투쟁은 인민들 속에서 발생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 속에서 적지 않은 지도층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투쟁의 전술적 면에서 보다 령활성을 가진 유격 전술을 적용함으로써 진전을 보여 주었다. 이와 동시에 그 투쟁 성격에 있어서도 또한 종전의 투쟁에서 보다 반침략적 투쟁 성격을 강력하게 특징 지으

면서 이에 반봉건 투쟁 성격을 수반하였다.

의병 투쟁은 인민 대중을 단기간에 계몽하여 그들의 민족적 자각을 촉진하며 빠른 시일내에 그들을 광활한 력사 무대에로 이끌어 내였는바 이후 조선 인민은 애국 운동의 길에로의 총진군을 개시하게 되였다. 의병 투쟁은 전인민적인 애국 운동의 한 조류—문화 계몽 운동의 급속한 전진에 강한 추동력을 주었다. 헌정 연구회를 비롯한 대한 자강회의 조직, 각 지방별 학회의 조직과 전국적으로 발흥하기 시작한 교육 운동 및 민지의 계발과 애국열을 고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각종 신문, 잡지의 간행과 조선 력사, 지리, 조선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였다.

❊ ❊

침략자 일제와 그 주구 매국 역도를 반대한 조선 인민의 불요 불굴의 완강한 저항력은 강도 일제에게 있어서 조선 강점 정책 수행에 크나 큰 장애로 되였으며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에서 일제는 조선 인민의 투쟁 력량이 더 자라기전에 그리고 민족적 각성이 더 장성되기전에 조선 강점을 완전히 끝내려고 조급히 서둘렀다. 일제는 우선 그 준비 대책으로 1907년 5월 친일 매국 내각을 그들의 충복으로써 일층 강화하며 조선 인민의 애국 운동을 무력적으로 말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무력을 더욱 증강하였다. 이러한 때, 동년 6월에 발생한 헤그밀사 파견 사건은 그들의 예정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로 되였으며 언질로 되였다. 일제 략탈자들은 무력적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동년 7월 11일 고종왕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마치 조선 속담에 《단김에 소뿔을 뽑는》 격으로 동월 24일에는 정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같은 일제의 발악적인 강점 행위는 조선 인민의 분노를 가일층 격동시켰다. 고종왕의 강제 퇴위를 전후한 수일간 서울 종로에서는 일제와 매국 역도의 죄상을 성토하는 연설회와 군중 집회, 군중들의 시위가 주야로 그칠줄 모르고 계속되였다. 일방으로 격분을 참지 못하는 인민들 사이에서 결사대가 조직되여 매국 역도들의 주택을 습격하여 불지르며 일진회의 기관지 국민 신문사를 위시하여 경찰 《고반소》를 처처에서 습격함으로써 일본인 경관들과의 충돌이 일어났다. 폭동은 조선 군대 내에서도 일어 났다. 전동 병영에서 탈출한 시위 병정들은 일본 군대, 경관, 헌병들과 응전하여 시가전을 전개하였고 인민들도 이에 가세하여 대항하였다. 시내 도처에서 일본 점포가 파쇄되고 상인들은 철시로써, 학생들은 맹휴로써 항쟁하였다. 서울 시내는 계엄령이 발표되고 적아간에 험악한 공기에 휩싸였다. 적의 삼엄한 경계 하에서도 애국적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였다. 폭동은 서울에 국한되지 않았다. 룡산을 위시하여 평양, 공주, 진주, 통영, 의천, 안성, 대구, 부산, 진남, 죽산, 양지 등에 파급되였다. 일제는 그의 제국주의적 야수성을 들어 내놓기 시작하였다. 폭동에 궐기한 인민들을 무력적으로 진압하는 일방 매국 역도들을 사촉하여 신문지법을 조작(7월 24일 공포)함으로써 인민들의 언론을 탄압하고 7월 27일에는 극악한 반동 법령 보안법을 공포하여 조선 인민의 일체 자유를 박탈하였다. 이러한 기초우에 일제는 동년 8월 1일 놈들의 년래의 감병책으로 말미암아 축감될대로 되여 그 명칭만을 가지고 있던 조선 군대 마저 강제로 해산시켜 버리였다. 일제의 이러한 기도는 놈들의 침략 정책 수행에 사소한 저항이라도 할수 있는 화근을 남겨두지 않으려는 데 있었다.

적들의 해산령에 군인들은 폭동으로 대답하였다. 서울에서는 시위에 제1련대 제1대와 제2련대 제1대대 군인들이 참가하였으며 그들은 일제 략탈 군대와 장시간 시가전을 전개하여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폭동 군인들은 부득이 퇴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방에서 일어난 의병 부대에 가담하거나 독자적으로 의병 대오를 조직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군인들의 폭동은 원주, 홍주, 강화 진위대에서도 일어났다. 해산 군인들의 폭동, 그들의 의병 대오에로의 전환 혹

은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의병 부대의 조직 등은 반일 운동의 전국적 앙양의 계기로 되였다. 지금까지 일제와 매국 역도들의 강제에 의하여 동족 상쟁의 의병 토벌에 동원되던 군대가 인민의 편으로 즉 반일 애국 운동의 진영으로 넘어 오게 된 사실은 실로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특히 해산 군인들의 의병 투쟁에의 가세는 의병 대오를 군사 기술적으로 장비하며 지휘관을 해결하며 무기를 확충함에 있어 크게 기여하였다.

이리하여 의병 투쟁은 보다 일보 전진한 태세를 갖추고 한층 확대된 규모에서 더욱 과감한 투쟁으로써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전국 각지방에서 의병들의 활동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적극성을 띠고 전개되였다. 왜놈들의 헌병 분파소, 우편 취급소가 곳곳에서 습격 파괴되고 일본인과 그 앞잡이 친일 관리, 일진회도들이 의병들의 손에 무수히 처단되였다. 철도 연선의 도시를 제외한 지방들에서 왜놈의 자취를 찾아 보기가 드물게 되였다. 의병이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일체 통신 거래가 두절되고 행정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8월부터 9월에 걸쳐 의병들의 활동 구역이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의 산악 지대로부터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에로 확대되여 갔다. 의병 투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그들의 활동은 산간 오지의 도시와 부락들에만 한하지 않고 평원 지대에로, 철도 연선에로 접근하여 갔으며 서울 근교까지 육박하고 있었다. 서울 이남 지방 어느 도와 군을 물론하고 의병 활동의 영향하에 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서울은 의병 활동의 포위 속에 들었으며 바로 그 접경지인 룡인, 수원, 가평, 파주, 포천, 개성 등지에 의병들이 빈번히 출몰하여 서울에로 육박하고 있었다.

일제 침략자들의 의병 진압책은 더욱 잔인성을 띠였다. 의병 토벌이란 명목하에 파견된 일제 략탈 군대는 도처에서 그 야만성을 발로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소위 《토벌대》를 각도에 파견하여 산간 지대와 농촌 부락을 샅샅이 뒤지는 일방 의병과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의병들이 통과하였거나 주둔하였던 촌락이면 두말 없이 의병의 근거지란 구실로, 의병에 호의를 보였다 하여 불살러 버리였다. 일제 군 사령부 기록 《조선 폭도 토벌지》에는 《본래 제천은 폭도의 근거지로서 전 촌락이 폭도에 관여하여… 지어는 산병호도 구축하다, 지대장은 장래의 화근을 덜기 위하여 촌락의 대부분을 소각하였다》(동서 46페지)고 씌여있었다. 이러한 만행은 비단 제천에 한한 일이 아니였다. 《본래 려주는 민후 (閔后)의 출생지로서 그 횡사 이래 배일 사상이 극성하였는바 금번 폭도가 봉기함에 이에 가담하여 탄약, 량식 등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음으로해서 원주에 주재하는 <시모바야시> 지대장은 1 소대를 24일 (8월) 동지에 파견하여 폭도에 관여한 부락을 소각케 하다》 (동상서 47페지) 이같이 놈들은 《장래 화근을 덜기 위하여》 《탄약, 량식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그 전 촌락을 불지르는 만행을 감행 하였다.

일제 략탈 군대와 헌병, 경찰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인민을 학살하였다. 강원도 고성에서 일제 살인귀들은 의병을 수사하여 다니다가 촌민이 의병의 종적을 알지 못한다 하여 량민 7명을 학살하여 목을 시가에 매여 달았으며 부근 한 촌락에서는 의병을 수색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촌민 2명을 총살하여 그 시체를 가마 속에 넣어 삶아 그 골육을 뭇 사람에게 보라고 강요하였다. 어떤 지방에서는 일본 략탈 군대가 지나갈 때 어린 아이들이 피하여 달리는 것을 사격하였다.

놈들의 이러한 만행은 전체 조선 인민을 그들의 적으로 만들 뿐이였다. 원쑤 일제의 사촉 하에 감행되는 매국 역도들의 《자유단》 조직, 《인호 작통법》, 《내지 려행권 규칙》도 조선 인민의 완강한 거부에 부닥쳐 효능을 발생하지 못하였다. 더우기 허수아비 국왕이 람발하는 《조칙》이나 정부 매국 역도들이 파견하는 《선유사》, 《유설

단》의 소위 회유 공작은 도리혀 인민의 저주와 규탄을 받았다. 인민들은 적들의 만행과 폭압에도 굴함이 없이 의병을 더욱 물심 량면으로 지지 성원하였다. 인민들은 정탐배의 눈을 피하여 가며 초신, 의류, 식량을 의병에게 공급하며 적의 동태를 탐지하는 의병의 이목이 되여 그 투쟁을 방조하였다. 인민들이 의병을 성심성의로 지지 성원한 데 대한 실례와 미담은 허다하다. 의병들이 그처럼 포악한 적을 상대로하여 장구한 시일에 걸쳐 영웅적인 투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그들이 인민 속에서 조직되였으며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를 받은데 있었다. 의병들은 언제나 인민들의 생명 재산을 애호하며 인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을 엄격히 단속하였다. 의병들은 불량배들이 의병으로 가장하여 인민의 재물을 함부로 침해하며 부녀자를 겁간하여 민심을 소란케 한 자들들을 체포하여 용서 없이 처단하여 군규를 엄숙히 하였다. 광주군 당부면에서 있은 의병 접회에서 어떤 의병장이 의병 투쟁의 취지를 말하여 《우리들이 부모와 떨어져 처자를 버리고 풍산 로숙에서 자생을 돌보지 않은 본의가 어데 있는가 하면 나라를 위하고 인민을 구원함에 있다》라고 한 바와 같이 그들은 인민을 해하는 일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1907년 11월에 이르러 의병의 활동 지역은 더욱 광범하여졌다. 황해도 내 배천, 곡산, 서흥, 태탄, 옹진, 장연, 송화, 은률, 신천, 풍천, 청단, 온정원, 문화, 남천, 린산, 달천, 수교, 은파, 달아산, 연평도 등 각 군이 의병 활동 구역이였다. 이리하여 의병 운동은 린접한 평남, 평북에 파급되여 개천, 맹산을 선두로 한 덕천, 순천, 녕원, 성천, 은산, 강동, 삼등, 양덕, 상원, 화창, 창평 일대에서 일어났고 평북에서는 압록강 류역, 강계를 위시하여 후창, 삭주, 초산, 위원에로 점차 확대하여 갔다. 의병 투쟁은 다음 함경도에서 치렬하게 일어났다. 1907년 11월 북청군 안산면에서 차 도선, 태 양유를 지도자로 하여 일어난 의병 부대와 다음의 의병장 홍 범도가 지휘하는 의병 부대의 눈부신 활동을 비롯하여 갑산, 혜산, 삼수, 장진, 리원, 단천, 금창, 마전동, 신창, 정평, 영흥, 함흥 (부전령), 문천, 홍원, 황수원, 길주, 명천, 경성, 무산, 회령, 종성, 경원 각 지방에서 대 소 무수한 의병 대오들이 활동하였다. 의병들의 활동은 륙지에서 뿐만 아니라 남서해의 도서를 중심으로 하여도 전개되였다.

이리하여 전국 2백 40 여 개군 중에서 몇 개의 군을 제외하고 조선의 전 지역이 의병 활동의 영향하에 들어 갔었다.

전국 각지의 의병 대오는 적과의 투쟁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면서도 부단히 새로운 투쟁 력량을 계속 자기 대렬에 인입하였다. 사랑하는 형제를 왜적에게 잃고 정든 고향 마을을 적의 만행으로 불태운 의지할 곳 없는 인민들이 앞을 다투어 의병 대오로 들어 왔다. 일제의《토벌대》에 의하여 한 의병 대오가 패배를 당하여 리산하면 다시 새로운 대오가 결성되였고 한사람의 의병장이 쓸어지면 그에 뒤이어 두사람, 세사람의 의병장이 배출되였다. 실로 조선 인민은 《칠전 팔기》 (七轉八起)의 투쟁으로 인내성 있게 그리고 완강하게 투쟁을 견지하였다.

의병들은 인민들에게 일본인과 미곡 매매를 하지 말며 미곡의 수출을 방지하여 방곡을 권고 호소하였다. 세무관의 세금 징수를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의병들은 세무 기관, 우편 취급소, 림진강, 한강 일대에서의 일제의 미곡 수송선을 닥치는대로 습격하여 인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과 미곡을 로획하여 이를 군자에 충당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처하여 적들은 비명을 올렸다. 그들은 경성 신보에 자탄하여 쓰기를 《지금 폭도의 세가 13 도에 창궐함에 본년의 수세는 예산의 10분의 5를 얻기 난하니 이와 같이 하면 명년의 국고를 어떻게 하며…이주민의 손해를 묵시할 일이 아닌즉 이 손해를 무엇으로 회복하리오》 (경성 신보 1907년 12월 1일)라고.

1907년에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였던 의병 운동은 1908년에 이르러 더욱 앙양되였다. 그들

이 적의 수비대, 헌병, 경찰관들로 구성된 소위 《토벌대》와 충돌한 회수와 그에 참가한 의병 수 만을 일제가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1907년 전투 회수는 323회, 그에 참가한 의병수는 44,116명이였다면 1908년에 전투 회수는 1,451회, 그에 참가한 의병수는 69,804명으로 격증되였다. 1908년 6월 일제의 조사에 의하여서만도 전국 각 지방에서 활동한 의병장은 241명에 달하였다. 1907년부터 1911년간에 전투 회수 2,907회, 그에 참가한 의병수는 143,680명에 달하였다. 이 외에 의병들이 자체 작전에 의하여 수비대, 헌병 분견소, 경찰서, 순사 주재소, 세무소, 우편 취급소 기타 군아, 일진회 사무소 등 일제 기관과 매국 도당들의 집무 기관을 습격한 전투 회수와 그에 참가한 의병수, 그리고 무명의 의병장들을 고려한다면 당시 의병 투쟁이 얼마나 대규모적이였는가를 추상할 수 있다. 이같은 피어린 투쟁 행정에서 1908년 한해만도 11,562명의 애국적 인민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일제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여 가는 의병 투쟁에 대처하여 그 진압책의 강구 실시에 분망하였다. 일부 친일 주구를 제외한 전체 조선 인민이 《반란자》로, 자기의 적으로 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일제는 조선 인민과의 투쟁에 있어서 자기 군대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 대렬 내에 조선인 헌병 보조원을 인입하였다. 일제는 1908년 6월 소위 칙령으로써 헌병 보조원 모집을 선포하고 동년 9월 제1차로 4,065명을 모집하여 일본 헌병대의 지휘하에 넣었고 1909년에는 다시 4,309명을 증원하여 《폭도 진압》에서의 탄알 받이로 앞장에 내세웠다.

놈들 자신의 희생을 덜고 폭동을 진압할 수 있도록 이들은 동족 상잔을 획책함으로써 민족 내부 갈등을 조성하여 조선 인민의 애국 력량을 거세 약화하려고 기도하였다.

이리하여 일제는 자기의 무력 기관—수비대 헌병 분대, 분견소, 파견소를 위시하여 경찰서, 주재소등을 확대 정비하여 소위 폭도 토벌 기관의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본국으로부터 헌병, 군대를 새로 인입하여 《의병 토벌》에 전력을 기울렸다. 놈들은 이때까지의 소위 대토벌 작전을 버리고 토벌군을 세분하여 한정된 구역 내의 의병 부대를 하나 하나 격파하는 전술로써 총 공세를 취하였다. 동시에 적들은 의병 대렬에 수 많은 스파이와 도발자들을 파견하여 이를 내부로부터 와해하는 등 갖은 모략을 다하였다.

놈들은 의병 운동 진압을 이처럼 악착하게 하면서 조선의 애국적 인민들에 대한 대중적 학살과 검거 투옥, 인민 재산에 대한 방화 략탈, 부녀자들에 대한 능욕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은 일대 감옥과 교형장으로 전변하였으며 놈들의 야수적 만행에 의한 죽엄의 생지옥으로 전화하였다. 일제의 이처럼 극악한 폭압과 류혈적 토벌에도 불구하고 의병 운동은 지속되였다. 그중에서 림진강 류역, 즉 황해도 동남부와 경기도 서북부 일대, 소백산 지방, 즉 강원, 충북, 경북 3 도의 경계 부근, 섬진강 이서 지방 즉 전라북도 서남부와 전라남도 일원에 걸쳐 맹렬한 투쟁이 계속 전개되였다.

의병들의 투쟁은 더욱 간고하고 치렬하여 졌다. 수다한 의병장들이 체포되여 놈들의 손에 의하여 학살 당하였고 수천의 의병이 희생되였다. 따라서 의병 활동 구역이 점차 축소되여 갔고 적과의 전투 회수도 줄어 들었다. 1907년에는 의병 부대가 일제의 군대, 헌병, 경찰들과의 953회의 무장 충돌이 있었다면 1910년에 들어 서면서 의병의 활동은 경상북도 소백산 지방과 황해도 평산, 해주를 중심한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였다. 일제는 조선 합병을 서두르면서 의병 진압을 종국적으로 결말을 짓고자 자기의 총 력량을 의병 활동 지역에 경주하였다. 이리하여 놈들은 황해도에서만도 1909년 11월 하순부터 다음해 3월 중순에 이르는 약 4개월간에 걸쳐 《대 토벌》을 감행하였다. 의병 부대는 거대한 손실을

당하면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병들은 적과 대비하여 력량상 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에 겨운 장구한 투쟁에서 전투력과 그들의 곤궁을 해결할 후방의 공급이 약해졌고 그리고 혁명적 지도부를 가지지 못하고 투쟁을 진행한 데로부터 부득이 퇴각을 면하지 못하였다. 의병들은 이러한 가장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자기의 무장을 버리지 않았다.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인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전취하고야 말리라는 열화 같은 애국심과 완강한 투지를 다시금 가슴 깊이 다지면서 의병들은 깊은 산으로 들어 갔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남북 만주로 근거지를 옮겼으며 일본 강점자들과의 투쟁을 계속하였다.

*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병 운동에 궐기한 애국적 조선 인민은 강적 일제를 상대로 하여 장구한 시일에 걸쳐 시종 일관하게 실로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반일 의병 운동이 그처럼 광범하게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에서 거족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 강도배들을 조국의 강토에서 격멸 구축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 기본 원인은 우선 대중을 옳게 지도하여 개별적 지방들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혁명적 투쟁을 통일하여 그를 조직하고 목적을 제시하며 진공의 주도권을 장악할 혁명적 당, 즉 지도자가 없는데 있었다. 운동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단결된 당, 당이 조직한 투쟁 계획 및 공격 방향, 인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구호 등 이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병 투쟁은 우리 나라의 사회 발전의 락후성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당—지도자를 갖지 못하였고 그 투쟁 시초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그리고 비조직적으로 아무러한 투쟁에 대한 안도, 지침이 될 일정한 방침도 없이 산만하게 전개되였다. 의병 투쟁은 인민들 속에서 나왔고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으나 지도적 력량의 결핍으로 인하여 통일적인 조직된 군대로 되지 못하고 각양 각이한 부대, 지방적 성질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공통적이며 통일적인 대오로 결합되지 못하였다.

당시 의병 운동의 지도층은 운동의 초기에 그의 전부가 량반 유생들이였고 그후 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인민들 속에서 적지 않은 지도자를 배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수는 량반 유생 또는 군관 출신이였다. 량반 유생들이 운동에 나섰고 지도층에 등장하게 된 것은 물론 그들의 열렬한 애국심에 기인되는 것은 틀림없었다. 이러한 데로부터 의병의 일부 지도층은 운동의 최후시기까지 또한 그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자로서의 굳은 지조와 불굴의 투쟁심을 보여 준 것도 사실이였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애국적 인민 대중의 압력에 이기지 못하여, 그리고 이른바 《충군 위국》을 설교하여 오던 그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창의자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을 투쟁에 나서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그들의 절실한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 외래 자본주의, 특히 일본 자본주의의 침입은 그들 봉건 유생들에게 크나 큰 위협으로 되였다. 자본주의 침입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이때까지 차지하고 있던 예' 특권과 지위, 그리고 그들의 《위신》과 《존엄성》 이 모든 것이 침해를 당하여 점차 저락하여 가는 것을 감촉하게 되였으며 때로는 직접 생활상 위협을 느꼈다. 이러한 사정은 그들 중 량심적인 인사들을 인민의 편에 서서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게 하였고 그 지도적 위치에도 서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일제를 반대하여 어떤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웠는가? 그들은 조선 인민의 절실한 요구를 위하여서라기보다 국왕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계급, 즉 량반 계급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땅에 떨어진 낡은 주권과 제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리하여 봉건적 낡은 조선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러한 지도층이 인민 대중의 절실한 현실적 욕망을 정확히 반영한 투쟁 구호를 내놓기는 만무하였으며 그렇게 기대할 수도 없었다. 바로 그들은 운동의 초기에 살포한 격문들에서와 같이 《선왕(先王)의 유제(遺制)》 《소중화(小中華)》의 5백년 의관물(衣冠物)과 3대의 유풍(遺風)을 지켜 내기 위하여 《렬성(列聖)의 후택(厚澤)을 입는 신민(臣民)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투쟁에 나선 봉건 군주주의 자들이였다.

이러한 지도층은 인민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투쟁 구호를 제때에 제시하고 광범한 대중을 투쟁에 적극 동원하며 조직하기는 너무나 무력하였다. 오히려 그들 지도층은 인민의 지향을 묵살하였으며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불안과 위협을 느끼면서 동요하였으며 적과의 투쟁에서 우유 부단하였고 투쟁을 가지고 흥정하였다. 특히 이러한 지도층은 투쟁이 간고하고 치렬하여 감에 따라 지어는 투쟁을 포기하고 투쟁 대렬에서 물러 서거나 투항, 귀순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의병 운동에 참가한 대중의 지향은 지도층의 의도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의병 투쟁의 기본 력량인 압박 받고 천대를 받는 농민 대중은 자기 투쟁 목적을 어데까지나 일제와 그 주구 봉건 통치배들을 격멸 구축하며 착취와 억압의 멍에를 벗어 던지려는 데 두었었다. 그들은 일제 침략자와 봉건 통치배들의 2중 3중의 억압과 착취를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에, 우선 일제를 물리침이 없이는 그들과 야합한 봉건 통치배들을 제거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감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부 량심적인 유생들이 내놓은 《멸왜 토적》의 구호에 호응하여 궐기하였던 것이다. 반일 의병 운동에 있어서 조선 인민은 일본 제국주의와 그 주구 친일 매국 역도들을 반대하여 결사적인 항쟁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질 봉건 관료들과 량반 지주 토호배들을 반대하여서도 그 투쟁의 예봉을 돌리였다. 의병들은 그들의 군자 원조의 호소를 거부하는 량반, 지주, 토호, 거상배들에 대하여서는 용서 없이 이를 처단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의병 투쟁 대렬 내에서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전라북도 금제군에 집결하였던 장 제석, 장 안국이 지휘하는 의병 부대는 자기들의 의병 규칙에서, 의병은 먼저 맹주를 정하고 그 지휘에 따를 것과 사람을 씀에 있어서 문벌을 가리말고 비록 창우 백정(倡優 白丁)이라도 지용이 있을 것 같으면 상좌에 이를 이끌어 앉힐 것을 규정하였다.

의병 대렬에 참가한 애국적 인민 대중은 혁명적이였다. 그들은 투쟁 행정에서 갖은 곤난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반일 의병 운동이 그처럼 장구한 시일에 걸쳐서, 그리고 그처럼 대규모적으로 완강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국적 인민 대중의 혁명적 추진력이 아니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였다.

다음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적아의 력량 대비에 있어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우선 의병 부대들의 무장과 전략 전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원시적 면모를 탈피하지 못한 렬악한 것이였으며 낡은 것이였다. 당시 의병들이 가졌던 무기 중에서 양대 화승총, 렵총은 그중에서 신무기였고 이러한 무기도 부족하여 의병의 대부분은 창검, 죽창을 들고 싸웠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를 든 의병들은 그 다수가 바로 어제'날까지 논밭에서 호미와 낫 밖에 모르던 사람들로서 현대적 군사 훈련이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순박한 농민들이였다. 이러한 의병을 지휘하는 지도층도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대부분이 백면 서생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또한 그 형편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제 군대는 청일, 로일 량 전쟁을 겪

은정규군으로서 근대적 최신 무기로 장비한 군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의병 부대와는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 부대가 일제 강적을 상대로 그처럼 완강한 투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투쟁의 정의적 성격과 이에서 흘러 나오는 조선 인민의 열화같은 애국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자기 희생적인 헌신성의 발휘에 있었다. 일제 략탈자들이 소유하지 못한 바로 이러한 힘, 이 유일한 무기를 일제 강도들은 가장 두려워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1909년 7월 조선 합병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도 《이 결정의 실현은 조선 인민의 반항의 정도를 타산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저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자기의 무력으로 조선의 모든 재부와 권한을 강점할 수 있었으나 조선 인민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된 이 고귀하고 위대한 힘만은 앗아 낼 수 없었으며 굴복시킬 수 없었다.

조선 인민의 반일 의병 운동은 완전히 고립무원한 가운데서 진행된 것이다.

조선 인민은 반일 의병 운동에서처럼 국내 국제적으로 이렇다할 하등의 지지와 성원도 없이 순수한 인민 자체의 힘으로써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여 투쟁한 때는 이때까지의 력사에서 일찌기 겪지 못하였다. 우선 지난 시기 1592—98년 조국 전쟁 당시의 인민 의병 투쟁에서만 보더라도 왜적 격멸의 투쟁에 궐기한 의병들은 무능력 하였고 비겁하였으며 일시는 인민을 버리고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여 도망을 치는 배신적 행동을 하였을 망정, 그래도 적에게 양보함이 없이 인민을 투쟁에로 호소하면서 끝까지 적에 반항한 국가 통치자들과 같이 싸워 승리하였다. 당시 각도 의병 부대들은 힘에 겨운 간고한 투쟁을 진행하면서도 정부 군대와 린방 명 나라의 원군에 고무되였고 또한 그와 배합하여 적을 타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 세기말 20 세기 초기의 반일 의병 운동은 이와는 전혀 사정을 달리하였다. 국가와 민족 존망의 결정적 위기에 처하여 누구보다도 먼저 침략자를 반대하여 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애국적 인민들을 결사적 투쟁에로 동원해야 할 통치 계급들이 처음부터 침략자와 야합하여 그의 충견으로서 구국 투쟁에 나선 애국적인 인민의 투쟁을 말살하기에 광분하였는 바 이것만으로도 당시 조선 인민의 반일 애국 운동 특히 의병 운동이 어떠한 처지에서 진행되였는가를 리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특히 정부 군대 (일제의 감병 정책으로 그 수에 있어 얼마되지 않으며 무력하였으나)가 총뿌리를 적에게 겨눌 대신에 의병들의 진지를 향하여 겨누었으며 일제의 《초토》 작전에서 침략 군대와 배합되였다는 사실(군대 해산전)을 생각만하여도 경악할 일이였다.

지어는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대렬 내에서까지도 의병 운동이 무모한 행동이라는 비방이 있었다. 당시 대한 협회의 총무였던 윤효정은 소위 《대한 협회의 본령》을 론하는 자기연설에서 《현금 각지에서 봉기하는 의병에 대하여는 그 정신인 즉 애국하는 충성에서 나온것이나 그 행동을 본다면…본 협회는 그 행동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하면서 《속히 폭행을 중지하여 각자 본업에 종사하고 정당히 국민의 권리,의무를 확수하라》고 하였다. 의병 운동은 반일 민족 해방 운동 진영내의 소위 애국 계몽 정치 단체와도 밀접한 련관이 없었으며 그들의 지지 성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의 견제를 당하는 일도 부분적으로 있었다. 국내적으로 이러한 고립 무원의 처지에서 투쟁한 의병들은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할 수도 없었으며 또한 기대할 처지에 있지도 못 하였다. 국경을 접한 청국과 짜리로씨야는 일제와의 전쟁에서 전패국이였다는 데서 뿐만 아니라 이 량국의 인민 자신들이 국내 혁명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거나 맹렬한 혁명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던 조건 하에서 조선 인민을 성원할 여력은 없었으며 성원할 수도 없었다. 원쑤 일제 강도배들은 미영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를 받고 있었다. 당시 반일 의병 운동이 처하였던 주객관적 제 사정은 투쟁에 궐기한 수만의 애국 인민들이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중요 조건이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이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경험과 교훈을 남기였다. 조선 인민은 이 운동을 통하여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은 애국적 전통을 옳게 계승 발전시켰으며 나아가 그의 불굴의 투쟁성과 견인성,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용감성을 전 세계에 시위하였다. 동시에 조선 인민은 이 투쟁을 통하여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였으며 수많은 유명 무명의 영웅들을 배출하였다. 조선 인민은 이 투쟁을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침략성과 조선의 친일파,민족 반역자 매국 역도들의 죄상을 여지 없이 폭로하였으며 누가 인민의 원쑤이며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를 명확히 갈라 놓았다. 동시에 이 시기 반일 의병 운동은 반제,반봉건적 민족 해방 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그 투쟁 성격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반일 의병 운동은 일제 침략자에 대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대답이였다. 당시 미제 식민지 략탈자와 일제 강도배들은 《나라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렬등한 민족으로, 자기 나라의 방비도 할 수 없는 그처럼 무력한》 인민으로서 조선 인민을 모욕했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자기의 투쟁을 통하여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서는 침략자와의 투쟁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굴할줄 모르는 민족이라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조선 인민은 자기의 위대한 힘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으며 정복되지 않는 민족으로서의 위명을 세계에 떨치였다. 실로 이 시기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특히 반일 의병 운동은 세계 어느 식민지 민족 력사에서도 그 류례가 드문 영웅적인 투쟁이였다.

조선 인민은 이 투쟁을 통하여 얻은 고귀한 투쟁 경험과 교훈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후 자기들의 세기적인 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돌진하였다. 실로 이 시기 반일 민족 해방 운동,그 중에서도 반일 의병 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은 그후 혁명 운동 발전에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반일 의병 운동에 있어서의 고귀한 력사적 경험과 교훈은 1930년대 김 일성 동지를 위시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 전개된 조선 인민의 항일 빨찌산 투쟁에 생생하게 살았으며 비로소 완전한 결정을 맺었다.

끈쑬따찌야

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

박 도 수

인류 력사는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발전한 다섯가지의 사회 경제 구성, 즉 원시 공동체 사회, 노예 소유자 사회,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및 공산주의 사회를 알고 있는 바 한 사회 경제 구성이 다른 보다 높은 사회 경제 구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엄격한 객관적인 합법칙성에 의하여 수행된다.

매개 사회 경제 구성들은 그 발생, 발전에 있어서 그 자체의 특수한 력사적 법칙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모든 사회 경제 구성들에 작용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의 생산 관계의 적응의 법칙이다. 이것은 모든 사회 경제 구성에서 작용하는 객관적 경제 법칙이다.

사회적 생산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두 측면을 가진 하나의 전일체인 바 이 두 측면은 서로 다른 측면이나 호상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어 있으며 호상 영향을 주고 있다. 생산 발전에 있어서 생산력은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생산력 여하에 따라 생산 관계가 변하며 생산력의 일정한 수준과 성격에 생산 관계가 적응하게 된다. 즉 생산의 가장 혁명적이며 가동적인 요소인 생산력은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바 이 변화에 의존하고 적응하여 사람들의 경제적 관계인 생산 관계가 변화한다.

그러나 생산 관계는 생산력 발전에 있어 결코 수동적 역할 만을 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영향도 주는 바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는 생산의 가일층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반면에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하지 않는 낡은 생산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한다.

동시에 그는 오래' 동안 생산력의 장성에서 뒤떨어져 생산력과 모순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조만간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와의 통일이 파괴되며 결국 생산 전체의 파탄과 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성하는 생산력과 낡은 생산 관계간의 모순은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언제나 사회 혁명과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다.

이것을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생산력이 그 내부에서 발전해 오던 현존 생산 관계 또는—그 법률적 관계에 불과한—소유 관계와 모순되게 된다. 이 관계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형식으로부터 그 질곡으로 전환한다. 이때에 사회 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맑스 엥겔스, 저작 선집, 제1권, 322페지).

* *

다른 사회 경제 구성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사회 제 관계도 사회적 생산의 과도적, 력사적 형태이며 이 형태는 사회 발전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 자연사적 합법칙성을 가지고 발생 발전하는 바 그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의하여 멸망 또는 개조되며 자기의 자리를 보다 높고 진보적인 사회주의적 사회 형태에 양보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전화된 봉건적 생산 관계를 교체한 후 일정한 력사적 단계에서 자본주의적 생산력에 적응함으로써 자본주의 생산 발전을 급속도로 촉진시켰다.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새 기술은 낡은 기술과 대체되였으며 근대적인 기계 기구들이 출현하였고 생산은 급속히 발전되여 기계화의 정도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는 불과 백년도 못되는 기간에 수천년에 걸친 선행한 사회 제도들에서 달성된 생산력 수준보다 수배나 초과하는 발전을 가져 왔다.

이와 같은 생산력의 높은 발전에 따라 생산은 사회화된 대규모적 생산으로 되였고 생산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분공은 더욱 더 세분화되고, 각 생산 부문들간의 의존성과 련계는 더욱 더 강화되였으며 생산과 소비의 의존성과 련계도 강화되였다. 따라서 사회화된 생산은 각 공장 및 기업소들 간의, 그리고 또한 생산과 소비간의 련계를 밀접히 련결시키며 불가분리적인 유기체를 이루게 되였다.

그러나 생산 수단은 의연히 자본가의 사적 소유이며 생산의 결과도 그의 사적 점유인 까닭에 생산의 사회적 성격은 이와 일치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모순——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의 결과에 대한 자본주의적 점유 형태간의 모순이다.

생산의 사회화는 각 경제 부문 및 공장, 기업소들간의 혼란과 불일치를 면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생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수단이 자본가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고 가능한 많은 잉여 가치를 획득하려는 자유 경쟁이 진행되므로 전체 사회의 생산은 혼란되며 각 생산 부문간에는 혼란과 불균등이 조성되는 바 생산은 일면적 성격을 띠고 일련의 생산 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면서 극히 불균등하게 실현된다. 무정부적 생산과 경쟁의 조건하에서는 경제의 불균등적 발전이 불가피적이다.

이와 동시에 자본가는 경쟁에서 승리를 획득하며 더욱 더 많은 리윤을 추구하여 생산을 확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발전은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인민을 날로 빈궁케 함으로써 소비 시장은 도리여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이와 같은 두 측면의 모순은 과잉 생산, 경제 공황의 발생을 면치 못하게 하며 경제적 위기를 조성하게 한다.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로 발전함에 따라 자유 경쟁의 지배는 제국주의의 기본적, 경제적 특징이며 본질인 독점의 지배와 교체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르죠아지는 독점의 지배가 생산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듯이 떠든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독점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성인 생산의 혼돈과 무정부 상태를 강화하며 더욱 첨예화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자유 경쟁에서 발생하는 독점은 자유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에 그것과 병행하여 존재함으로써 특히 첨예하고 격심한 일련의 모순, 알륵, 충돌등을 산생한다》(레닌 전집, 22권, 253페지).

독점은 생산의 사회화를 자본주의 하에서 가능한 최대 한도에까지 이끌어 간다. 대규모의 기업들은 각각 수천 수만 명의 로동자를 일 시키며 가장 중요한 공업 부문의 전체 생산물의 현저한 부분을 생산한다. 독점은 거대한 기업들을 하나로 련결시키며 판매 시장과 원료 원천들을 통제하고 대 은행은 국내의 화폐 자금을 거의 전부 통제하게 됨으로써 각이한 경제 부문들 간의 련계와 호상 의존성은 고도로 증대된다.

반면에 생산 수단은 의연히 자본가의 사적 소유로 되여 있으며 생산 수단의 결정적 부문은 독점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 형태간의 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된다. 이 첨예화된 모순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요구하게 된다.

제국주의 시기에 들어와 급속도로 발전된 생산력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협소한 틀에는 맞지 않게 되였으며 결국 봉건 제도보다 진보적 생산 방식이였던 자본주의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반동적 역할을 놀게 되였다. 이러한 모든 모순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로 교체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적응의 법칙은 력사가 계급 투쟁이 없이 인류를 공산주의로 끌고 가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칙이 자기의 길을 개척하가 위하여서는 로후한 사회 세력의 강력한 반항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 낡은 생산 관계를 견지하고 있는 지배 계급들은 자발적으로 력사 무대에서 물러가려 하지 않으며 사회의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면서 현존 질서를 국가 권력으로 보존하려 한다. 그러므로 사회 발전의 앞 길을 닦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진보적 계급들이 정권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반동적 지배 계급의 수중으로부터 혁명적 계급의 수중으로의 정권의 이행은 첨예하고도 무자비한 계급 투쟁에 의하여 실현된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사회 발전의 자연사적 과정은 사람들의 의식적 활동과 교체되며 이전에는 정치 생활에 참가하지 못했던 수백 만의 대중이 의식적 투쟁에로 궐기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 발전에서의 주관적 요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존재하게 되는 바 경제적 운동 법칙은 자본주의 제도를 멸망에로 인도하는 물질적 요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력량도 산생한다.

제국주의 시기에 들어 서면서 자본주의의 기본 모

순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의 각종 모순들——실례로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간의 모순, 독점체들 간의 모순, 독점체와 비독점체간의 모순 등이 격렬해 진다. 국제적으로는 독점 자본, 금융 자본은 식민지,반식민지 인민을 략탈하며 세계 시장을 재분할하려는 투쟁이 강화되는 바 이것은 제국주의 렬강간 및 제국주의와 식민지, 반식민지 인민과의 모순과 충돌을 격화한다.

실로 자본주의는 부르죠아 자신을 매장할 계급,즉 력사 발전의 질곡으로 전환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계로 교체시킬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로동 계급을 자체가 산생시킨 것이다.

자본의 생산 과정은 잉여 가치의 생산 과정이며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의 생산 과정이다. 잉여 가치의 생산 과정은 자본가가 로동자의 잉여 로동을 착취하는 과정이며 자본주의 생산의 발전은 바로 자본가가 잉여 로동을 착취하는 방법의 발전 과정이다.

자본의 잉여 가치의 추구는 로동의 착취 기준을 부단히 증대시키며 로동일의 연장, 부녀 및 아동 로동의 가혹한 착취, 로동력의 파괴, 수백만 근로자들의 육체적 불구화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기계의 적용, 생산력의 발전은 로동 절약의 수단이 아니라 잉여 가치의 기준을 높이는 수단으로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발전과 자본주의 하에서의 기계의 적용은 실업을 발생시키며 로동 예비군을 조성하게 하여 로동력의 과잉을 초래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로동자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빈궁화된다. 《……한 극에서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다른 한 극에서의,즉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자본으로서 산생하는 계급측에서의 빈궁, 로동고, 노예 상태, 무지, 야만 및 도덕적 타락의 축적이다》(맑스 《자본론》 제1권, 651페지).

따라서 로동 계급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아무런 가능성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제국주의 단계에 있어서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는 독점 자본은 전쟁 및 국민 경제의 군사화로써 소여의 나라 대다수 주민의 착취, 령락 및 빈궁화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타국,특히 락후한 나라 인민들을 예속화하며 계통적으로 략탈한다.

즉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 와서 거대한 생산의 사회화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의 불상용적인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그는 또한 근로 대중을 사회주의 혁명에로 궐기케 하며 새로운 사회인 사회주의의 건설자로 나서게 한다.

이와 동시에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 와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은 극히 불균형성을 띠게 된다. 세계 재분할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 진영내의 제 모순들을 격화하는 바 여기에 제국주의 세계의 약한 고리가 형성되며 제국주의의 철쇄를 끊어 버릴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리하여 개별적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가 가능하게 되는 바 레닌은 제국주의를 가리켜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라고 불렀다.

사회주의 혁명은 쏘련에서 제일 먼저 승리하였는 바 이는 곧 제국주의가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라고 한 레닌의 명제가 옳았으며 생산력 수준에의 생산 관계 적응의 객관적 법칙이 정확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착취자들의 정권을 전복하고 세계 6분의 1의 지역에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하였으며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필요한 제 조건을 조성하였다. 10월 혁명은 로씨야를 사회주의의 최초의 근거지로 만들었다. 위대한 10월 혁명은 로씨야에서 부르죠아지의 정권을 전복함으로써 세계 제국주의 전선을 파렬시키고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 놓았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는 바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존립 조건의 하나인 식민지 체계가 위기에 빠지게 되였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파시스트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이 패망당한 후 일련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자립적 발전의 길에 들어 섰다. 오래' 동안 존재하였던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붕괴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자본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화되던 행정이 식민지 체계가 형성되며 공고해지던 과정을 동반하였다면 오늘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되는 행정은 바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하는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는 레닌이 예언한 바 세계사 상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동방 인민들이 세계 운명을 결정하는 국제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됨을 증시하는 것이다.

오늘은 제국주의자들이 마음대로 지배하던 옛날의 아세아나 아프리카가 아니다. 이것은 애급에 대한 영, 불, 이스라엘의 침략의 수치스러운 패배와 이 지역에서의 강력한 반식민주의 운동의 성과들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 정책은 아세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애급에서, 세계 도처에서 격퇴 당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전쟁을 선동하고 국제 긴장 상태를 조성하며 군수 산업을 기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하려 한다.

그러나 전 세계 평화 옹호 력량은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있으며 오늘 세계에는 15 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광대한 평화 지대가 형성되였으며 이에 망라된 각이한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전쟁을 원치 않으며 자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옹호하고 그들의 절박한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외부 조건의 보장을 희망하여 공고한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평화 지대의 확대와 평화 력량의 강화는 전쟁 방지의 가능성을 이룩하였는 바 이것은 전쟁 도발자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전쟁에서 경제적 위기를 구원하려는 독점 자본을 더욱 신중한 파멸에로 이끌어 가게 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독점 자본가들과 그의 대변인들은 힘을 다하여 죽어가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더 생명력이 있다고 증명하려 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하여 교활한 투쟁 방법을 쓰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계의 전반적 위기의 시기인 오늘 장성하는 곤난들로 인하여 경제 생활에 대한 부르죠아 국가의 간섭이 강화되고 독점 자본주의는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전환됨을 《계획적 자본주의》라고 설교하면서 이것이 마치 자본주의의 특성과 인민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지도 방법을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이것은 부르죠아 국가 기관이 점점 더 크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본주의적 독점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사회주의의 본질을 외곡하며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근로 대중의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데 그의 목적이 있다.

또한 그들은 자본주의 제도의 착취적 본질을 엄페하기 위하여 현대 자본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는 일종의 《인민적 자본주의》라고 떠들면서 여기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계급적 대립이 없어졌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인민적 자본주의》의 《리론가》들은 로동자들로 하여금 트레스트 및 콘체른 등은 자본주의의 독점적 조직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것이며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같이 설교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株式)형식의 기업의 발전은 재산을 광범한 근로 대중에게 《확대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금융 자본의 거두들로 하여금 소부르죠아지의 자금과 로동자,농민의 로동의 저금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다. 주식 회사 발전의 실제적 결과는 《자본의 민주화》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자본의 집중과 금융 과두 정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는 《인민》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독점 자본주의이며 그의 특징은 인민 대중에 대한 대규모적 독점 자본의 착취와 압박의 미증유의 강화로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 미 제국주의자는 《번영》을 떠들고 있으며 《원조》의 미명 아래 식민지 예속 정책을 엄페하고 세계 제패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번영》은 일시적 요인들에 의한 생산의 약간의 증가에 불과한 것이며 반면에 그의 사회 경제적 모순은 날로 심각화 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의 침략 정책은 식민지 체계 붕괴의 합법칙적 과정에 의하여 파탄되고 있으며 그들의 생존의 토대는 날로 더욱 위태하여 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공적인 주장은 자본주의 멸망의 필연성을 저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

부르죠아지는 갖은 악랄한 비방을 하며 때로는 야수적 무력 간섭과 침공 및 경제적 봉쇄, 외교적 압박을 가하며 발광하였으나 제국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에 관한 객관적 사회 발전 법칙을 변경시킬 수는 없었으며 또한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은 객관적 제 법칙, 특히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적응의 법칙에 의거하여 로후한 로씨야 부르죠아——지주 제도의 타도에로 로씨야의 로동자, 농민 대중을 조직 동원한 결과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였다.

쏘련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과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은 생산력의 발전을 저애하는 낡은 제도의 페절 및 그것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제도에 의한 교체를 요구하는 객관적 법칙을 공산당이 리용한 훌륭한 표현이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수립—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의 페절과 그것의 사회적,사회주의적 소유로의 교체는 생산 및 생산력의 전대 미문의 발전의 근원으로 되였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사회주의적 소유가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에 일치되고 있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적 생산은 주기적 공황이나 그와 관련된 불합리를 모르며 여기에서는 생산력이 가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 관계의 새로운 성격—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전면적인 지배는 사회 발전에서의 자연 생장성이 사회 생활에 대한 의식적 지도로써 교체되게 하며 객관적 경제 법칙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맹목적 힘으로써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리용되며 적용되게 되였다.

로동 계급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한 당의 지도하에 혁명 투쟁을 진행한다. 로동 계급이 주권을 전취한 후 사회 발전 법칙들의 인식과 그의 의식적 적용의 가능성은 사회의 새로운 계급적 구성으로 말미암아 대규모로 확대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내에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들의 인식과 그의 적용을 억제하는 반동적 계급이 없으며, 사회주의 사회의 지도적 계급의 리해 관계는 력사 발전의 요구와 일치하는 까닭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사회 발전 법칙들의 의식적 적용과 그의 성과적 보장은 사회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인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실현되며 생산 관계의 주인으로 된 근로 대중의 자각적 로력에 의하여 그의 실천적 결과들은 성과적으로 보장된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의해 지도되는 쏘련 공산당은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한 후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수립하고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의거하여 쏘베트 사회를 지도하였으며 인민들에 대한 광범한 민주와 반혁명에 대한 독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강대한 사회주의 공업국을 건설하였다. 쏘련의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있어 기본적 경험으로 된다.

쏘련은 자본주의 포위하에서 근 30년 동안 사회주의 체계를 홀로 대표하였으나 제2차 대전에서 쏘련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파시즘이 격멸되고 제 민족의 해방 운동이 승리한 결과 인류 력사 행정에는 근본적 변동이 일어 났으며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전화되였다. 현재 쏘련과 함께 사회주의 발전의 길로 위대한 중국을 비롯한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나아가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주요 과업을 해결하면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유 형태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 수단의 사회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이 실현되고 있는 바 생산력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급속하고 안정하게 발전되고 있다.

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 밑에 평등적이며 호상 유리한 협조 관계가 설정되였으며 이들은 완전한 자립성을 보존하면서 공통적인 목적인 세계 평화와 사회주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세계적 체계에로의 전환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더욱 첨예화시켰으며 국제 무대에서의 세력 관계, 계급적 력량 관계에 결정적 변동을 초래하였는 바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새로운 전망이 부여되였다.

오늘날 로동 계급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나 각이한 국가들이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반드시 국내 전쟁과 관련된다고는 할 수 없게 되였다.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은 인민의 압도적 다수를 자기의 주위에 결속시키며 국회내에서 튼튼한 다수를 전취함으로써 국회를 부르죠아 민주주의 기관으로부터 인민 민주주의 무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이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공산당, 로동당들은 자기 나라의 경제적 및 정치적 정세를 전면적으로 연구하며 또는 로동 계급의 조직성과 의식 상태, 기타 주민들과의 그의 련계를 분석하면서 자국 인민들의 민족적 특성과 전통에 부합되는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구체적 방도와 형식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나라의 민족적 특성과 구체적 조건을 타산한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적 련대성의 필요성을 망각하라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다양한 형식에 관한 리론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본질을 조금도 제거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다양한 형태만을 강조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를 수정하려는 기도는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유해한 것이며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화한 것은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론박할 수 없는 력사적 사실이며 동시에 이것은 전 인류의 운명에 심오하고 전면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 세계 공산주의 혁명의 승리의 중요한 물질적, 정신적 요인으로 된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전 세계적 승리의 핵심적 력량으로 된다. 그러므로 매개 사회주의 국가의 력량의 강화와 그들 간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친선 단결은 전체 사회주의 체계의 각 나라의 최대의 국제적 의무로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을 선두로 하여 반동과 파시즘의 력량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환경에서 국제 공산주의 대렬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각국 로동 계급의 리익과 절실히 부합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은 인류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이며 이 법칙은 오늘 위대한 생활력과 정당성을 보여 주면서 힘차게 작용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세계적 체계로의 전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의 일익 장성, 식민지 체계의 붕괴, 광범한 평화 지대의 일익 확대 등은 제국주의 멸망의 운명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공산주의 승리의 전망과 확신성을 다시 한번 보여 주고 있다. 인류의 모든 길은 공산주의에로 향하고 있다. 아무 것도 이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끝으로 자본주의 멸망의 필연성과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은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의 리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모순의 첨예화와 자본주의의 경제—정치적 불균형적 발전은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발생 및 그의 승리의 조건을 지어 주며 사회주의 혁명은 모든 나라에서 동시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되는 력사적 행정의 시작과 종말간에는 완전한 세계사적인 과도적인 시대가 놓여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가 확장되고, 전면적으로 발전되며 각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는 과도적 국가 형태들이 존재하게 되며 같은 기간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가 점점 쇄퇴해 가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범위는 대대적으로 축소되여 가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과도적인 시대의 종말까지에는 장성하는 사회주의 제도와 몰락하는 자본주의 제도가 불가피적으로 함께 병행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합법칙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의 대외 정책은 완전히 과학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선동가들이 이 정책을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일시적인 술책으로 묘사하려는 시도는 황당무계하고 비과학적인 것이다.

물론 맑스주의자들은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을 인정하면서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무력으로써 또는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방법으로나 혹은 소위 《혁명의 수출》의 방법으로써 달성한다는 것과는 아무 인연도 없다.

그 나라에서의 혁명은 그 나라에서 주 객관적 혁명 정세의 성숙 여하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에 대한 사회주의 생산 방식의 결정적 우월성에 기초하여 전쟁으로써가 아니라 평화적인, 경제적인, 건설적인 경쟁에 의하여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서적 해제 및 평론

《조선 문학사》 (19세기 이후)에 대하여

김 헌 순
김 재 하

교육 도서 출판사에서 간행된 안 함광 저 《조선 문학사》(1900~)는 리 응수 저 《조선 문학사》 (1~14세기), 윤 세평 저 《조선 문학사》 (15~19세기)와 더불어 조선 문학의 발전을 서술한 3부작을 이루며 이 저서들로써 가장 난이한 문예학적 과업이였던 과학적 문학사를 서술하는 문제가 첫 걸음을 내드디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우리는 과학적인 조선 문학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니 만큼 저자를 달리한 조선 문학사 3부작의 출판은 우리 문학사의 과학적 서술을 위한 사업에서 하나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안 함광 저 《조선 문학사》(1900~)는 우리의 문학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현대 문학 부문을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사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저자는 방대하고 복잡한 과정을 겪은 이 시기 문학 발전의 특징과 각종 문학 현상에 관한 자료, 그리고 개별적인 작가와 작품들을 맑스주의적 문예학의 견지에서 옳게 평가하고 그것을 현대 조선 문학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전통을 밝히는 립장에서 정당하게 서술하였다.

우리의 현대 문학에서 뚜렷한 혁명적 전통을 론증하고 옹호한 이 저서는 우리 나라에서 반동적 부르죠아 문학사가들에 의하여 감행된 각종의 외곡, 파렴치한 위조적 서술에 대하여 커다란 타격으로 되며,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은, 언제나 력사적 진리를 거부하며 치렬한 계급 투쟁을 엄페하려고 시도하는 각종 부르죠아 문학을 타승하면서 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일익으로 복무해 왔다는 것을 증시하였다. 그러므로써 이 저서는 문학을 연구하는 학도들을 포함한 광범한 독자 대중을 우리 문학의 혁명적 전통에 대한 옳바른 리해와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 저서가 가지는 공로의 하나는 문학사 서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기 구분 문제를 옳게 해결하였다는 점이라고 본다. 지난 날 이 시기 구분 문제에서 특히 해방전 현대 문학에 대하여서는 론의가 많았다. 조선에서 프로레타리아 문학이 발생되던 시기부터 1945년까지에 이르는 현대 문학 발전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어떻게 구분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이 시기 문학의 내용의 본질적 발전 과정, 특히 사회주의 레알리즘 방법의 발생 발전 과정을 연구함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다. 저자는 종래 자기가 대표로 되여 편집한 고급 중학교용 《문학》 교과서에서 1919~1945년의 문학을 1919년~1925년 신경향파 문학, 1925~1935년 문학, 1936~1945년 문학 등 세 시기로 구분하였으나 이 견해를 시정하고 금번 자기 저서에서는 이 시기 문학을 1919~1930년, 1930~1945년 등 두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 하면 1925년과 1935년의 시기상 계선을 긋는 것은 단순히 카프의 결성과 해산이라는 하나의 문학 운동사상의 사실 (史實)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이러한 구분으로서는 조선에서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발생 발전에 관한 서술을 정당하게 해명하기 곤난하기 때문이다.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첫 단계로 되는《신경향파》 문학의 형성 과정의 문학적 사실들은 염군사의 결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최 서해, 조 명희, 리 기영 등 작가들의 출현에 이르는 1923~4년경에 이루어지나 《신경향파》 문학의 대표작으로 지목될 수 있는 작품들은 거의 모두가 년대상으로 보아 1925~6년에 속하며, 또 이 문학의 특질은 카프 결성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1927년 카프 재편성을 전후하여 비로소 문학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초래되였다. 따라서 1925년에 획선을 긋는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일 수 없으며 또 1935년에 하나의 획선을 긋는다는 것 역시 이것은 1930년대 이후 사회주의 레알리즘 방법의 발전 과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커다란 불합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결코 정당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 문학사 시기 구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문학에서 기본적인 변화를 초래케 하는 민족 해방 투쟁의 가장 중요한 시기들 및 사변들과 긴밀히 련결되면서도 한편 문학 발전의 자체의 특수성과 문학 내용의 본질적 변화 및 사회주의 레알리즘 방법의 발전 등 조건과 응당 유기적으로 련관되여 설명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제와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복무한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발전 과정은 응당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되는 1930년에 응당 고려를 돌려야 하며, 이 시기가 사회주의 사실주의 방법의 발전상으로 보나 문학 발전의 특수성으로 보아 응당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응당 지적되여야 할 것은 저자가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발생 발전 과정을 조선 사회 발전의 매 계단과 긴밀하게 련관된 과정에서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문학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회 발전의 매개 새로운 시기와 함께 변화되여 간다. 특히 프로레타리아 문학은 당해 시기의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의하여 자기의 일정한 특성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문예학자들 중에서는 사회 발전과 문학의 발전을 기계적으로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을 주장하는 나머지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발생 발전을 서술함에서도 당해 사회의 프로레타리아 운동과 분리시켜 생각하려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물론 문학의 특수성을 고려함이 없이 사회 발전 과정과 기계적으로 동일시될 수 있다는 듯이 설명하려는 견해도 역시 옳지 못하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발생 발전 과정을 당해 시기의 프로레타리아트 앞에 제기된 혁명적 임무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다.

레닌은 일찌기 《문학 사업은 일반 프로레타리아 사업의 일부분으로 되여야 하며, 전체 로동 계급의 전체 자각적인 전위대에 의하여 운전되는 사회 민주주의란 한 큰 기계의 조그마한 <바퀴와 나사못>으로 되여야 한다》 (당 조직과 당 문학)라고 교시하였다. 조선에서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발생 발전 과정을 리해할 때 레닌의 교시는 우리 문학의 발전 단계를 문학 발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응당 조선 로동 계급 앞에 제기된 혁명적 과업과 유기적으로 련결시키면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안 함광 동지의 견해는 적절하다고 본다.

저서가 가지는 중요한 공로의 또 하나로 응당 지적하여야 할 것은 해방 후 우리 문학을 서술함에 있어서 우리 문학의 개화 발전을 위한 당의 향도적 역할을 천명하였으며 해방 후 매 시기마다의 당의 문예 정책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해방 후의 우리 문학은 인민 대중의 리익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당적이며, 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이며 그의 찬란한 개화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민족 문화를 급속히 개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선 로동당의 지도적 역할을 떠나서 론의될 수 없다. 저자는 해방된 첫날부터 우리 문학이 일반적인 당 사업의 필요 불가결한 일 구성 부분으로 되였다는 것과 평화적 민주 건설 시기,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복구 건설 시기 등 매 시기에 걸치여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전투성과 자유로운 개화 발전을 위하여 당은 그의 창건 초기부터 지도적 향도적 역할을 다하였다는 것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당 문학으로서의 해방 후 우리 문학의 본질과 특징들을 론증하였다.

저서는 이상과 같은 문예학적 의의와 공로를 가지면서도 이것이 과학적인 현대 조선 문학사 서술을 위한 첫 시도인 만큼 그 서술 방법과 구성, 그리고 개별적 세부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 이런 저러한 문제들이 약점으로서 제기될 수 있으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연구가들 사이에서, 독자 대중들 사이에서 광범히 론의되여야 하며 일정한 해결을 지어야 할 것이다.

저자는 매 시기 문학을 대체로 문학의 발전 과정을 개괄만 하는 개관적 서술 부문과 매 시기의 대표적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작가론적 견지에서 연구하는 부문과를 유기적으로 련결시키면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려 한다.

1), 개관적 서술 부문과 관련하여

문학사란 우선 문학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에 대한 정연한 해명이 있어야 하느니 만큼 무엇보다 먼저 선행 시기의 유산과 전통에 대한 계승 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저서를 검토해 볼 때 적지 않은 약점들이 발견된다.

저자는 계몽기의 문학을 서술하면서 이 시기 문학

의 문학사적 위치를 밝히기 위하여 선행 시기 문학파의 계승 관계의 견지에서 그의 내용과 예술적 형식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측면에 걸치여 정당하게 해명하였다. 그러나 유산과 전통에 대한 계승 관계는 이 시기 문학을 제외하고는 거의나 언급이 불충분하였다.

1920년대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형성 과정을 서술하면서 선행 시기 문학파의 계승 관계에 대하여 저자는 《신경향파 문학은 지난 날의 온갖 문화 유산의 합법칙적인 계승자로 활동하면서 조선 문학의 사실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다》 (64 페지) 《그들은 전통의 계승을 비단 사상적인 면에서 만 아니라 정당하게도 형식 수'법 등에 걸쳐 수행하여 왔으며》 (65 페지)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은 그 이전의 문학과는 정반대로 조선 문학의 훌륭한 전통을 파악하면서 과거의 문학이 소유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관을 토대로 하여 그것을 발전시키며 더 앞으로 전진하게 하였다》 (65페지) 등 극히 일반적인 리론을 되풀이하고 해설함으로써 구체적이고 명백한 분석을 대신하였다. 문제는 저자 자신이 서술한 문학 원론적 리론에 근거하여 조선 문학의 발전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였던가 하는 문제가 해명되여야 한다. 말하자면 1920년대 프로레타리아 문학 형성의 사회적 기초와 문학사적 과정이 해명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응당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 형성의 특징을 해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조선에서 프로레타리아 문학 형성의 사회적 기초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 앞에 놓여진 반제, 반봉건적 혁명의 력사적 요구와 정치적 내용에 의하여 규정지어 진다.

즉 조선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혁명적 요구에 순응하여 프로레타리아 문학은 탄생하였으며 그의 혁명적 임무도 결정되였다. 이것은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발생과 그 의의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주게 한다. 물론 이 문제에서 이 시기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특성과 복잡성에 대한 정당한 리해가 이 시기 문학 과정과 개별적 작가들의 창작의 참된 리해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은 자기가 탄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문학사상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 그 원천은 첫째로 조선 문학사상의 사실주의의 전통이니 특히 리조 후반기 고전 소설, 박 지원 등의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애국적 문화 계몽 운동 시기의 문학에 대한 계승이다. 초기의 프로레타리아 작가들은 거의 누구나 자기 이전의 사실주의 문학에서의 사상성과 문학 방법상의 사실주의를 배웠으며 이를 1920년대 초의 력사적 환경에서 비상히 창조적으로, 혁명적으로 계승하였다. 이는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발생에 대한 리해를 충분히 가지게 하며 그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를 해명하게 한다.

그 원천은 둘째로 구라파 문학에서 비판적 사실주의와 특히는 19세기 후반기 20세기 초의 로씨야 문학의 비판적 사실주의와 고리끼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과 그리고 《5 • 4》운동 이후 로신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프로레타리아 문학이다.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은 외국 문학으로부터의 사실주의 섭취에서 의식적이였으며 창조적이였다. 프로레타리아 문학은 이러한 태도에서 외국 문학에서의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그들의 사실주의 문학의 방법을 흡수하였으며 이로써 반제, 반봉건 투쟁과 부르죠아 문학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외국 문학에서 받은 영향은 모두 다 긍정적인 것이였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일부 서구라파의 부르죠아 문학 사조는 초기에 일부 작가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이였는 바 그것은 리 상화나 조 명희의 초기 시 창작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도 해답은 명백하다. 중요한 것은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발생 발전의 주되는 조류에서 말할 때 우에서 언급한 외국 문학의 영향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 왔었다. 즉 외국 문학의 진보적, 혁명적 영향이 주되는 것이였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발생은 우리 나라에 제기된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기초하는 동시에 세계 부르죠아 문학의 각종 아류들인 조선의 부르죠아 문학의 류파들과의 치렬한 투쟁 속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세계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전반적인 운동과 조류에 대하여 옳게 발을 맞춘 것으로 된다. 여기에 바로 조선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발생 발전의 특수성이 있으며 그의 의의가있다.

그러나 저자는 맑스—레닌주의의 침투와 로동 운동에 대한 사실은 서술하였으나 민족 해방 운동의 성격과 임무와 사상 사조에 대하여서는 거의 스쳐 지나고 말았으며 이 시기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전통과의 관계에 관한 서술은 모호하게 하였으며 더구나 외국의 진보적, 혁명적 문학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았다.

저서의 개괄적인 서술 부분에서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은 매 시기 문학을 개괄함에 있어서 왕왕 일정한 쟌르에 만 편중하는 경향의 표현과 관련된다.

문학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이를 리해할 때 문학 쟌르는 확실히 문학의 형식과 관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학의 내용과 그리고 이의 원천으로서의 현실적 제반 관계와 엄연한 관련을 가지는 사회—력사적 개념으로서 그의 발생, 발전, 분화 과정은 구체적인 사회—력사적 조건의 제약 아래서 이루어진다. 현대 조선 문학에 있어서도 매 시기의 문학은 그를 산생시킨 구체적인 현실적 조건으로 해서 각각 자기의 쟌르적 특수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수한 기능으로 하여 당해 시기의 문학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고유한 위력을 가진다. 그러나 저자는 매 시기 문학을 고찰하면서 주로 소설 문학, 시 문학에 편중하면서 기타의 쟌르에 대한 고찰을 간과하거나 극히 차요시하였다. 저서가 현대 조선 문학 발전의 전 행정을 포괄하려고 시도한 이상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시와 소설이 문학 쟌르 중에서도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와 소설 이외의 다양한 쟌르들이 홀시되여서는 안될 것이니 그것은 이러한 편중이 흔히 우리 문학의 풍부하고 다양한 발전 변모를 단순화하며 일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례하면 계몽기 문학에서 저자는 이 시기에 유력한 기능을 수행한 정론에 대하여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정론은 이 시기에 정치와 사회 생활에서 제기된 긴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며 그의 호소와 선동의 내용은 실상 이 시기 문학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이 시기의 애국적이며 계몽적인 성격을 띈 정론은 이 시기의 기타 쟌르와 함께 강력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가 당해 시기에 논 바 자기의 특수한 역할로 보아 시와 소설에 못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논 것이 사실인 이상 이 시기의 정론은 응당히 평가되여야 할 것이다.

1920~30년 문학, 1930~1945년 문학 서술에서도 마땅히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평론, 극문학을 비롯한 정론적 수필, 단평적 성격을 띈 잡문 등 제 쟌르들이 언급되였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있어서 여상의 쟌르들은 프로레타리아 문학 형성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 시기의 현실적 조건으로 하여 진보적 작가들이 필연적으로 리용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전투적인 형식들이였던 만큼 이 시기 조선 문학의 특수성의 하나로 응당히 취급되여야 한다.

계급 사회에서 특히 부르죠아 사회에서 진보적이며 선진적인 문학은 항상 지배 계급에게 복무하는 온갖 반동 문학파의 치렬한 투쟁 속에서 발생 발전하여 왔다.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 역시 그의 발생의 첫날부터 리 광수를 비롯한 부르죠아 반동 문학의 각종 아류들과의 비타협적 투쟁 속에서 자기의 발전의 길을 걸어 왔다.

저자는 이 문제와 관련되는 적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여 부르죠아 반동 문학의 반인민적 본질을 폭로하였으나 그러나 이 어려운 투쟁 행정이 흔히 안일하게 취급되였으며 따라서 반동 문학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뚜렷이 하는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생동하고도 진실한 발전 행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례하면 1920~1930년대 문학의 서술에 있어서 1923년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첫 단계로서의 《신경향파》 문학의 대두 시기에 있었던 각종의 문학 투쟁, 1926년~1927년 카프의 재편성을 위한 시기에 전개되였던 국민 문학파, 무정부주의적 문학 리론, 박 영희, 김 기진 등의 기회주의적이며, 반동적인 견해를 격파하기 위한 한설야, 리 기영을 위시한 카프 작가들의 평론 활동, 1930~1933년대 카프 내부의 좌우경적 문학 리론에 타격을 가하고 자기의 전투적 문학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리론 투쟁 등이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선명히 서술되지 못하였다. 서술이 적지 않은 경우에 《신경향파》 작가와 카프 작가들이 이룩한 문학적 성과를 렬거하는 데 치우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와 같은 성과들이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문학 발전에서 가지는 의의는 무엇이였던가 등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충분한 해명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해명하지 않고 지나 간다는 것은 첫째로 이 시기 문학의 생동한 발전 과정을 모호하게 하는 것으로 되며, 둘째로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발생 발전 과정을 치렬하고 간고한 계급 투쟁이 없는 개선 행진의 길로 묘사함으로써 결국 우리 문학의 전투적 의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학 발전의 구체적 과정을 밝히지 못한 례는 1925~1927년 문학의 서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카프의 결성과 재편성 만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이미 조직된 력량으로 장성하게 된 조선 로동 계급의 일반적 정치 투쟁의 일익으로 이루어 진 투쟁인 만큼 응당 이와 같은 정치적 배경과의 유기적인 호상 련계 속에서 해명되여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이 리론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이상

당시에 조선 인민의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위한 정치 투쟁의 일익을 담당하여 나선 카프가 어떻게 자기 앞에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여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카프의 혁명적 활동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한 카프 내외의 원쑤들의 온갖 기회주의적이며 반동적인 시도들이 어떤 행정을 통하여 극복되였는가가 만족스러운 심도에서 해명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과 관련하여 저서는 카프의 력사적인 재편성 문제가 한낱 카프 작가들의 작품상에 표현되였던 신경향파적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인 듯이 그릇되게 묘사되고 말았다. ≪카프의 초기의 문학은 파업 투쟁을 혁명 운동과 철저히 결합시키지 못하였으며, 로동 운동을 맑스주의 사상과 원만히 결합하지 못하였다. 농촌의 계급 분화와 계급적 각성의 장성을 취급하면서도 근로 대중의 맑스주의적 사상의 장성 과정을 뚜렷이 표현하지는 못하였으며, 로동 계급에 의한 농민과의 동맹 문제를 혁명적으로 원만히 형상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카프의 문학 앞에는 자연 생장적 경향을 극복하여야 할 당면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카프의 조직체를 새로운 단계에 적응하게 개편하며 확대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동서 70페지). 저자는 자기 저서에서 카프 재편성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카프의 재편성을 위한 총회가 카프 문학의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전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맑스주의적 정신으로 정식화된 새로운 강령을 채택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후에야 비로소 리 기영의 ≪원보≫, ≪제지 공장촌≫, 한 설야의 ≪파도기≫, ≪씨름≫과 같은 신경향파 문학의 제반 특질과는 엄연히 자기를 구별하는 새로운 현실의 단계를 반영하는 획기적 작품이 나오게 되였다고 서술하였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카프를 재편성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리유가 과연 신경향파적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데 만 있었으며, 또 재편성이라는 하나의 계기 즉 조직의 확대와 강령 채택으로서 과연 그 이전 문학의 제약성이 극복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다.

문학 발전에는 현실의 제 관계에 기초한 자기의 독자적인 합법칙성이 존재한다. 카프 문학이 신경향파적 제약성을 극복하게 된 중요한 요인은 바로 카프 문학이 기초하고 있던 현실적인 제반 관계와 계급 투쟁의 발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현실적 요구의 앙양 및 카프 작가들의 사상적, 예술적 장성 등 조건과 보다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다. 문학 발전은 가장 복잡한 행정이다. 하나의 조직적 대책으로서 문학 발전을 설명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독단일 것이며, 어디까지나 객관적 행정인 문학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경시로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하고 싶은 또 한 가지 문제는 방향 전환론의 서술과 관련된 문제다. 카프의 재편성을 위한 력사적인 총회를 전후하여 론의되였던 자연 발생적 문학으로부터 목적 의식적 문학에로의 ≪방향 전환론≫이 그 당시의 로동 운동상에서 론의되였던 방향 전환론과 동일한 시기에 론의되였던 만큼 그들에 있었던 호상 련계 관계가 밝혀져야 옳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 정당한 해명은 카프 문학의 발전 행정을 정당하게 파악하게 한다.

1925~1927년 문학과 관련하여 제기한 이상의 몇 가지 문제는 물론 신중한 문제로서 조급히 결론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단편적으로나마 자료가 남아 있다는 조건과 그 당시에 활동하던 작가들이 적지 않게 오늘날에도 진보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그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조건 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연구는 진행되여야 하며, 또 이 저서가 대학 교재로 출판되였으니 만큼 이상의 몇 가지 문제가 결론짓기 곤난한 문제라고 해서 덮어 버려져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1930년대 문학을 취급함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의 항일 무장 투쟁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를 천명하는 문제는 우리의 문예학계에서 새로운 리론적 문제로서 그 동안 적지 않은 토론을 거듭하여 오던 문제다. 저자는 이 문제의 옳바른 해명을 위하여 적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탐구 리용하면서 항일 유격 부대 내에서 창작되였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에 관한 서술을 현저히 풍부화하였다. 이것은 저서가 가지는 중요한 공로의 하나로 응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 유격 투쟁이 우리 문학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분석되였다고 볼 수 없다. 유격 투쟁 과정에 나타난 군중적 문학 예술에 대하여 ≪새로운 값 높은 특징을 갖는 것이였으며, 더욱 전투적이였으며, 사상적으로 더욱 성숙한 것이였다≫ (194페지)는 결론적인 특징화를 부여하였을 뿐 더는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 항일 유격 투쟁이 당해 조선 문학 발전에 어떻게 작용하였던가에 대하여도 납득되지 않는 기계적 론리로서 피상적이고 소홀하게 취급하는 데 그치였다. 저자가 자기 저서 178~179페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김 일성 동지가 지도한 항일 유격 투쟁의 사상 정치적 영향이 당시 조선의 진보적인 작가로 하여금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좀 더 높은 사상적 심도와 좀 더 우수한 서사시적 화폭으로 형상화하는 데 만 있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의 론거로서 저자는 ≪이 시기에 리 기영의 장편 〈고향〉과 한 설야의 장편 〈황혼〉과 같은 기념비적 화폭들이 창작되여졌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상기하는 것 만으로도 족하다≫ (179페지)라고 지적하였는 데, 과연 이것으로 리론적인 분석을 가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의 해명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리용할 수 없었다면 항일 유격 투쟁이 조선 인민의 정신 생활과 그들의 투쟁에 끼친 일반적 의의 만이라도 보다 충분히 론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추리적인 독단으로서 문제를 안이하게 취급한다면 결국 이것은 객관적인 문학 발전 행정을 외곡하는 데 이를 것이다.

해방 후 문학 서술에 있어서 우선 지적할 것은 이 시기 문학 작품의 테마적 분류와 관련된 문제다.

한 시기 문학을 테마별로 개괄할 것인가, 혹은 쟌르별로 개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속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저자는 해방 후 평화적 민주 건설 시기와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문학을 테마적 분류의 원칙에서 개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분류 원칙으로서의 테마 설정이 불정확하여 이런 저러한 모순이 표현되고 있다는 데 있다. 평화적 민주 건설 시기의 문학에서 ≪8. 15 해방의 감격과 제반 민주 개혁과 인간 장성의 테마≫, ≪로동에 대한 새로운 사상의 테마≫ 등이 설정되고 있는 데 이것은 본질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 하면 제반 민주 개혁을 떠나서 로동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론할 수 없으며, 로동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떠나서 인간의 장성을 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테마상 련계를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두개의 테마로 구분한 결과는 이들 테마에 따르는 작품 분류에서도 커다란 모순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8.15 해방과 제반 민주 개혁 및 인간 장성≫이라는 중요한 테마를 가진 작품으로는 한 설야의 ≪탄갱촌≫, 리 기영의 ≪개벽≫, 백 문환의 ≪성장≫, 송 영의 ≪자매≫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로동에 대한 새로운 사상의 테마≫의 작품으로는 리 기영의 ≪땅≫, 조 기천의 ≪생의 노래≫, 한 설야의 ≪자라는 마을≫, 리 북명의 ≪로동 일가≫ 등이 취급되고 있는 데 이 분류는 결코 정당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리 기영의 ≪땅≫만 하더라도 그것이 해방 후 토지 개혁과 관련된 로동에 대한 새로운 사상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체적인 장성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 만큼 단순히 ≪로동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테마로 한 작품≫으로서 만 분류되여서는 안될 것이며, 한 설야의 ≪탄갱촌≫역시 실천적인 로동 행정을 통한 인간 장성을 보여 주고 있는 이상 ≪로동에 대한 새로운 사상의 테마≫와 분리되여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상술한 여러 테마들은 자의적으로 분리되지 말아야 하며, 통일적인 하나의 테마로 결속되여야 정당할 것이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문학에서도 ≪인민의 불패성을 테마로 한 작품≫, ≪인민 군대의 영웅성을 테마로 한 작품≫ 등의 분류가 적용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도 역시 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후방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에서 만 ≪인민의 불패성에 관한 테마≫가 있을 수 있고, 전방 인민 군대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에서는 이 테마가 없는 듯 한 관점에 선 이 기계적인 테마적 분류가 저자의 의도와는 무관계하게 이 시기 문학의 본질적 내용을 심오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리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상술한 테마적 분류에 관한 문제와 함께 해방 후 문학 서술에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남반부 문학을 어떤 측면으로나 취급할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 문학은 해방 후 10년 동안 조선 로동당의 직접적 지도하에 부르죠아 반동 문학과의 투쟁을 계속 꾸준하게 전개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날 우리의 대렬 내에 잠입하여 각종 방법으로 우리 문학의 전투적 력량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던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을 비롯한 반인민적 류파들은 본질상으로 보아 결코 고립된 문학 조류가 아니며, 그것은 엄연히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적극적 비호와 장려에 의하여 그들의 정치적 선전의 대변자로 나서고 있는 남반부의 타락적인 문학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남반부의 반동 문학 역시 그의 력사적 계보를 따진다면 1920년대 리 광수를 비롯한 부르죠아 반동 문학과 1930년 이후의 ≪9인회≫, ≪해외 문학파≫ 등의 후계자로서 조선의 진보적 문학을 반대하여 온 적대적 요소로서 자기의 일정한 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해방 전에 체계적으로 격파되어 오던 반동 문학이 오늘날 어떤 형태로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혁명적인 우리 문학의 거룩한 전진을 가로막기 위하여 그들의 더러운 촉수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뻗어 오고 있는가 등 문제가 구체적으로 분

석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해방후 조선의 반동 문학의 계급적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지우며, 그에 대한 우리 문학의 투쟁 과정을 보다 력사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2), 작가론적 서술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서는 우선 매 작가들의 개성적 스찔과 사상—예술적 발전 과정이 선명하게 밝혀 지지 못한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저서가 매 시기의 문학 발전을 개괄하면서도 작가론적 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서는 마땅히 작가의 개별적 작품의 분석과 함께 소여의 작품에서 표현되는 일련의 사상—예술적 특성이 분석되여야 할 것이 아닐까.

작품은 반드시 작가의 개성을 통한 산물이다. 작가는 자기 작품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하나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하느니 만큼 우리는 그 작가에 속하는 작품들에서 자연히 다른 작가들과 구별되는 엄연한 비반복적 스찔적 독자성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스찔적 독자성은 테마, 사상, 쨔쁘, 구성, 슈제트, 언어 등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포괄한 전반적인 령역에서 표현된다. 같은 시대에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실을 사회주의 사실주의 방법으로 진실하게 반영할 줄 아는 재능 있는 작가들인 한 설야와 리 기영의 작품에서 《윈보》와 《씨름》, 《고향》과 《황혼》, 《두만강》과 《설봉산》은 같다고 할 수 없으며, 창작상 독자성, 묘사의 수단과 언어적 기교에 있어서조차도 서로 구별된다. 이것은 특히 류사한 생활 환경을 묘사하는 경우에 특히 명백하게 나타난다. 《봄》과 《탑》은 다같이 19세기 후반기 20세기 초엽의 조선 현실의 일단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사상—예술적 독자성으로 독자들을 예술적으로 감흥시키고 있다. 이러한 독자성이 있으면서도 일정한 시대의 문학— 이것은 하나의 작가 집단의 창조적 로력 및 호상 작용의 결과의 산물이라고 리해할 때 그들은 자기의 고유한 목소리로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발전을 위한 공통적인 목적을 위하여 화음을 이루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저서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는 것으로 하여 우리는 하나의 공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 작가들을 계통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 문학 발전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서술함에 있어서도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부족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론적 서술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재고려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대작가에 치우치는 나머지 일부 작가들은 너무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는 점이다. 송 영만 하더라도 그의 소설 창작과 함께 그의 희곡 작품 창작은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고급 중학교용 문학 교과서에서는 송 영 이외에도 박 팔양, 박 세영, 김 창술, 지어는 라 도향까지도 개별적 소제목을 내여 취급하면서도 더욱 상세하여야 하며, 포괄적 내용을 담아야 할 대학용 교재에서 그렇지 못한 리유는 어데 있겠는가. 이것은 전혀 수긍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모든 작가들이 문학 발전에 꼭 같은 정도로 참가하지는 못하였으며, 문학의 찬란한 보물고에 모두가 균등하게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기계적이며 평균주의적 립장을 반대하는 것은 응당하다. 따라서 문학사적 서술에서는 《균형적》이거나 《조절적》 립장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작품의 가치 여하에 따라 응당한 자리를 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근 로 자》 제 6 호 (루계 제139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쇄 1957년 6월 20일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발행 1957년 6월 25일

ㄱ-40 525　　값 45 원

새 학습 년도 당 교양망 학습 참고 자료 출판 안내

상급 학습반 참고 자료 (총 3분책)

제 1분책 서론 맑스—레닌주의란 무엇인가
제 1장 원시 공동체 사회
제 2장 계급사회
제 3장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

제 2분책 제 4장 조선 인민은 어떻게 생활하여 왔는가?

제 3분책 제 5장～8장까지 포함되는 바 명년초에 발행예정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반 참고 자료 (총 3분책)

제 1분책 내용

제 1장 조선에 있어서 초기의 로동 운동과 맑스—레닌주의 보급, 조선 공산당 창건과 해산(1910～1928)

1, 일제의 조선 강점, 조선의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의 전변, 초기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
2,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우리 나라 민족 해방 운동에 준 영향 1919년의 3•1 운동
3, 1920년대 조선에서 로동 계급의 장성과 맑스—레닌주의 보급,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의 발전
4, 조선 공산당의 창건, 공산주의 대렬내에서의 파쟁, 당의 해산

제 2장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새로운 단계에로의 발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항일 무장 투쟁과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투쟁 (1929—1945. 8)

1.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의 사회 경제 형편,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의 새로운 앙양
2, 민족 해방 운동의 항일 무장 투쟁 단계에로의 전환, 항일 무장 투쟁의 개시와 유격 근거지 창설, 조선 인민 혁명군의 조직,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방침
3, 반일 민족 통일 전선 결성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조국 광복회 결성
4, 반일 무장 투쟁과 통일 전선 운동의 확대 강화,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의 계속 발전, 국내 공산주의 각종 그루빠들의 활동
5, 제 2차 세계 대전과 반일 민족 해방 운동,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한 항일 무장 투쟁의 력사적 의의

※ 상기 참고 자료는 7월부터 발행 예정임

조 선 로 동 당 출 판 사